(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841-842 1982년 6월4일(금) & 5일(토)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Friday & Saturday, June 4 & 5,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인 쇄 인 : 박 정 서
광 고 국 장 : 송 광 호

박이희 서전서 승리

프로탁구 캐나다선수에 2:1

2일밤 7시30분 토론토의 이토비콕올림픽·스타디엄에서 개최된 상금 27,000달러가 걸린 캐나다 오픈 노위치유니온세계탁구대회에서 한국출신의 박이희(27) 선수는 유고출신인 캐나다의 코자노빅 선수를 셋·스코아 2:1로 물리치고 서전을 승리로 장식했다.

D조1차전인 이날 경기에서 박선수는 코자노빅을 맞아 주특기 카트를 이용, 제1셋 5-1, 14-11, 19-16으로 계속 리드했으나 1셋트 중반 공격형인 코자노빅의 강한 대쉬에 밀려 1세트를 23-21로 놓쳤다.

양선수는 2셋 중반까지 8-8로 시소를 벌였으나 박선수가 정확한 커트와 스매싱으로 21-11 2셋을 따냈다. 안정을 되찾은 박선수는 3셋을 21:15로 가볍게 따냈다.

게임후 박은 "지난 겨울내내 허리부상으로 누웠다가 회복되어 지난 4월부터 분데스리그 1차리그에 출전중이나 연습기간이 짧아 아직 콘디션이 회복안됐다"고 말했다. 분데스리그는 서독의 직업 탁구리그이다. 스웨덴, 항가리, 체코등 유럽의 강호들과 일본선수 2명등 세계 16강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4명씩 4조로 예선리그를 벌인후 각조 2명씩 결승토나멘트를 벌인다. 1위 상금은 9,000달러이다.

D조로 출전한 박선수가 4일밤 8시50분 일본출신의 79년도 전세계선수권자 세이오·오노와 갖는 대전이 주목된다.

이날 이토비콕 스타디엄에는 약 천명의 관중이 모였으며 캐나다교포 약100명이 나와 박선수를 열심히 응원했다. 박선수는 한국의 유일한 프로선수이다.

이 대회를 주최하는 노위치·유니온(Norwich Union)은 세계적인 보험회사이다.

◆써브와 커트가 주특기인 박이희(28)선수의 폼. 2일밤 코자노빅(캐나다)를 셋 스코아 2:1로 눌렀다.

이철희·장영자 결혼식날 하객명단 국회제출

(서울2일=연합)한국의 정치근 법무부장관은 1일 사채스캔들로 구속기소중인 전중앙정보부차장 이철희와 장영자의 결혼식 하객 122명의 명단을 국회법사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명단에는 현직 국회의원 7명을 포함, 상당수의 정치가들과 예비역장성, 정부고위관리및 재벌, 종교계지도자들이 포함돼있다.

정법무는 이들이 사채스캔들과는 무관하며 다만 개인적친분으로 결혼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같이 명단을 국회에 공개하는 이유를 "결혼식 참석자들중에는 배후에서 사채스캔들과 관련된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유언비어를 명확히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사위원회는 명단을 기밀로 해달라는 정법무의 요청을 수락한 반면 야당의원들은 명단이 완전치 못하다고 불만했다.

사채스캔달 관련 26명 기소예정

사채스캔달을 조사중인 검찰은 현재 구속중인 혐의자 26명 전원을 기소할 방침이라고 2일 대검찰청의 소식통이 전했다.

소식통은 또 검찰이 앞으로 한달 더 다른 사채 브로커들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스캔달과 관련, 30명의 사채업자들이 수배중에 있다.

◆박이희 선수와 이를 응원나온 교민 응원단들이 자리를 같이 했다.

"북한군비 방어수준이상"

이임하는 위컴주한미군 사령관

(서울3일=연합)이임하는 주한미군사령부 존·위컴사령관은 "북한은 자체방위에 필요한 이상의 수준으로 군비를 확대, 경고없이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3일 성조지(미군신문)와의 인터뷰에서 위컴사령관은 북한의 위장전술과 실질적 군사능력을 정확히 구분,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것인가는 알 수 없으며 한국과 미국은 항상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병역의무를 7년으로 늘이고 탱크등 군사장비를 개선한 북한군이 최근 새로 배치한 탱크는 방어용보다 공격형 군사무기라고 위컴사령관은 말했다.

곧 신임 로버트·세너월드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업무를 인계할 위컴사령관은 "남·북한사이 긴장은 북한측이 긴장완화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한 계속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F016전투기와 A-10 대탱크용전투기의 추가등 최근 한국군의 군사장비강화가 북한의 군사공격태세를 중화시킬 수 있으며 "한반도에 전쟁은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나 언제나 전쟁발발에 대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자율 오름세

3월이후 최초로 달러보호위해

JUN 8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오타와)금리가 다시 오를 것같다. 2일 연방정부가 날로 떨어지는 캐나다달러의 대 미국달러가치를 떠받들기 위해 외화보유고중 미화 $7억5천만을 외환시장에 투입한다고 발표함으로써 현재 년17.0%인 최우대금리는 년 17.5%로 오를 것으로 보이며 이같은 오름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는 2일 발표에서 중앙은행이 지난달 $9억4천5백만의 미화를 풀어 캐나다 달러를 매입, 대 미화 가치를 붙들려고 애썼다고 밝혔다.

2일 외환시장에서 $100당 미화 $80.37로 거래된 캐나다 달러는 이날 한때 80센트대에서 하락 $79.94였다.

이날 시중은행 최우대금리가 오른 것은 지난 3월이후 첫 인상으로 최근 중앙은행의 금리는 약간씩 올랐으나 시중은행은 별 변동이 없었다. 최우대금리는 금융기관이 가장 신용이 좋은 대기업에 적용하는 금리다.

우대금리에 따라 오르는 모기지이자율은 대개 시중은행 대부금리보다 1~2% 정도 낮다.

2일 앨런·맥케큰 연방재무상은 "캐나다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고 이자율을 고집, 미국달러가 강세를 보여 대 미국달러가치가 떨어지는 것이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캐나다 달러의 가치는 양호한 편이다"고 말했다.

캐나다 달러는 일본의 엔화, 영국의 파운드, 서독의 마르크화에 비해 가치가 올랐다.

맥케큰재무상은 브로드벤트 신민당지도자등 야당측이 의회가 여름휴회로 들어가기전 수정예산을 발표하라는 주장을 거부했다.

트루도수상과 맥케큰재무상이 4일 시작되는 프랑스 베르사이유 세계7개국 경제정상회담에 참석차 출[illegible] 신임회의를 열어 경제문제를 토의하려던 보수당과 신민당의 기도는 장·소베 하원의장의 "달러가치의 약화문제는 지속적인 것이지 시급한 문제는 아니다"는 해석으로 저지됐다.

브로드벤트 신민당당수는 대미국달러 가치하락은 연방정부 경제전략에 맹점이 있음을 나타내는 징조라고 비난했었다.

청와대 대변인에 황선필씨

전대변인 이웅희씨 MBC사장으로

(서울3일=연합)3일 전두환대통령은 청와대 대변인에 국무총리실 대변인 황선필(43)씨를 임명했다.

경북출신의 신임 황대변인은 언론인 출신으로 79년 국무총리실 대변인에 임명된 후 현재 유창순총리등 4명의 총리를 보좌해왔다.

한편 3일 사임한 이웅희 전대변인은 문공부장관으로 승진한 이진희 전MBC사장 후임으로 취임했다.

문화방송(MBC)은 한국의 유일한 민영방송이라고 하나 5.16직후부터 「5.16 장학재단」에 의해 운영돼 실질적 관영방송이나 다름없다.

지난 80년 한국은 언론법및 방송통신법을 개정, 동양방송, 동아방송등 민영방송을 전부 폐쇄 통합, 한국방송공사(KBS)에 흡수시켰으나 문화방송은 그대로 두었었다. 문화방송은 73년 경향신문을 흡수, 운영하고 있다.

대통령 만나겠다

유치송당수 회견

(서울2일=연합)유치송 민한당총재는 2일 사채사건및 국내 민주주의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전두환대통령과 허심탄회하게 토의할 용의가 있으며 이번 스캔달에 정부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덧붙였다.

유총재의 기자회견은 야당연합으로 발의한 국회내 사채스캔달사건 조사위원회 구성과 국무총리의 해임안이 1일 특별국회에서 부결된 후 있었다.

한편 국민당의 이만섭총재권한대행도 이날 따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스캔달과 관련된 모든 배후인물및 고위정치인의 관련여부를 철저히 밝혀 줄 것을 촉구했다.

태평양지역 중요

북미, 나토이어 제3방어

(워싱톤2일=연합)한국을 포함한 태평양지역이 북미, 나토지역(북대서양국가)에 이어 미국의 3번째 중요한 방어전략지역이라고 미국레건행정부가 발표했다.

워싱톤포스트지는 2일자 신문에서 펜타곤(미국방성)의 보고서를 인용, 태평양지역 미군들이 나토지역으로 이동하지 않을까하는 태평양지역국가들의 근심이 일소됐다고 보도했다.

레건행정부와 전 카터행정부의 방위전략상 차이는 분명치 않으나 군사전문가들은 미국의 방위 우선지역 순위가 바뀌었다고 보고있다.

—제3회 스포츠·퀴즈—

프로야구 올스타전 장소맞추기

본사의 제3회 「스포츠·퀴즈」는 금년도 북미프로 야구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이 벌어지는 장소 알아맞추기다.

해마다 7월에 개최되는 올스타전은 아메리칸리그와 내셔날리그별로 대표선수들을 선발, 단 한게임을 가진다.

양팀의 감독은 전년도 각 리그 우승팀인 아메리칸리그의 뉴욕·양키즈감독과 내셔날리그의 L.A.다저스의 감독이다.

82년도 올스타전이 열리는 도시의 이름을 알아 맞추는 분 2명을 추첨으로 선발, 1등 1명에게는 제일여행사 제공하는 올스타·게임입장권 2장을 주며, 2등 1명에게는 브랜든스포츠사(대표 이전영)가 제공하는 쿠퍼스 야구글로브를 준다.

응모방법은 엽서우송(주소: 1025 Dupont St, Toronto, M6H 1Z7) 또는 전화(533-2361)이며 기간은 오는 16일(수)까지이다. 당첨자는 16일밤 8시 익스비션스타디엄에서 토론토·블리자드축구팀과의 경기에 참석하는 미국 포트랜드팀의 조영증선수가 현장에서 추첨한다. 조선수는 북미 프로축구에서 활약하는 유일한 한국계 선수이다.

한국일보사

—제1회 한국일보—
어린이야구(소프트볼) 대회
1982년7월3일(토) : 코로네이션파크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각종보험

B) 497-3800
R) 284-9052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캐 나 다
외환은행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렉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20A BLOOR ST. W.

Merrill Lynch Royal Seurities Ltd.
금·은·증권·Bonds·RRSP에 대한 투자는
361-3428(B), 447-1374(R) : 강상욱
증권은 경기변동에 따라 움직이는 특성이 있는데 경기회복 6개월 전부터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많은 투자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일, 이십년만에 한번 올수있는 절호의 기회가 증권투자에 오고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 근거는 무엇인가?

직업소개소 신설안내

금반 한국기원에서는 부대사업으로 아래와 같이 직업소개소를 신설하고 교민 여러분에게 성심껏 봉사하겠사오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장 소 : 653 BLOOR ST. WEST
(2) 전 화 : 533-0168
(3) 이용방법 : 구인하실 분은 직종, 인원, 보수, 근무처 기타요망사항 등을, 구직하실분은 성명, 연령, 직종, 보수, 기타 요망사항 등을 서신 또는 전화로 신청하십시오.
(3) 봉 사 료 : 구인경우에는 무료이고 구직경우에는 취직이 결정되면 $50을 받겠읍니다.

1982년 6월 1일

한국기원내 한국 직업소개소

ㅇ사고시 보험 관계 일체 처리
ㅇ수리중 차대여
ㅇ완전한 차체수리
ㅇ사고차량 TOWING SERVICE
ㅇ페인팅(OVEN BAKE FINISHES)

MISSISSAUGA AUTO COLLISION
69 John Street, Mississauga, ONT.
Bus.: 275•3131, 3133 Res.:622-1171
정 창 헌

SKY WAY
●각종 복사기
●각종 타자기-사무용, 가정용, 학생용
●캐쉬 레지스터
●계산기-사무용, 가정용
※신품과 중고 판매및 수리
※15년 경력으로 교민 여러분께 봉사

OLIVETTI, SHARP, 3M
MITACOPYSTAR, IBM, SANYO
215 CARLINGVIEW DR.
UNIT 109, REXDALE 김인환
(B)675-1295~6 (R)671-0938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캐나다가 제일 좋은나라"

7개 선진국 여론조사서 결론

(파리)4일 개막되는 베르사이유 세계7개국 경제정상회담을 앞두고 프랑스의 주간지 파리·마치지의 여론조사에서 캐나다가 가장 생활수준이 높은 살기좋은 나라로 꼽혔다.

캐나다를 비롯 미국,서독,영국,프랑스,일본,이탈리아등 7개국의 여론조사기구와 협력, "회담참가 7개 선진국은 각기 다른 정상회담참가국을 어떻게 생각하는가?"하는 여론조사에서 "가장 살기좋고 위대한 자부심을 가질수 있는 나라로 캐나다가 뽑혔다"고 파리·마치지는 전했다.

가장 살기 어려운 나라로는 영국, 가장 자부심을 덜 가진 국가로는 이탈리아가 꼽혔다.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프랑스인과 영국인은 서독의 헬무트·슈미트를 미국민은 마가렛·댓처 영국수상을, 일본인은 프랑소와·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을, 서독인은 로날드·레이건 미대통령을 꼽았다.

당첨자 신광섭군

스포츠퀴즈 상품은 골프용구

「NHL우승팀 알아맞추기」 제2회 스포츠퀴즈에 신광섭(15)군이 당첨됐다.

81~82년도의 NHL우승컵은 많은 팬들의 예상대로 뉴욕·아일랜더스로 돌아가 3연패를 차지했으나 플레이·오프 초반에서 몬트리얼·케네디언등 강팀들이 탈락되는 바람에 우승팀 예상에 혼란이 있었다. 플레이·오프 시작전 누구도 예상 못했던 벵쿠버·커넉스는 결승까지 올라, 뉴욕아일랜더스에 패함으로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응모자수는 11명이었으나 정답 "뉴욕·아일랜더스"를 알아맞춘 분은 신광섭군 뿐이었다.

신군에게 돌아간 상품은 골프 포트 1세트로 브랜돈스포츠사가 제공했다.

당첨에서 탈락된 10명에게는 대한항공이 제공하는 야구모자가 돌아갔다.

◆제2회 스포츠 퀴즈에 당선된 신광섭군.

◆시의원 고든·청(왼쪽)이 주민들이 노골적인 창녀들의 매춘행위에 항의하는 일부 지역을 돌아보고있다.

매춘합법화 시켜라

고든·청등 시위원들 주장

토론토에서 점점 팽창해가는 사창가문제를 양성화, 매춘을 합법화하자는 것이 토론토정계인사들의 견해임이 2일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서 밝혀졌다.

고든·청, 앤디·패튼, 딕·길버트, 도로시·토마스등 4명의 시의원들은 역사상 가장 오래된 또한 아마도 영원히 근절되지 않을 매춘업을 양성화해서 성병예방등 그로 인한 장점을 취하자고 말했다.

매춘합법화로 이들은 창녀들이 일반시민들을 귀찮게 하는 폐단을 줄이자고 말했다.

토론토 시의회는 3일 고든·청의원의 제의로 이 문제를 검토한다.

벵쿠버와 캘거리는 현재 경찰이 창녀와 손님에게 티켓을 떼고 벌금을 물도록 하는 거리단속법을 갖고 있다.

승공협회 영화상영

최홍희·최덕신 북한방문

승공문화협회(회장 이근우)는 공산남침 6.25사변 32돌을 맞아 문화사업의 첫행사로 영화를 상영한다.

6월19일(토) 하오7시 토론토한인회관에서 상영될 영화는 1)최홍희·최덕신 북한방문 기자회견(김일성을 어버이 수령으로 여기는…), 2)달려라 풍선아 의 2편을 상영하며, 입장무료이다.

많은 교포의 관람을 바라고 있다.

동협회는 특히 최홍희·최덕신씨가 얼마나 친공언행을 하는가를 이번 기록영화를 통해 잘 알아주기를 권하고 있다.

빠른 소식!
놀라운 광고 효과!
(416)
533 2361

〈토막소식〉

토론토대학의 학기와방학

토론토대학교에는 학기가 둘 있다.

"겨울학기는"는 9~12월, 4개월이고, "봄학기"는 1~5월, 5개월간이다.

6~8월 석달동안은 방학이다. 그밖에 짧은 방학으로 크리스마스때 1주일과 2월경의 Reading Week가 있다.

여름 석달의 긴 방학은, "공부할 때 열심히 공부하고, 쉴 때는 철저히 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마치 독일 대학생들간에 유행한 「아인슈타인 방정식」(처세술) S=X+Y+Z처럼.

여기서 S는 성공이고, X는 "얼마나 공부에 열중하는가?"이고, Y는 "얼마나 열띠게 노는가?"이며, Z는 "얼마나 남의 일에 간섭 아니하는가?"이다.

한국인의 자랑 고려청자

2

정동훈

◆편집자주 : 오는 11일부터 세타멜화랑(King & E. of Parliament)에서 도예전을 가질 정동훈씨가 한국 도자기예술에 관한 특별기고를 보내왔다. 1천년역사로 세계 도자기의 종주국임을 자랑할만한 한국의 도자기는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며, 어떤 역사를 가졌는가를 정씨의 글을 통해 되새겨본다.

셋째는 이조백자 시대이다. 분청사기위에 붓으로 간단한 장식을 하기 시작하던것이 이조시대에 와서 청화, 철화, 홍화의 세가지 색채를 사용하여 주로 붓으로 장식하는 방법에 이른다. 보름달 같이 둥근 백자항아리에 십장생문, 산수문, 포도문등을 많지도 적지도 않게 그려넣고 흰색의 유약을 입힌 후 구워낸 것이다.

우리민족이 유달리 흰색을 사랑했고 즐겨했던만큼 이조백자야 말로 우리민족의 상징이었다.

경기도 분원지방을 중심으로 약 200여개의 가마가 관청(사금원)의 지휘하에 최고급의 도자기를 제작했다.

임진란 때에 100여명의 도공들을 강제로 납치하여 일본으로 데려간후 그들의 손으로 시작된 일본의 도예는 지금 세계 제일의 정상에 가있으며 현재도 우리 민족의 후손들이 일본도자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있다. 특히 도자기 제작에 쓰이는 여러 용어들은 한국어 발음 표기대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이조중엽에는 영국으로도 도자기 제작술이 전파되어 현재의 영국도자기의 기틀이 되었다는 것이 이조실록에서 밝혀져 있다.

임진란 이후 점차 쇠퇴해지기 시작하여 6.25를 겪으면서 거의 사장되었다가 그 이후 서서히 발전하기 시작한 근대의 한국도예는 전통성을 살린 모조품 제작의 결과, 새로운 한국의 도예를 위한 현대도예로 갈라지며 모두 활발하게 급성장 중이다.

현대에 접어들어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정부차원에서 연구소도 많이 세워졌으며 도자기 수출공단(마산지역, 군산지역)까지 설립되어 도자기 수출산업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우리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고령토를 갖고 있으며 백토, 상백토등의 우수한 점토와 우리 전통적인 제작술과 새로운 과학적인 제작방법을 배우고 받아들여 열심히 노력한다면 금명간 세계제일의 도예왕국으로 성장할 날이 멀지 않았음을 확약한다.

현재 한국의 각 미술대학과 특히 경희대의 요업공예과, 이화여대의 도예과, 원광대, 단국대, 한양대의 요업과에서 도자기만을 전공으로 가르치는 학파가 설치되어 활발히 연구제작에 임하고 있으며, 그외의 수많은 응용미술 계통의 학파에서 도자기 공예를 연구하고 있다. 도자기 분야만큼은 세계각지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오게하고 한국도예의 우수성을 외국에 알려 도자기 종주국의 면모를 되찾아야 할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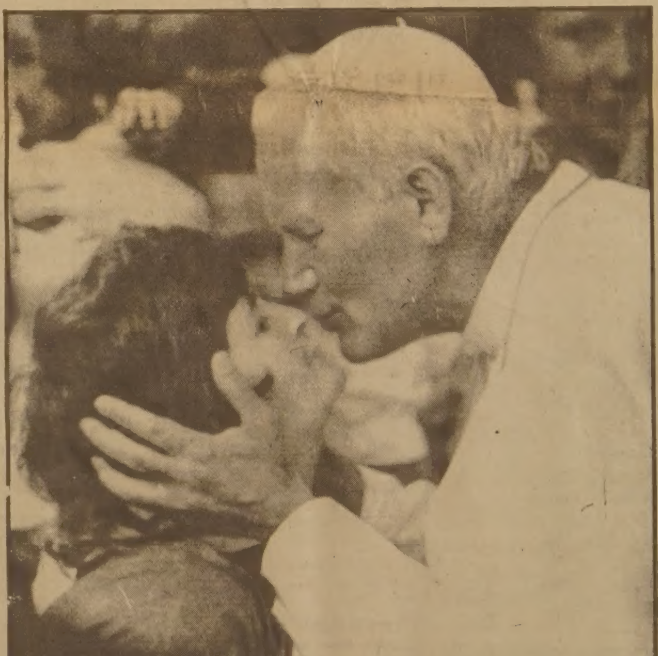
특히 현재 캐나다의 도예작가들도 한국의 도예에 점차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필자가 보여준 몇번의 슬라이드·쇼를 통해 한국도자기의 아름다움을 뒤늦게 깨달았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

캐나다에는 아직 도자기만 전공으로 가르치는 학파는 없으며 미술대학 등에서 응용미술의 한부분으로만 가르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기에 한국의 도예를 이곳에 전파 발전시킬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 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필자는 도자기예술의 전문인 으로서 지난 1년간 캐나다에서 보냈고 앞으로 2년의 미국 유학생활을 거친후 귀국하여 한국도예의 후진양성과, 외국과의 교류를 통해 한국도예의 면모를 되찾기 위한 일원으로 열심히 노력 하고자 한다.

끝으로 캐나다 교포들의 도자기에 대한 많은 관심과 후원을 빌면서 도자기왕국으로 발돋움을 할수 있는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

(82년 5월에)



◆6일간의 역사적 영국방문을 끝내고 로마로 돌아가는 교황 요한. 바오로2세가 웨일즈의 카디트공항에서 2일 여성신도에게 이례적으로 키스하고 있다.

추리소설 「제5의 사나이」

8일자부터 연재

일간발행 1주년특집

"작가 김성종씨 불붙였다"

본지에 연재추리소설 「제5의 사나이」를 싣게 된 인기추리소설가 김성종씨는 일본독서계에 활기찬 화제를 던진 인물.

일본의 유력지 아사히 신문은 "한국에서는 최근 추리소설이 크게 붐을 이루고 있으며 여기에 불을 붙인 작가가 김성종씨(41)"라고 81년 10월1일자 6면 국제판에 8단 톱기사로 다루고, 김씨의 사진과 함께 인터뷰 내용을 실었다.

서울 주재 특파원 후지다까 기자발로 보도된 이 기사는 "순문학 중심의 한국문단에 추리소설붐", "대중사회가 왔다", "여유의 뒤에 숨은 불만의 돌파구"란 제목이 붙어 있다.

◆일본신문에 한국추리소설 독서붐을 일으킨 인기작가 김성종씨

한국문단에 추리소설"붐"

일본〈아사히신문〉, 톱으로 보도

"한국독서계에 어떤 이변이 일어나고 있다. 추리소설이 육성되지 않는다는 정설을 깨고, 최근 한국작가의 추리소설이 필장히 팔리고 있다"고 시작된 이 기사는 "순문학 중심의 한국문단에서는 아직 이단적 존재이지만 학생과 샐러리맨측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다"면서 그 까닭을 "최근 수년동안의 경제성장에 따라 이제 한국에서도 대중사회가 정착하고 있는 것같다"고 분석했다.

이 기사는 또 이 추리소설 "붐"에 불을 지른 역할을 한 기수는 김성종씨라고 밝히면서 그의 작품세계를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연세대 출신으로 74년 〈한국일보〉 창간 20주년기념 200만원 현상소설에 「최후의 증인」이 당선되면서 본격적인 추리소설에 몰두한 김씨는 그후 7년간 「제5열」, 「부랑의 강」, 「7개의 장미송이」, 「안개 속에 지다」, 「나는 살고 싶다」, 「여명의 눈동자」, 「Z의 비밀」, 「서울의 황혼」, 「죽음을 부르는 소녀」등의 추리소설을 연거푸 발표한 정열적 필치의 소유자라고 김씨를 평했다.

이러한 추리소설의 배경에 대해 한국의 문예평론가 백승철씨(〈주부 생활〉 편집장)는 "최근 수년동안의 경제적 여유가 외국 추리소설을 읽게 했고, 거기에 교육수준이 높아 한국의 독서층은 더욱 넓어져 가고 있다. 지난날 한국인에게 독서는 곧 교양이었으나 지금은 학생·샐러리맨 계층이 지적인 오락으로서 독서를 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가 점점 조직화되고 있는 것도 추리소설붐과 관계가 있다"고 분석, 논평했다.

여기서 지적된 사회조직화란 경제발전적 측면에서 볼 때, 샐러리맨들이 회사나 관청의 조직에 의해 제약을 받고 있음을 말한다. 때문에 정치·사회악을 고발하는 추리소설이 독자의 욕구불만을 해소시키면서 인기를 얻는다는 풀이다.

김성종씨의 성공에 자극을 받아 추리소설에 손을 대는 작가는 있지만 아직 이렇다할 뚜렷한 인물은 없다고 백씨는 밝혔다.

韓国文学の戦国で

なぜか推理小説ブーム

大衆社会の訪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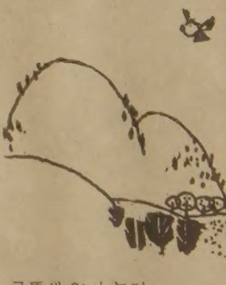
アイルランド

IDA Ireland

◆〈아사이신문〉 국제판에 크게 보도된 "한국추리소설 붐" 기사.

〈시〉 봄은 또 오는데

정봉희



긴 잠에서 깨어나 호흡하는 시냇가,
꼬마들 손에 든
갯버들 송이에 숨어온
고운 봄이 가만히 마음을 부르는데,

굴뚝새 앉아 놀던
가지
뾰롯이 망울이 트고,

우달, 잔등에서
주체할 수 없는 몸울
살랑이는 바람에 사르르,
패잔병같은 겨울의 마지막 여운이
아쉬운 낭만을 일게 한다.

이젠 앞섶을 끄옥 여민 가슴이라,
선뜻 일어서 사립밖을 나설
기운을 잃고
해묵은 달력의 역사만을 새기며
한 줄기 긴 숨을
창틈으로 날려 보내야 하누나.

한국선교 100주년 기념

토론토 연합전도대회

TORONTO KOREAN CHRISTIAN CRUSADE '82

강 사 : 박조준 목사 (서울영락교회 당회장)
ㅇ한국 연예인들의 간증도 있을 예정임.
일 시 : 1982년6월11일·12일·13일 저녁7시30분
장 소 : CROSSROADS CATHEDRAL
300 QUEEN'S DR. (401 & JANE. E.)
연락처 : 755-7979, 535-6864, 496-2967.

토요조찬기도회
강사 : 박조준목사
일시 : 1982년6월12일 (토)
오전7시
장소 : 라마다인(RAMADA INN)
185 YORK LAND
(HWY 401 x Don Valley Pkwy)

토론토 연합 전도대회 대회장 : 안병한목사 · 부대회장 : 김재광목사 · 준비위원장 : 박회민목사

후원 : 토론토 한인교역자회

「온」주예술위 장려금 $533만

1년이상 활동단체및 개인에 지급

온타리오주에서 활동하는 모든 예술인, 혹은 단체에 지급하는 온타리오주 예술위원회(OAC·Ontario Art's Council)의 연례장려금 지급대상및 그 액수가 발표됐다.

1일 OAC는 총 $532만9천946를 269개 예술단체및 469명의 예술가들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중 가장 많은 액수는 토론토·심포니와 캐나다·오페라·캄파니가 받은 $50여만씩이다.

OAC위원장 아더·겔버씨는 "위의 두 단체는 내셔널·발레, 해밀턴·필하모닉·오케스트라, 오케스트라·런던·캐나다및 스트랏포드·페스티발등과 더불어 총 장려금의 15%를 타게 됐다"고 말했다.

OCA장려금은 온타리오주 내에서 1년 이상 풀타임으로 활동을 한 음악, 미술, 사진, 문학, 무용, 연구, 영화등 모든 분야의 예술가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각방면의 권위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범위를 선정한다.

"지난 10년간 예술은 경제·사회적 생활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 그러나 OAC가 주는 장려금은 예술가들에 자양이 되기보다 겨우 생존을 버티게 해주는 정도밖에 안됐다. 내년에는 주정부의 예산확대로 장려금 총액 $14,673,550에 100개 단체, 2천명의 예술가들에 장려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겔버 위원장이 밝혔다.

OCA 장려금 신청에 관한 문의는 961-1660 Ontario Art's Council(151 Bloor St.W.)로 연락하면 된다.

레건재출마·케네디와 대결

닉슨 평"결국 레건이긴다"

(워싱턴)리처드·닉슨 전 대통령은 31일밤 CBS 저녁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에드워드·케네디 연방상원의원을 실질적인 인물이라고 평하고, 1984년도 대통령선거에서는 민주당의 대통령후보로 지명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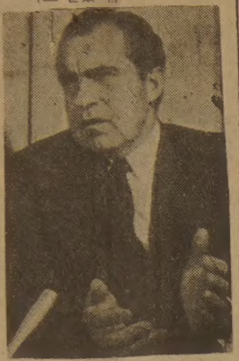
닉슨은 또 레건 대통령이 1984년 대통령선거에 재출마할 것이며, 레건 대통령이 다시 출마하면 케네디를 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월터·몬데일 전부통령은 매빠진 카터 전대통령과 같아 1984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닉슨의 생각이다.

CBS 저녁뉴스에서 닉슨은 케네디의 여비서가 익사했던 1969년도 채퍼퀴딕 사건에 대해 언급하고, 이 사건으로 케네디의 몸무게가 20파운드나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채퍼퀴딕사건의 후유증이 가시기를 기다려, 1980년대에 대통령선거에 입후보한 케네디는 실제적인 인물이라고 평한 닉슨은 케네디가 1984년 민주당의 공천을 얻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레건 대통령이 나이가 지나치게 많고, 배우출신이기 때문에 우둔하다는 비평가들의 비난을 물리치고, 정력적이며 스마트한 대통령임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닉슨 미국 전대통령

남매가 나란히 법대졸업

임동선목사 자녀 승향·승천

(LA지사)목회자의 자녀가 같은 날 나란히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동양선교교회 담임인 임동선 목사 2남2녀의 세째인 임승향양과 네째인 「승천군이 지난 5월23일 샌프란시스코와 샌디에고에서 법과대학을 마치고 JD(Juris Doctor)학위를 받았다.

임승향양은 호바트국민학교, 월터리드중학교, 페어펙스고등학교를 졸업했고, UCLA에서 사회학과 심리학 학사를 받았고, 이번에 샌디에고주립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것.

또한 동생 임승천군도 호바트국교, 월터리드중학, 페어펙스고등학교를 마쳤으며, 칼스테이트노스리지에서 회계학 석사를 받았다. 법과대학을 샌프란시스코 근교에 있는 가주주립대 헤스팅스에서 3년 법률학을 전공했다.

▲임승천군과 임승향양

두 남매는 오는 7월에 있는 변호사시험에 나란히 응시 한다.

「한국 이민교포들이 많아지고, 한인변호사가 많지만 아직은 미국사람에 비하면 적지 않읍니까.」

임승천군은 「다른 공부보다 사회봉사를 위해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누이인 임승향양은 두 언어와 두 문화권을 이해해서 훌륭한 변호사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둘이 다 우리말을 쓰고 읽기에 불편함이 없다.

새映画

긴 聖금요일

갱영화하면 언뜻 떠오르는 것이 에드워드·G·로빈슨이나 제임스·캐그니다. 우리는 이들이 냉소를 지으며 잔인하게 적을 살해하고 배반자를 형벌 줄 때 그 태연한 악행에 전율하면서도 화면을 덮는 강렬한 연기에 찬사를 던지곤 했다. 이젠 흘러간 장르가 된 이같은 갱스터영화의 긴장감을 불러 일으키고 향수감마저 맛보게 하는 작품이 「The Long Good Friday」.

해롤드·핸드(밥·하스킨스)는 템스강에 떠있는 호화요트를 본부로 각종사업체를 경영하는 런던암흑가의 왕. 섹시하고 두뇌 좋은 정부 빅토리아(헬렌·미렌)와 충실한 부하들 그리고 번창하는 사업에 남부러울 것 없는 해롤드는 런던항구및 수로를 재개발 유락지로 만들려는 일생일대의 꿈에 부풀어 있다. 그는 미국의 마피아와 손을 잡자고 제의 마피아는 과연 해롤드가 얼마나 확고한 세력을 구축했는가를 조사하려고 두명을 파견한다. 그런데 10여년간 흔들림이 없던 해롤드의 왕국이 이들이 도착하면서 흔들리기 시작한다. 해롤드는 끈질기게 자신의 성역을 파괴하는 자를 추적하나 적수는 천만뜻밖에도. ???? ? ? ?………

영국의 핸드메이드필름스작인 이영화는 비평가들의 호평을 받고 있지만 극찬을 던지기엔 모자란 감이 있다. 갱영화로선 지나친 미스터리 텃치를 가해 이런류의 영화가 보여줄 시원하고 산뜻한 장면연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처음부터 의문의 장면들을 던지면서 마지막에 가서야 풀어주는 것은 긴박감과 흡인력을 발산 할수는 있어도 상쾌한 기대감은 못 채워 주고 말기 때문이다.

칫덩어리같은 모습의 밥·하스킨스는 숨가쁜 소리를 내뿜으며 성난 멧돼지처럼 열연 관객을 사로잡는다. 여기에 프랜시스·몽크먼의 템포빠른 음악이 뭔가 쫓기는 갱의 세계를 잘 묘사하고 있다. 얼굴이 찡그려질 정도로 끔찍한 장면이 여러번 나오는 이영화를 보면서 신경이 더 써지는 것은 「투데이」를 「투다이」로 발음하는 영국식발음탓도 있는가보다.

존·맥켄지감독. 등급R.

▲「성난 멧돼지」밥·하스킨스는 자신에게 도전하는 적수를 찾아 화면을 헤집는다.

당선작 "비어있는 방"

LA지사 현상문에 발표

(LA지사)「한국일보」로스앤젤레스지사가 북미지역 일대에 걸쳐 현상모집한 단편소설 입상작이 발표됐다.

총 55편의 응모작품들을 최금산(문학평론가)·송상옥(소설가) 양씨가 심사, 아래와 같이 입상작을 뽑았다.

◆당선작: 「비어있는 방」(장혜란·버지니아 알링턴)

◆가작: 「반보기」(남소희·LA)

◆가작: 「귀향」(김영·오렌지카운티)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교민동정

◆노기수·배이영(COSKA 회원)=지난 5월 LA에서 열린 IBM USER들의 모임인 GUIDE에 참석하고 돌아왔다.

◆이상길(COSKA 회원)=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MSA Management Conference에 1주간 참석후 돌아왔다.

◆정 정◆

3일자 1면에 기재된 「실협및 외환은행과 주위의 한인상점들」도표중 한인업소 2개가 누락되었기 보충합니다.

●마야미용실: 서울여행사 2층(631 Bloor St. W.)에 있음.

●동양한약상사: 삼미떡집(621 Bloor St. W.) 2층에 있음.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 yr. $8. mo. 구독료(선금)연 $99 월$9 영구구독 $500, ISSN03192962, 2nd Class Mail 5248.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봉사합니다.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심성의껏, 염가로
단체손님 환영,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531 0277
대표 나옥녀
한국관

프로축구 블리자드를 즐기자
입장권
한국일보사 533~2361
브랜돈스포츠 598~3732

빅·세븐선물센타
각종한약 우황청심환
화장품등
533-7966 김영철

마야 미용실

개업인사 및 특별봉사

교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저희가 블로아에 미용실을 새로 개업하고 여러분을 모시고 특별봉사로 성심 성의껏 모시고자 하오니 한번 꼭 찾아 주시면 더없는 영광으로 모시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개업일 : 1982년5월1일

봉사기간 : 5월초~6월말까지(2개월간)

HAIR 부문

*캇트, 파마및 스타일	$25 & up
*캇트 및 스타일	$9
*샴푸 및 스타일	$8
*머리염색	$12 & up

MAKE UP 부문

*신부화장
*파티화장
*스테이지화장
*심는 속눈섭 전문
*신부드레스 대여

헤어스타일이스트
김영주

※머리가 상하신분 또는 헤어 스타일에 항상 불만스러워 하시는 분은 한번나와 주세요.

미용경력 : 14년

63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서울여행사2층)

588-1480(B) 243-8026(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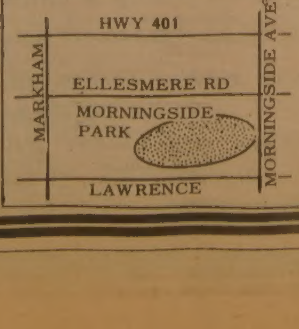
화장스페샬이스트
클라라 홍

동우야유회 및 경로잔치

<겸·임시총회>

싱그러운 여름을 맞아 바쁜일손을 잠칸멈추고 동우 전가족이 푸른초원에 모여 부모님께 위로와 자녀들에게 심신의 단련을 위해 자리를 마련하였사오니 함께 즐거움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1. 일시 : 6월26일(토) (우천시는 7월3일<토>)
1부. 10시~12시 <임시총회>
안건 : 회칙개정및 기타
2부. 12시~5시 야유회및 경로잔치
1. 장소 : MORNINGSIDE PARK안 중간지점 (SCARBORO)
※중식및 바베큐용구는 각자지참
(단, 음료·불고기·통돼지는 본회에서 준비함)



동우회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國調委·총리解任案 부결

與 "經濟安定위해 事後수습 最善"
野 "最大금융詐欺 우리가 풀어야"
어제 運營委·本會議 표결 임시國會 폐회

국회는 1일저녁 운영위와본회의를 잇달아열고 지난28일 野黨측이 李哲熙·張玲子부부사건수습을위해 공동제출한 國政調査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劉彰順국무총리 解任권고결의안을 각각 表決에 붙여 否決시킨뒤 閉會했다. 이날 表決에서 民正黨의원들은 전원否票를, 民韓·국민당과 議政同友會등 野黨의원들은 거의 전부 可票를 던진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운영위와 본회의에서 國政調査特委案은 제안설명과 贊反토론을 벌인뒤, 劉총리 解任권고결의안은 贊反토론없이 表決에 들어갔다.

이에앞서 운영위는 民韓·국민·議政同友會가 공동발의한 國政조사特委구성결의안과 총리해임권고案을 起立표결에 붙여 可10 否11로 부결시켰다. 이날表決에서 民韓(6명) 국민(3명) 議政(1명)등 야당측의원10명은 모두 찬성했고 民正黨의원11명은 전원 반대했다.

이날 회의에서 劉溶根의원(民韓)은 國政調査特委구성안에대한 제안설명을 통해 『이번사건은 단순 경제事犯이아닌反국가사범으로 다루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수사는사건규모나 진상을 줄이고 은폐하려는 것처럼갈팡질팡했다』고 주장하고 특히 張玲子대신 李哲熙를사건의主役으로내세우고그의신상을자세히밝히면서 主犯을새삼 강조한것은 배후관계가없는것처럼 僞裝한 수습의흔적이 뚜렷하다』고말했다.

그는 또▲張여인이 증권투자등으로 손해보았다는 3백87억원▲어음할인이자 7백33억원의 최종 受益者▲共榮토건등의 파다한 견질어음발행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한여인의 손으로 7천1백11억원이나되는 천문학적인 돈을 배후의비호없이 주물렀다는것은 믿을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劉의원은 또 『國調權발동이 여당에의해 과거와마찬가지로 또 거부된다면 언제、어떤 事案들에대해 조사하겠다는것인지 반문치 않을수없다』고 말하고 『여당 스스로 시인하고 있는 최대의금융사기사건에대해 국회가 가만히있는것은 스스로 권리와기능을 포기하는것』이라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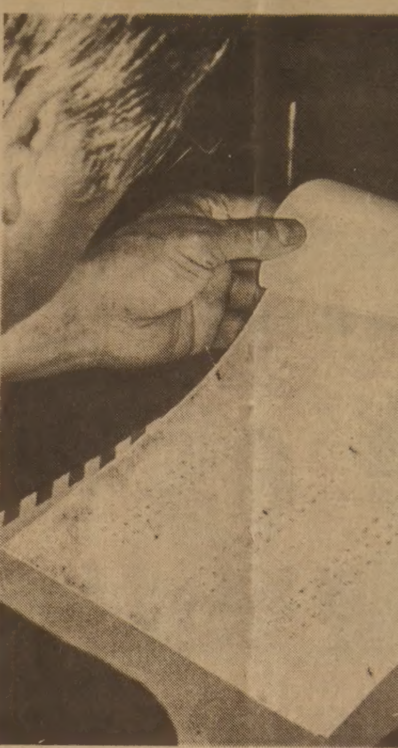
찬성토론에나선 沈明輔·朴歆錫의원(이상 民正)등은 『特委를 구성하여 조사에착수케될 경우 得보다 失이 많다는것은 분명하다』면서 『관계당국에서 얼마든지 조사할수 있는데 特委를 구성할 필요는 없다고본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정부에서 사후수습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원점부터 조사한다는 것은 국민에게 또 다른 충격을 주게된다』며 경제안정과 민심수습의 차원에서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찬성토론에 나선 趙重衍·朴寬用 睦堯相 金在映(이상民韓)金基洙 朴在旭(이상국민)金正秀의원(議政)등은 국민이 가장관심을 갖고있는것은 배후세력관계인데도 검찰은 의도적으로 규명의 한계를 설정해놓고 수사를 했으며 정치권력의 작용없이 이 사건이 일어날수 있다고 이해되지 않는다』며 『張여인의 거액편취방법 자금사용처 은행의 대출관계등을 조사해야한다』고 말했다.

찬성의원들은 또 ▲권력결탁說▲정치자금流入說▲실질적 大錢主의 정체등에 관해 강한 의문을 표시한후 『국민의不信을 해소시키고 오해를 풀어주기위해서는 特委를 구성 진상을 규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운영위는 이어 국무총리해임권고권의안에 대한 朴寬用의원의 제안설명을듣고 질의와 찬반토론없이 표결에 붙여 가부결시켰다.

朴의원은 제안설명에서 『張여인사건의 마무리적 의미가 아니라 정치수습의 차원에서 국무총리해임권고안을 처리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우리의 해임주장은 제5공화국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될것이며 국회밖의 정치를 국회속으로 수렴하는 계기가 될것』이라고강조했다.



◇賀客 122명의 名單 「張여인 국회」에서 의원들이끈질기게 제출을 요구했던 李·張부부의 사파리클럽 결혼때 참석자 1백22명의 명단이 1일하오 法司委에 제출되자 의원들이 호기심에찬 눈으로 명단을 훑어읽고있다.

賀客명단을 提出

法司委 百22명…公開싸고 論難

국회法司委는 1일하오5시40분 전체회의를열고 법무부로부터 李·張부부결혼식 참석자명단을 정식으로 접수하고 鄭致根법무장관으로부터 명단제출에따른 배경설명을듣고 질의를 벌였다.

이날 회의가시작되면서 金淑鉉위원장은 결혼식 참석자 명단과 녹음테이프및 사진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으며 이에따라 鄭장관은 17명소속위원에게 각1부씩 명단을 배포했다.

鄭장관은 『위원회가 요구한 결혼식참석자중 검찰수사로확인된명단을 書面으로 위원회에제출하겠으니 양해해달라』면서 『이사람들은 이번사건배후문제와관련이없고 개인적친분관계로 의례적으로참석했던만큼 명예를위해 공개되지않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鄭장관은 또『본인이 참석자명단을 소관常委에서 의원여러분들의 요구가있으면 알리겠다고한것은 참석자들을 둘러싸고 다수참석자들이 배후와 관련이있다는등 억측이 많아 의혹의 대상이되고있었으므로 해명의책임을느껴 이같이 보고한것이니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에앞서 法司委는 소속의원간담회、간사회의등을열어 명단공개여부를놓고 與野간에 논란을 벌였으나 명단을 의원들에게 배포하되 對外的으론 공개하지않기로 합의했다.

이날 의원들은 정부가제출한 명단에대해 『이명단이 前職등 직업이 제대로 記載돼있지않고 한글이름으로 돼있는등 혼란을 일으키고 문제를규명키 곤란하다』면서 漢字이름과 직업등을 상세히 기록한 명단을 다시 제출해달라고 요구、이문제로 停會하기도했다.

金淑鉉법사위원장은 회의속개뒤 『명단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히고 『비디오테이프와 사진이 제출되어있으나 이것은 도움이 안되므로 돌려보내기로했다』고 말했다.

이날 法司委에제출된 1백22명의명단가운데는 현직의원7명、전직의원2명、전직장관1명、은행장등 유명인사들이다수포함돼있는것으로 알려졌다.

英·아르헨軍 최후의 激戰

英、스탠리10km까지 進擊…奪還임박

【런던·부에노스아이레스1日=外信綜合】 포클랜드군도 일원에서 작전중인 영국군은 1일 퀸·엘리자베드 2號로 급파된 증원군 3천명의 지원을받고 포클랜드 수도 포트스탠리 외곽 10km지점까지진격、아르헨티나 수비군과 사실상 최후의 결전이될 전투를 벌이고 있다고 런던의 국방성 소식통들이 밝혔다.

런던의 보도기관들은 이날 『아르헨티나 공군이 그동안 너무 많은 전투기와 숙련 파일러트를 상실했기 때문에 포클랜드군도에서 작전중인 영국함대와 병력에 대해 효과적인 공습을 못하고 있을 뿐아니라 출격 빈도마저 줄었다』고 지적、『영국군은 앞으로 72시간내지 96시간이면 전쟁을 승리로 결말지을수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영국 국방성은 또『영국군의 성공적인진격으로 아르헨티나군의 방어진지들이 이제거의 모두 영국군의 1백5mm포 사정권안에 들어오게됐다』고 지적、포트스탠리에 포진한 아르헨티나군의격파가 목전에 다다랐음을 시사했다.

미국의 ABC방송은 아르헨군부의 통신을 가로채 정보를 얻었다는 관리들의 말을 인용『아르헨티나의 집권군부지도자들이 현재 포클랜드 수비군에게 최후까지 응전하라는 명령을 내리는것을 주저하고 있으며 남아있는문제라면 오직 언제항복하느냐의시각뿐』이라고보도했다.

中將진급 世將星에 全大統領이 계급장

全斗煥 대통령은 1일상오 청와대에서 육군少將에서 中將으로 진급한 金應烈·吳滋福·白雲澤장군등으로부터 진급신고를받고 계급장을 달아주었다.〈사진〉

이자리에는 尹誠敏국방장관과 黃永時육군참모총장이 배석했다.

"死守·포기싸고"혼란

아르헨、敗戰대비 國民무마 準備

【부에노스아이레스·런던1日=外信綜合】 아르헨티나의 집권 군부 지도자들은 포클랜드전쟁에서의 敗戰에 대비、국민들에게 이를 납득시킬 준비를 갖추고 있다.

이와함께 아르헨티나 지도자들은 포클랜드에서 영국군과 끝까지 싸울 것인지 포클랜드군도를 포기할 것인지를 놓고 혼란상태에 빠져있다고 영국신문들이 보도하기 시작했다.

더 타임즈지를비롯한 영국 신문들은 1일 상오 아르헨티나의 3인군사평의회 위원인 호르헤·아나나해군사령관의고문 라몬·아사라 해군소장이 「포클랜드가 싸워 지킬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공공연히 의문을 표시했다고전했다.

더 타임즈지는『특히 집권군사평의회내에서 해군은 언제나 「매파」로 간주되었을 지적、현재 군의대부분이 이번 분쟁의 결정적고비가될 포트·스탠리공방전이 벌어지기전에 싸움을 끝내는 쪽으로 기울고 있음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강경파가 우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군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컨비손紙는 『우리가 그들에게준 놀라움은 제쳐두고서도 지금까지 우리가 취한 행동은 국제사회에서 아르헨티나의 권위와 비중을 높여주었다』고 지적했다.

최근한 라디오 방송은 『우리는 포클랜드섬 보다는 더 위대한것을 얻기 위해 싸우고 있다』는 말로 정부의 승전 캠페인을 국민에게 긴급 뉴스로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대통령의 한수석보좌관은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 우리는 일찌기 무력으로써는 세계에서 1번째및 3번째의 강대국을 패배시킬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레오폴도·갈티에리 대통

柳民韓총재 오늘記者會見

임시國會 결과따른 黨立場밝혀

柳致松 民韓黨총재는 2일상오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갖고 이번 임시국회결과에 대한 黨의 입장과 時局에 대한 수습책을 밝힐예정이다.

各黨、時局수습논의 硬化政局 완화모색

民正·民韓·국민등 주요정당은 張여인사건으로 열린 제113회 임시국회가 1일로 끝남에따라 각급회의를열고 그동안의 院內활동을 결산하고 硬化된 政局완화와함께 앞으로 時局 收拾策등을 논의한다.

各黨의 會議는 특히 이번 국회에서 張여인사건규명이 미흡하며、특히 野黨의 경우 政治議案이 否決된데따른 앞으로의 대책마련에 主眼을 둘것으로 보인다.

民正黨은 2일 상오 당직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달아열고 임시국회 결산과함께 임시국회에서 거론된 民意를 수렴、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등을 논의한다.

民正黨은 또 곧 黨政협의회를 갖고 국회에서 거론된 時局타개책등을 정부측에 촉구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3黨 대표회담 最終절충 失敗

民正·民韓·국민등 3黨代表는 1일 국회운영위가 열리기 앞서 회담을 갖고 與野간에 異見을 보여온 國政調査特委구성문제와 국무총리解任권고 결의안의 처리방안을놓고 최종절충을 시도했으나 타협점을 찾지못했다.

이날 회담에서 柳致松民韓黨총재와 李萬燮국민당총재는 『國政調査特委구성과 국무총리해임권고 결의안에 대한 民正黨의 否決방침을 再考해달라』고 요청했으나 民正黨의 李載瀅대표위원은 중앙집행위원등 간부들과 논의한결과 否決이라는 黨論을 바꿀수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거부했다.

社會漫評

이번國會決算을 해봤는데…

地平線

부정부패가 많아 골치를 앓고있는 이탈리아는 또한 탈세가 많기로도 이름나있다. 그러나 이제 탈세는 어림도 없다고 이탈리아의 재무성은 장담하고있다. 세계 유일의 초현대식 「국세기록국」이 작년8월말 완공됐기 때문이다. 로마교외 남쪽 6백평의 대지위에 5년이나 걸려 세운 국세기록국은 1천억개의 글씨를 기억할수 있는 거대한 컴퓨터가 움직이는 일종의 자료은행이다.

▼이 컴퓨터에는 5천7백만 국민가운데 4천3백만명의 납세자료가 기억된다. 땅위에는 터미널이 있고、그밑에는 원자탄의 직격탄이 떨어지지않는한 끄떡도 하지않도록 설계된 자료은행이 들어있다. 이탈리아정부가 세계 최초의 국세자료은행에 퍼부은 돈은 1천8백60억리라. 요즈음 환율로 쳐서 1천45억원이 넘는 큰돈이다. 앞으로 소득세 1천3백만건、부가가치세 4백만건을 처리하게된다.

▼미국은 이런 컴퓨터 시설을 84년에 착수하고、영국은 89년에 끝낼 예정이다. 이탈리아 재무성은 세계최초의 이시설로 81년에만 3조7천억 리라의 탈세를 막았을 것이라고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컴퓨터가 과연 탈세를 막을수 있겠느냐고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탈리아사람들이 워낙 탈세에 천재라고 이들은 혀를차고있다.

▼스타 소피아·로렌은 2년만에 조국에 돌아와 탈세죄의 값을 치르고있다. 5백만 리라、요즈음 환율로 약5백만원의 탈세를 저지른 죄값은 한달동안의 감방살이다. 이제 50을 바라보는 47세의 로렌은 독감방에서 실크·드레스를 입고、밖에서 넣어 주는 사식을 먹는다고 한다. 세계의 톱스타도 법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던 극적인 순간이다.

▼『다음 영화선전을 위해 감방살이극을 하는게 아니냐』는 짓궂은 질문에 로렌은 『사람 천하게 만들지 말라』고 대꾸했다고 한다. 어쨌든 이탈리아에서는 톱스타가 과연 감방살이를 치를 것인가를 둘러 싸고 말이 많았다. 많은 시민들의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소피아·로렌은 결국 죄값을 치르고 있다. 법에 따라 「不자유한」의 은전을 받을지는 3일 결정된다.

▼소피아·로렌의 감방살이는 1천8백60억리라 짜리 컴퓨터시설보다 더 엄한 가르침을 이탈리아 납세자들에게 줬을 것이 틀림없다. 이탈리아의 민주제도는 컴퓨터가 아니라 어떤「예외」도 허용되지않는다는 확신만이、또한 만인이 사랑하는 스타도 법을어길수있는 평범한 인간임을 받아들이는 상식만이、지탱해줄수 있는 것이다.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SunLife OF CANADA

김 신 명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건물
• R·R·S·P
922-3111 (B)
793-5531 (R)
791-8196 (R)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 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민 영 숙
(B)368-7961 (R)690-5217

제3회 김용순무용발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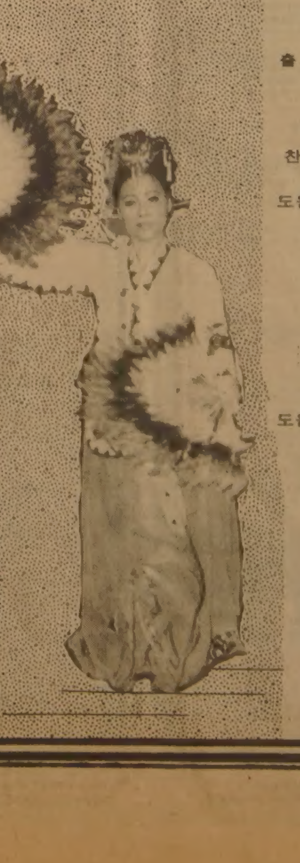
★초호화판 RYERSON 극장 무대위에 펼쳐지는 5천년 한민족의 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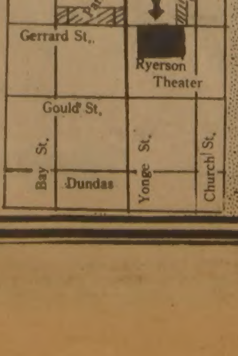
★2년의 노력끝에 보여드리는 우리 자녀들의 자랑스러운 민족의 제전!

★남녀노소 우리 온 가족은 물론 이웃의 캐네디안 친구들에게도 우리의 문화를 자랑하자!

●일 시 : 1982년6월12일(토) 오후7시30분
●장소 : : Rerson Theater 43 Gerrard St.E (Yonge & Gerrard)
★입장료 : A석 $8.00 B석 $6.00

판 매 처 : ⊙킴스카메라(534-1085) ⊙미도파백화점(536-1692) ⊙노년회(755-8079) (노년회 회원에 한해선 A석을 $6.00에드림) ⊙각 식품점 ⊙각 음식점





출 연 : 김지현, 이민경, 서은정, 송유미, 박쏘냐, 이은미, 김미라, 장진이, 김영임, 김소영, 서혜승, 이경, 이숙경, 정은미, 최후로라, 김영희, 곽아나, 곽수미, 박정화, 손스지, 강윤숙, 강진경, 강명진, 김은경, 김은진, 장쥬리아, 매소진, 김용순, 김순이

찬조출연 : 백미애, 오재윤, 김정숙

도움주신분 : 유영갑 100불 서준경 100불 이기천 100불 김병권 NORH YORK CHEV. 100불 최우덕 100불 곽정연 100불 김춘타(킴스카메라) 100불 한용식 50불 강우석 100불 정태호 100불 손명수(손·BROS) 100불 장필규 100불 김만구(ECOSYS가구점) 100불 김현모(연합상사) 100불 이기훈(무나미 트로피) 100불 이창복(팬·아시아) 100불 서형석 50불 유재영 100불 Peel Club. $200 이병귀(체육회장) $300 쌍방울메리야스 $50 미도파백화점 $100 제일여행사 $50 송창섭(ANCHOR AUTOBODY) 박인순(한인회장) $200 아세아한약방 $30 브랜돈스포츠(이건영) $100 김종조(종합보험) $50 조규혁종합보험 윤호영(SUN LIFE)

도움주신단체 : 실업인협회 200불 숭공문화협회 200불 배재동창회 200불 라이온스클럽 200불 코리아타운번영회 $200 총영사관 $300 동우회 200불

총 감 독 : 장기철

주 최 : 한국민속예술후원회(주소 : 619 Bloor St. W. Tor, Ont. M6G 1K8) ☎ : (416)534-1085

후 원 : 토론토총영사관, 토론토한인회, 노년회, 코리아타운번영회, 대한체육회캐나다지부, 대한부인회, 라이온즈클럽, 영리무역, 서울여행사, 배재동창회, 88올림픽후원회, 숭공문화협회 동우회

「정해진 結末」…「協商」만 요란

—國會 마지막날… 분주했던 各黨표정

最善흔적위해 애써

○…이번국회의 최대이슈인 國政調査特委案과 국무총리 解任권고결의안처리를 싸고 31일밤 늦게까지 幕前幕後협상을 시도하다 별성과없이 會期마감일을맞은 국회는 1일 아침부터自黨 他黨끼리 이곳저곳에서 공식 비공식 접촉을하느라 어지러울정도。

各黨대표끼리 총무끼리 그리고 각당은 모두 의사당1층의 대표실을 중심으로 布陣하여 머리를 맞대고 熱議를 했지만 서로가 상대에게 양보만 하라는 平行線으로일관。그래서 결국 가는길은 당초의 表決처리가 뻔한데 서로『우리黨은 할만큼 했다는 흔적을 남기기위해 진통이라도 하는척 시간을끄는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돌기도 했다。

「눈치보기나 시간끌기」도 이날하오 3黨代表 3黨총무회담으로 끝장을내고 서서히 本論으로 가동했다。

이날하오 비슷한시간에 3黨대표와 총무들은 국회의장실과 운영위원장실에서 마지막대표회담과 총무회담을 열었으나 서로의입장을再천명, 확인한다는것으로 끝났다。총무회담보다 조금늦은 하오2시10분께 시작된 대표회담은 20여분후 柳致松民韓黨총재가 굳은 표정으로 퇴장했고 이어 李載瀅 民正黨대표와李萬燮국민당총재가 나란히 의장실 문을 나오는것으로끝났는데 柳총재는『국정조사권에 동조할수없다는통고를 받았다』라는 말로 회담결과를 밝혔고 李총재는『분위기가 심각했다는 말로 결과를 알수있을것』이라고 설명。

이보다 앞서 30여분간 계속된 총무회담 역시 비슷한 결론을 내렸는데 李鍾贊民正총무와 林鍾基民韓총무가『발표할게 없다』고 말한데 반해 李東鎭국민당총무는『입이 쓸뿐이다』며 마지막 절충이 결렬됐음을 示唆했다。

◇「張여인국회」의 終章인 1일하오 국회운영위에서 야당의원들이공동제출한 國政調査特委구성안과 국무총리 解任권고결의안이 表決로否決되자 林鍾基民韓黨총무㊧등이 괴로운 표정을 짓고있다。그옆에 劉洛根 金在暎 睦堯相의원등 民韓黨의 부총무들이나란히앉아있다。

열람실못찾아 헤매

○…1일상오10시로 예정됐던 3黨총무회담은 회담전 民韓黨사정으로 지연되면서 民正-民韓총무간에「迷路회담」을 갖는 막간의 寸劇을 연출。

이날상오10시 李鍾贊民正, 李東鎭국민당총무가 대기중인 운영위원장실에 林鍾基民韓黨총무의 메신저로 趙重衍부총무가 나타나 李民正총무에게 귓속말로『林총무가 열람실에서 만나자고 한단』고 통고『뭔가있구나』하는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民正, 民韓총무와 향도로 나선 趙民韓부총무는 한참을 헤매었으나열람실을 찾지못하고 10시30분께 운영위원장실에서「兩黨총무密談」에 들어갔다。

국회안엔 地下에 일반열람실, 정간물열람실, 1층의의원열람실, 6층열람실등이있는데 民正, 民韓총무가 열람실을 못찾고있다는 말에 혼자 떨어진 李東鎭국민당 총무는『迷路를 헤매는구나…』라며『野圈연합전선을 펴기로 하고 따로 만나는건 무슨 행위냐』고 몹시 언짢은 기색。

이때 국민당총무실로 탐색차 찾아온 金在暎民韓黨부총무가 李국민총무에게『우리 林총무가與黨쪽에캄프르주사를 놓으러간 것같다』고하자 李총무는『물렁한 인절미를 만들어 잣겠지…』라며 응수했다。

李총무는『지금 林총무가 총재문제로 딜레머에빠진 모양인데 그문제로 民正黨총무와 따로 만나는모양』이라고 풀이하기까지。

서로"양보하라"에 平行線

民正·民韓 密談에 국민선 "시간낭비다" 비난

野側선 妙案없어 아침부터 한숨만

시간만 낭비하는꼴

○…林총무와 40분간의 密談을끝내고 李民正黨총무가 상황전달차 李東鎭국민당총무방에 들른것은 상오11시10분께。李民正총무는 民正·民韓총무만의 密談에 불만을 토로하는 李국민총무에게『3黨총무가 3角의 鼎立과같아 잘못하면 삐끄러진다』며 둘만의 만남에 간접적인 양해를 구하자 李국민총무는『이건 야당연합에 금이가는것인데…』라며 民韓黨쪽에 유감스럽다는 표정。

民正·民韓총무會同에 대해 李民正총무는『林총무로부터 무슨案을 받은것은 없다』고 기다리고있던 기자들에게 설명。

그러나 주위를물리치고 30분간 單獨對座의 형태를 취했던 民正·民韓 총무會同이 끝나자 林民韓총무가 李民正총무와의 密談에서 요청한것은 民正黨이 中央執行委를 特調委및 총리解任권고안등에 대한「反對黨論」을 再考, 재조정해달라』는 것으로 밝혀졌다。

李국민총무는『林총무는民韓黨의 집안사정을 설명하면서 李載瀅대표가 中執委를열어 다시 물어보겠다고 柳致松총재에게 약속했으니 최소한 中執委를 열어 최종적으로 당론을 재확인 해달라고 李民正총무에게 요청한 모양』이라고 설명。그러면서 그는『그런것은 나와함께 얘기해야 내가 강력히 밀어줄터인데 바보같은 짓을했다』고 불만을 토로。

李국민총무는『열람실이니 뭐니… 하면서 편한짓을 하고있다』고 계속 불만을 터뜨린후『그러나 民正黨은 中執委를 열 생각이 전혀없는모양』이라고 간접화법을 사용하여 民正黨측 사정을 설명하기도했다。

또 李국민총무는『民正과 民韓의 입장은 분명히 나타나있는데도 兩黨이 그래도최선을 다했다는 인상을 국민에게 주기위해 공연히 시간만 낭비하고있다』고 말하고『무엇이든 정정당당하게 처리해야지 이렇게 잔꾀를 부린다면 언젠가는 들통이나게 될것』이라고 民正·民韓을싸잡아공격。한편 이 소식을 들은 林民韓총무는『내가 열라고해서 民正黨이 中執委를 열겠느냐』고 시치미。

반대黨論 거듭확인

○… 民正黨은 1일상오8시부터 여의도 全經聯회관에서 權翊鉉총장, 李鍾贊총무, 陳懿鍾정책위의장, 尹碩淳사무차장, 李斗玩대변인등 당직자와 국회상임위원장들이 조찬을 함께하며 마지막 對野협상문제를 협의。

이자리에서는『국정조사권에 응할만한 충분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똑같은 이유를 내세워 결의안반대黨論을 거듭 재확인。

그러나 違憲是非가 붙은 국무총리해임권고案은 운영위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한번 거론한후 상정하여 표결로 否決시키기로 했다。

이와관련 李鍾贊총무는『정치란 상대가 있는법인데 상대방인 民韓黨이 黨運을 전 협상을하고 있지만 그같은요구를 들어줄수 없다는데 인간적 고민이 있다』고 말한후『그러나 사건자체보다 정치공세에만 치중되고있어 오늘로서 마무리 지어야겠다』고 고충을 토로했고 尹차장은『정말로 힘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피곤한 표정。

中執委개최설 부인

○…연석회의가끝난후民正黨은상오9시국회부총무실에서 소속운영위원 모임을갖고 2개의 政治議案을 모두 표결로 처리, 否決시킨다는 방침을 재확인, 金琦泰대변인은『오늘의 고통을 내일로연기하지 않겠다』면서『黨소속의원들이 31일의 대표자회의, 총무회담등의 결론을놓고 동요하는것같아 오늘아침 상임위원장을 통해 黨論不變을 전달했다』고 설명。

한편 李載瀅대표위원은 이날 중앙당사에 나왔다가 상오11시께 국회로옮겨 대표위원실에서 權총장을 비롯한 당직자와 함께앉아 野黨측의 동태와 총무會同의 결과를보고받으며 수시로 대책을 협의。

이날 民正黨측은 民韓黨에서 흘러온 中執委소집說을부인하느라 黨職者들이 진땀을 뺐다。

權총장은『국회를 어느 정당의 집안사정때문에 이리저리할수 있느냐』면서『林총무가 언제 民韓黨에 入黨했느냐, 民正黨 中執委를 그쪽에서 열겠다는거냐』면서 기자들에게 反問。

金琦泰대변인도『中執委를 열만한 變數가 없는데 어떻게 그런 추측이 나오느냐』면서『아마 民韓黨의 희망적인 추측일것』이라고 설명。

이날 李대표실에는 蔡汶植국회부의장과 金淑鉉法司위원장 朴權欽의원등이 黨職者들과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거듭하다가 民韓黨의 劉沃祐부총재가 찾아오자 李대표는『밥이나 먹고 생각하자』라며 당직자들과 함께 劉총재를 이끌고 全經聯빌딩내에있는 D음식점으로 향했으며여기에서도 상호의견을 교환했지만 平行線만 그었다고。

또 좀처럼 얼굴을 맞대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蔡汶植(民正) 金殷夏(民韓)두국회부의장도 이날낮 나란히 의원식당에 나타나 오찬을함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를두고『兩黨이 동원할수있는 모든접촉을 하고있는것을 보니 실마리를 전혀 풀지못한모양』이라는 판단이 나오기도。

現政局 책임은누가

○…1일 국회民韓黨총재실에는 이른 아침 柳致松총재를 비롯, 劉沃祐 李泰九부총재, 林鍾基총무, 柳漢烈사무총장, 金鍾哲정책위 의장등 당직자들이 자리를 같이 했지만 말한마디 없이 깊은 한숨만 내쉬었다。

柳총재는「重大決心」에 대해서 굳게 입을 다물고있지만 간부들은『참람한지 이제 한달을 겨우 넘긴 시점에서 제1야당의 총재의 입에서 그런 이야기를 나오도록 政局을이끌어온 책임은 누가져야 하는가』며 울분을 토로。

특히 林鍾基총무는『柳총재는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의회는 포기할수없다고강조해온 議會主義 신봉자』라고 강조하면서『지금이 어느 상황인데 말장난을 하느냐』며 총재의「覺悟」가 예상선을 넘고있음을 심각하게 시사。

金珍培대변인도『총재의 결심이 정말 辭退不辭까지 가는것인지, 당의 단합을 위한 의지의 표시인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한것은 투쟁의 기운이 한결 強化될것』이라고집안분위기를 전했다。

方案내도 무소용

○…民韓黨총무단은 이날 상오 9시넘어 국회 에서 民正黨운영위회의와 국민당 긴급당직자회의가 열리고 있는시각에 국회운영위대책을 논의했는데 이자리에선『마지막 중대시점이니 黨원내대책회의를열어 상층부의 救援의 지혜를 얻어내자는 의견이대두됐다。

이에따라 林鍾基총무는 柳총재를만나 이같은뜻을 전했는데 두간부는『民正黨에서 곧中執委를열어 호의적인 조치가 나올것』이라고 희망적인 예고탄을 연달아發射했고 이에따라 보도진은 혹시나 무슨 돌파구가 있는것아니냐며 民正 民韓양당을 부지런히 왕복하기도했다。

이어 民韓黨이 당무위원들에게연락하며 院內대책회의를 준비하고있는사이 柳致松총재는『국정조사特調委저의안이 본회의에서부결되면 내일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혀 黨안팎에 다시「제2의 非常氣流」를 귀뜀。

柳총재는 기자회견에 대해『국정조사권이 부결됐을 경우에 時局수습방안을 밝힐생각이었다』면서『그러나 아무리 時局수습방안을 내놔도 여당이 안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또다시 깊은 한숨。

한편 총무단은 이날상오11시께 총무단회의를 소집, 사태의 진전을 종합 점검한 끝에『아무래도 民正黨쪽이 시간을 끌자는 속셈인것같다。오늘子正을 넘기면 政治議案들은 表決도 못해 보고 녹아버리는게 아니냐』면서 定石대로 국회운영을 촉구하자고 결정했고 柳총재도『당론대로 참여해서 최선을다하란』고 지시했다。

당초所信 불변확인

○…국민당은 이날 상오9시30분 국회에서 긴급당직자회의를열고 운영위와 본회의 대책을 熟議,「당초 소신 일체不動」을 재강조。

이 회의에서는 국정조사特調委案과 총리해임 권고안의 본회의 突破를놓고 당직자들이『정치적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어야된다』면서 民正黨쪽에서 전날제기됐던 총리해임권고건의안의「法的해석」문제에대해 집중 聲討했다。

李萬燮총재는『民正黨은 총리해임권고안을 놓고 정치적기교를 부리지말고 일반議案으로 떳떳이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할 것』이라며『끝까지 正攻을 펼것』을 소속의원들에게 당부。

회의가 끝난뒤 李東鎭총무는『국민당의 소신은 微動도 없다』며『與·野고간에 우린 정치적 기교를 배척한다』고 의미있게 강조。

구독신청 배달사고 333·2801

메아리

精神文化의 정수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은 지난31일 비로소 82년도 주요연구과제와 연구과제 공모사업확장안을 발표했다。

그 발표에 따르면 연구사업비는 약7억8천만원, 연구과제는 36건으로 1백30여명의 학자에게 위촉 종교 역사 어문 예술 사회 민속 정치 경제 국민윤리 교육등 이른바 당면한「정신문화」에 대한 연구를 하게 한다는 것이다。

올해 연구과제가 반년이 지나도록 늦게 확정된것은 연초에 수뇌진이 대폭 갈렸고 교수 및 연구원을 확보하는데 시간이 걸린때문으로 알려지고있다。

78년6월30일 문을 열었을때 정신문화원은 우리문화의 정수를 연구하여 주체적 역사관,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함으로써 미래의 새 좌표와 사회운영의 기본원리를 탐구할것임을 밝혔었다。

그러나 지난 4년동안 정신문화연구원에서는 사회과학분야의 학자와 국학자 사이에 의견이 엇갈려 때로는 그방향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하기도 했었다。

즉 사회과학자들은 미래한국의 방향설정과 당면 현실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내세웠고, 국학분야의 학자들은 한국학연구의 총본산답게 순수학술연구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얼마전 새로 취임한 鄭在覺원장은 전통문화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지만 그 연구를 토대로 현대적 의미를 발견하며 현대의 과제를 해석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당면 목표를 내건 바 있다。

하지만 아직도 다른한편에서는 너무 현실기여에 얽매이면 학문의 순수성과 본질의 변용을 가져올 염려가 있다는 소리도 여전하다。

어쩌되었든 정신문화연구원은 70년대의 산업사회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물질위주의편향을 바로잡고 정신문화를 새로 일으켜 정신과물질의 조화로 균형있는 사회의발전을 도모하자는데 앞뜻이 있었다。

따라서 정신문화연구원도 그 설립취지를 살피면서 지난 4년간의 경험과 시행착오를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아 그 본연의 기능을 다할수 있도록 새 정신으로 먼 장래를 위한 학문적 축적을 이루어가길 바란다。

"돈의 行方 아직도 모호"

國會運營委、두政治議案 찬성·반대 討論

錢主모르고 무슨對策인가 (반대)

常任委서 충분히추궁했다 (찬성)

◇國調委案

▲劉洛根의원(民韓) 제안설명=李哲熙·張玲子부부의 어음사기사건은 그동기와 배후가 석연치않은가운데 검찰의 일방적수사로 결론지어져 수습은커녕 국민들의 의혹과 流言蜚語가 亂舞하고있다。결론부터 말해 이번사건은 단순經濟事犯이 아닌 反國家事犯으로 다뤄져야 함에도 불구, 오늘의 검찰수사결과는 믿을수가없다는것이다。

검찰의 수사는 李·張부부의 구속사실을 밝힐때는 外換관리법위반혐의로 했다가 뒤에 사기죄를 추가적용했고 1차발표때는 정부관계자나 공직자가 관련된 사실이없다고 했다가 뒤에 李씨를 구속했었다。2차발표에서는 李圭光씨가 간접적, 묵시적으로 張玲子를 배후에서 지원하고있는듯한 인상을 주었으나 국회에서는 이것도 빼고 보고했다。또 張여인을 主役에서 격하시키고 李哲熙를主役으로 내세우고 이를 강조한것은 배후관계가 전혀없는 것으로 수습하려는 흔적이뚜렷하다。

또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는 정치자금관련설에대해 지난번 발표에서 전혀관련이없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함으로써 오히려 불신감만을 조장했다。共榮토건등 기업체와의 관계에서 볼때 기업가가 현금과 다름없는 어음을 9배·10배씩 빌려줄 기업가가 어디있겠느냐。배후에 엄청난비호없이는 불가능하다。

李圭光씨가 배후세력으로 직접작용했다 하더라도 그이상의 정치권력의 배후없이는 이엄청난 사건이 저질러질수 없다고 보는것이 상식인데 李圭光씨 마저 배후세력으로 작용한바 없다고 결론을내린 수사발표는 도저히 납득할수 없다。그렇기 때문에 國政調査는 절대필요하다고 본다。

조사내용이 설득력이 없고 배후관계도 명쾌치못한 상태이고 현금의 행방마저 석연치않으며 구체적대목에 애매한 대목도 있다。

검찰주장대로 수사결과가 완벽한것이라면 조사권발동을 주저하거나 기피할 하등의 이유가없으며 오히려 발동함으로써 불필요한 의혹이나 오해의 소지를 씻어버리는것이 현명하다。

정부 여당도 건국이래 최대의 금융부정사기사건이라고 시인한바있고 국민또한 최대의사건으로 생각하고있는 이때에 국회가 가만히 있는것은 스스로 권리와기능을 포기하는일이다。

與野를 초월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회가 되기위해 이번사건에대한 국정조사권발동을 만장일치로 의결해달라。

▲朴敬錫의원(民正)反對토론=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의혹을 풀자는데 정당에따라 다름이 없고 다만 방법상 차이가 있다。特委를 구성할 경우 어떤 성과가 있을지 의문이 난다。진상규명은 소관常委가 맡아서 하는것이 상임위중심의 국회법정신에 비추어 타당하며 전문성을살려 내실있는 조사와 대책을 마련할수 있다。지금까지 본회의와 상임위에서 이사건을 다루었고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재무위에서 계속 다룰수 있다。

현재 사건을 정부가 조사중이고 진상규명과함께 완전한 수습책마련이 최고통치자의 뜻이다。과거 특정사항에 대해 조사를했지만 政派간대립으로 이익보다 손실이많았다는 점을 밝혀두며 여러가지 상황을고려 빠른시일내에 조용히 마무리짓는것이 현명하다고본다。

▲金基洙의원(국민)贊成토론=이사건은 단순한사건적 차원에서 마무리될성질의 것이아니라 제5공화국의 命運을걸고 더이상 3천8백만 국민에게 실망을안겨주지 않기위해 그진상이 明明白白히 糾明되어야한다。

정부與黨은 이사건의 진상을규명하는데있어서 추호도 주저하거나 숨기려고 해서는 안될것이다。숨기려할때 국민으로부터 영원히 外面당하고만다는것을 명심해야 할것이다。

또한 이사건의 淵源이 제5공화국 出帆이후에 있었다는 사실도 절대 看過해서는 안될 것이다。

진상규명을 기피하거나 特調委 구성 결의안에 반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張여인의 배후에 庇護權力이 있었느냐, 아니면 있는것처럼 위장했느냐의 여부가 우선 밝혀져야한다。

검찰은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조사를 했기에 정치자금 流入의 증거가 전혀 찾아볼수 없다는 것인가。

실질적 大錢主, 소위「더큰 손」의 정체도 드러나지않고 있다。

私債錢主의 正體도 모르고 규모도 모르면서 무슨對策을 세운단 말인가。法은 물이흘러가듯이 만인에 평등해야하고 정치는 그 물이 막히지않고 흘러가도록 기반과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런의미에서 국회는 活性化되어야한다고 본다。언제부터 外米국회 宜寧국회, 張여인국회로 轉落되어 버렸는지 오늘의현실을 개탄하면서 特委결의안통과를 강력히 주장한다。우리국회가 진상을 규명하지못할때 정부·국회를 비롯한 그누구도 믿지않는다는 국민적불신의위기가 到來한다는 역사적교훈과 엄연한 현실을 正視해야한다。

▲沈明輔의원(民正)反對토론=정부는 사전수사를 거의 마무리 했으며 피해를 극소화하고 금융질서를 잡기위해 노력하고있다。따라서 오늘의 경제사회적상황을 대국적으로볼때 정책적이고 제도적인 안전판설정이 국민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다。

그동안 국회는 본회의와 상임위에서 진지한 토론을했었다。정부의 헌신적인 사태수습노력으로 상처가 아무는 과정에 원점에서 다시조사하는것은 바람직하지못하며 조사권발동의 실익과 국민대화합을 추진하는 정부의수습노력을 지켜보자。

정부의 수습이 미흡할경우에 이문제를 다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며, 현재로서는 정부당국에 강력한 수습책을 촉구하는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趙重衍의원(民韓)찬성토론=검찰이 李圭光씨의 배후관계수사에서 처음부터 검찰권을 당당하게 행사하지못하고 고위층의 인척이라는특수신분때문에 엉거주춤하다가 국민의 빗발치는 비판의 소리와 누구도 法外의 特權을 누릴수없다는 대통령의결의표명이 있은뒤에야 수사에 착수 했었다。검찰이 배후비호세력에대한 수사에서 의도적으로 限界를 그어놓고수사했다고 볼수밖에 없다。

李씨가 직접 작용한 사실이 없다고 했지만 정치權力의 작용없이 이엄청난 사건이 어떻게 일어날수있는가。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않는다。

그리고 돈의 향방이 소상히 밝혀지지 않아 市中에 유포되고있는 정치자금流入說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이 발표한 지출내용이 숫자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구체적인 항목별로보면 애매한곳이 많다。

엄청난 돈의 행방에 대해 일목요연한 항목으로 밝혀지기 전에는 정치자금유입설에 대한 항간의 말을 전혀남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이밖에 검찰은 어음詐取의 實例에서 共榮, 日新, 大陽등의 설명만 했을뿐 라이프주택등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검찰의 미진한 수사결과로는 국민의 분노와 의혹이 가시기는 어렵다。시급히 요청되는 민심의안정과 경제不況을 수습하고 실추된 국가기강을 확립하기위해 조사권은 꼭 발동되어야 한다。

◇張여인 國會로 與野의院內司令塔인 총무들은괴롭기만하다。3黨총무들은 野黨이낸 國政조사 特調委案등을 둘러싼연이틀간의 숨가쁜줄다리기협상이 原點으로 돌아간뒤表決처리키로한 運營委에서 괴로운표정을 짓고있다。㊧로부터 李鍾贊民正·林鍾基民韓·李東鎭국민당총무。

◇總理 해임案

▲朴寬用의원(民韓)제안설명=憲法99조에 명시된 1년이내에 解任案을 낼수없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임권고결의안을 제안하지 않으면안될 오늘의 難局을 개탄한다。

우리國會는 오늘의 非常時局을 수수방관할수없고 국민적요구를 外面할수 없다。

따라서 張여인 사건을마무리하는 의미로서가 아니라 政局不安을 수습해야 한다는 차원에 총리解任권고안을 처리해야한다。

대다수 국민이 不信하는정부라면 정치적 불안만이 深化될뿐이다。

문제해결의 방안이 될수없는 정부의 조치에도 국회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국회無用論이 강조될 뿐이다。

제5공화국의 기본이념인 정의사회구현이 무너졌다고 평가받고있는 이싯점에 관계국무위원 解任案마저 否決시킨 與黨의 행동을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심각하게 번져갈 사태수습의 1차적 방안으로 국무총리 解任권고안을 국회가 통과시켜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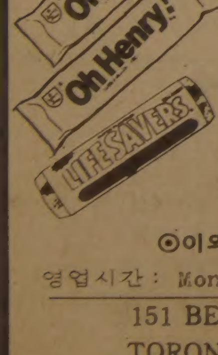
前代未聞의 사건에대한 책임보다도 이 사건을 은폐호도하려했던 책임, 이번 改閣이 사건처리와는 관계없는결과로 나타나게한 책임도 국무위원 提請權者인 총리는 면할수없을것이다。

우리의 解任주장은 제5공화국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될것이다。

또한 無力한 국회란는 실추된 國會권위를 회복하고 政治圈밖의 정치를 국회속으로 수렴할수있는 계기가 될것이다。

FALLIS U-SAVE CASH & CARRY

세일기간 : 5월19일~6월5일까지



• 모든 LOWNEY'S 초코레트바 Reg.36's	$9.45
• 오·헨리 Reg 36's	$9.19
• Cadbury Thick Bars 36's	$13.07
• Rowntree Dairy Box 1Lb	$9.73
• Black Magic 1Lb	$10.61
• Life Savers	$4.09
• Hershey's Reg.36's	$8.99
• DELSEY Toilet Tissue 24/2's	$17.99
• HEINZ TOMATO Juice 24/10oz.	$7.99
• POP Wilson Product	$5.59
• Coke,7-Up	$5.99

⊙이외에도 많은 Special 품목이 있읍니다.

영업시간 : Mon-Fri(8a.m.-4p.m.) Sat.(8a.m.-2p.m.)

151 BELFIELD RD. REXDALE, P.O.
TORONTO, ONTARIO M9W 1G8
Tel: 249-8411

Rexdale / Belfield Rd. / Dixon Rd. / Hwy 427 / Martin-Grove / Kipling Ave.

Everybody's talking about WAGNER..
BECAUSE OF THE SOUND THE QUALITY AND THE VALUE

WAGNER PIANO 는

* 품질의 높음이 세계적으로 알려져 구라파와, 미국은 물론 카나다에서 수많은 음악전문가들의 호평을 받고 있으며
* 카나다의 최우수 대학인 몬트리올의 McGill University 음악대학, University of Alberta 음악대학, Humber College 음악과 등에는 이미 Wagner Piano를 다량 애용중이며,
* 상당수의 U of T음악교수들, 카나디안음악인들, 토론토한인음악인들이 Wagner Piano를 소유하고 있읍니다.
* Wagner Grand Piano는 카나다 전체 Grand Piano 판매량의3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마다 증가일로에 있읍니다.
* Wagner Piano는 12년간 본사에서 품질을 보증합니다.
* Clear and Precise Sound, Uncompromised Quality and Unbelievable Price는 Wagner의 자랑입니다.

WAGNER HOUSE OF MUSIC
JASTOM TRADING COMPANY LIMITED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ARIO M3B 1Z3
☎ (B) 446-1431, 449-8644 (H) 286-1548 대표 박 성 희

醫療費삭감에 共和의원까지 反旗… 蜜月깨져

順風레이건에 豫算브레이크

레이건 美 대통령에 의해 강력히 뒷받침되어온 83년도 예산안이 28일 새벽 (현지시간) 美하원에서 부결되었다. 5개월에 걸쳐 논란을 거듭해온 끝에 상정된 예산안의 하원부결은 美의회관계에서 비교적 순탄한길을 걸어온 레이건대통령의 정치일정에 하나의 변화를 시사한것으로 미국의 언론들은 표현하고있다.

美언론들은 이날 하원예산위에서 다른 2개의안과 함께 2백35대 1백92표로 부결된것이 지난해 반대당인 민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하고있는 하원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던것과 너무나 큰 대조를 보인것이라고 지적하고있다.

이날 반대는 이번 예산안이 담고있는 내용때문이긴하지만 그것을 다룬 원내지도자들의 리더십에 대해 의원들이 큰 불만을 가졌던것이 또다른 이유로 손꼽히고있다. 이것은 표결때나온 공화당의원 20명의 반란표가 잘 설명해주고있다.

일리노이주 공화당 미첼의원등에의해 성안된 예산안의 골자는 사회보장적인 지출。즉 의료보조비는 대폭삭감하는대신 레이건대통령이 강화해온국방부문에서는 최소한의 삭감만을 한것이었다。결국 사회보장적인 예산을깎아 방위비를 증강하자는것이며 하원에서의 부결은 이문제에관한 미국여론의 큰흐름을 반영한것이라고 분석하고있다。

대부분의 의회내 보수주의자들도「부표」를 던진것으로 전해지고있는데 이것은 예산안의 내용보다는 원내지도부에대한 불만의 표시로 보여져 레이건 대통령이 겪는 시련의 한면을 보여주고 있다。사실 레이건 대통령은 지난 수일간 캘리포니아의 별장에 있으면서도 장거리전화로 이예산안이 통과되도록 적극적인 로비활동을 벌인것으로 전해지고있다。

물론 이번 표결결과는 예산안심의의 서전에서겪은 한고비패배에 불과하지만 과거 이스라엘로비의강력한 반대에도불구하고 조기공중경보기 (AWCS) 對 사우디판매안의 지지를 의회에서받아냈던 상황과는 현저히 달라진 정치적입장에 레이건이 서있음을 의미하는것이다。

부결 소식을 들은후 한행정부 관계자는『예산심의 과정에 혼란이 있었던것같다。공화당지도자들과 다시협의하겠다』고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했다。

西方頂上회담때 發言權약화 우려

레건재무장관은 이번 예산안부결을 민주당원내지도층의 리더십부족때문이라고 비난하고 오는4일 프랑스 베르사유에서 열리는 서방선진국 경제정상회담에 레이건 대통령은『확정된 예산도 없는 나라를 대표해서 참가하게 되었다』고 우려했다。

사상최고인 1천억달러 적자예산을 결행하면서라도 국방력을강화해보려던 레이건행정부의 구상은 상원과 하원을 돌고도는 몇바퀴 절차를 밟는사이에원형과는상당히 다른모습으로굳혀질것같다。

【워싱턴=李文熙특파원】

◇社會보장비 감축 抗議 레이건행정부의 사회보장비예산감축에 항의하고있는 미국의 노인과 빈민들。

◇선적되는 日자동차 구미지역으로 수출되고있는 일본자동차。유럽각국은 일본의 소나기 수출에 대항하기위한 규제책을 강구하고있다。

日의 輸入개방 經濟微笑작전

競爭力 앞선것만 골라 파리會談 앞둔 눈가림

그나마 한국등 開途國은 外面

『일본은 폐쇄적인 일본시장의 개방을위해 극적인 조치를 취하라』는 歐美제국의 압력에 못이겨 28일 경제대책각료회의를 열고 TV·냉장고·세탁기등 총 96개품목의 관세를 철폐하는 제2차 시장개방정책을 확정했다。

선진국 경제정상회담을 눈앞에 두고 취해진 이번 시장개방정책은 작년말 소폭의 관세인하조치를 취한 제1차 시장개방정책보다 진전된것이다。

두번째의 시장개방정책의 주요골자는 ▲수입검사제도의 개선 ▲관세율의 인하및 철폐 ▲복잡한 수입유통구조의 개선 ▲금융등 서비스무역의 자유화이다。

가장 주목을 끌고있는 완전관세철폐 품목은 TV·냉장고·세탁기등 가전제품과 손목시계 35mm카메라 축음기 레코드·플레이어 VTR 공작기계등 일본이 우세한 전자공업품과 천연흑연 커트·다이어먼드등 관광품을 비롯 96개품목에 이르고있다。

수입확대품목으로는 청어 돼지고기 파인애플통조림등 4개품목이며 미국이 강력히 수입확대를 요구하는 오린지와 쇠고기등 농산품목에 대해서는 미결인채 유보했다。일본정부가 작년말 제1차시장개방정책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歐美각국은 그정도로는무역마찰을 해소할 수없다고 강력히 반발함으로써 부득이 제2차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정부는 이번제2차조치를 단행한 목적이 ▲美의회에 제출되고 있는 무역보호주의에 입각한 상호주의의법안의 성립을 저지하려는것과 ▲6월4일 프랑스베르사유에서 열리는 선진국경제정상회담에서 歐美각국으로부터 무역마찰로 인한 비난의 십자포화를 면하려는데있다。

일본은 계속적인 무역흑자로 구미각국으로부터 무역마찰을 일으켜 四面楚歌에 빠졌으며 각국이 보호주의경향으로 흐르면 자원빈국인 일본은 경제적 타격을 크게 입을 수 박에 없다。

지난해 9월한달만해도 일본은 32억달러이상 엄청난 무역흑자를 냈으며 82년도의 무역흑자는 3백50억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對日무역적자는 81년도만해도 2백억달러를 넘어섰고 미국과 EEC(歐共市)의 실업자는 각각 1천만명선을 돌파했다。

이같은 무역전쟁속에서 미의회는 상호주의 법안을제출, 폐쇄적인 일본시장이 개방되지않으면 일본상품의 금수조치를 취하려는 움직임이 강력히 대두됐으며 EC제국도 일본상품에대한 제재조치를 강력히 주장하고나섰다。

구미각국은 對日무역적자를 줄이기위해 일본에대한 자국제품의 수입확대조치를 촉구하고 있는동시에 비관세장벽의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발등의 불을 끄기위해 단행된 일본의 제2차시장개방조치는 따지고보면 일본이 국제경쟁력이강한 가전제품등 전자·경공업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철폐했으나 경쟁력이 약한 오린지 쇠고기등 농산물과 견직물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세장벽을 높여 수입을 억제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일본은 국제경쟁력이 약한 품목에 대해서도 과감한 시장개방조치를 취하지 않는한 일본과 구미간의 무역마찰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사꾸라우찌 (櫻內)외상은 이번조치가 결정·발표되기 하루전인 27일 맨스필드美대사를 비롯, 캐나다 EEC제국의 駐日대사를 초청, 일본의 시장개방조치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자리에는 한국을 비롯한 東아시아제국의 駐日대사들은 초청되지 않았다。

미국다음으로 일본의 제2수출대상국인 한국의 무역적자가 매년 30억달러이상이 누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소키위한 일본의 노력은 찾아볼수없다。

한국과 일본과의 교역량이 연간 2백억달러가 넘고있음을 감안할 때 일본은 마땅히 한국상품의 對日본시장문호 확대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東京=宋孝彬특파원】

움직이는 世界 특파원 리포트

◇쑥밭된 回教寺院 이라크점령군에 의해 파괴되고 더럽혀진 호람샤르의 자메회교사원。【호람샤르30日AP電=聯合】

이란, 이라크領 猛爆

페灣남쪽 陣地·연료탱크 파괴

【베이루트·런던30日UPI電=聯合】호람샤르 함락후 이라크군을 자국영내로 격퇴시킨 이란은 29일과 30일 샤트·알·아랍 수로건너편과 페르시아만 남단의 이라크군진지 및 연료탱크등을 계속 맹공하여 페르시아만 온전과 아랍국들에 대한 이란의『內外的 공세』위협을 가중시켰다。

이와함께 이라크도 이란군의 보복으로 30일 페르시아만의 2개 주요 이란석유시설을 폭격했다고 이라크군사코뮈니케가 발표했다。

테헤란방송은 이란군이 지난24시간동안 샤트·알·아랍수로 건너편의 이라크군진지에 맹렬한 포격을 가해 이라크군 벙커17개소와 연료탱크및 탄약고등을 파괴했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또 이란의 아바단시 상공에서 이란·이라크 양국전투기들간에 공중전이 벌어져 이라크 전투기 1대가 이란전투기에 의해 격추되었다고 말했다。

美, 장기核戰略마련 對蘇 在來戰에대비…

미국방성 기획담당관들은 『장기핵전』수행에 필요한 전략을 이미 마련했으며 동시에 미국이 소련과의 장기적인 재래식 분쟁대책을 마련해야할것으로 생각하고있다고 뉴욕·타임즈지가 30일 보도했다。

이같은 구상은 국방성의 향후5개년 예산요청및 레이건행정부의 전반적인 전략입장의 토대로 마련된『지침문서』에 수록돼있다고 타임즈지는밝혔다。【워싱턴=UPI】

바웬사 곧正常生活 波부수상 電話회견

폴란드 자유노조지도자 레흐·바웬사가 자택이있는 그다니스크에서 곧『정상적인생활』을 다시 시작할것이며그곳에서 자유노조와 계속 관련을 맺게될 것이라고 폴란드의 한 고위관리가 30일 밝혔다。

에르지·오즈토프스키 폴란드부수상은 이날 통신위성을 통한 미국의 한 전화인터뷰프로그램에서 이같이 밝히면서『바웬사가 현재 엄격히말해 억류상태에 있지않고 폴란드남부에서 매우 좋은 여건하에 생활하고있다』고 강조했다。【워싱턴=AP】

火曜 안테나

페灣6國 外相회의 이란·이라크戰검토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페르시아만협력협의회(PCC) 6개국은 이란·이라크전쟁상황을 검토하기위해 30일 리야드에서 긴급외상회의를 소집했다。

지난 15일의 쿠웨이트회담에 이어 2주만에 두번째 열리는 이번 회의는 최근의 전세역전으로 이란·이라크전발발이후 처음으로 이란이對이라크국경너머로 공격을 가할지 모르는 사태가 발생하자 이에 대한 페르시아만국가들의 우려를 반영하는 것이다。【바레인=聯合】

스페인 나토加入 16번째會員國으로

스페인은 30일 서방방위의 주춧돌인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신규회원국으로 정식가입했다。

이로써 스페인은 나토의 제16번째 회원국자격을 갖추게됐다。【마드리드=AP】

코스타리카와 斷交 사우디、經濟관계도

사우디아라비아는 29일 코스타리카가 駐이스라엘 대사관을 텔아비브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한데 항의、코스타리카와의 외교·경제관계를 단절했다고 관영 사우디통신이 보도했다。【지다(사우디아라비아)=AP】

무바라크 埃大統領 中共방문초청 受諾

호스니·무바라크 이집트대통령은 中共정부의 공식방문초청을 수락하였으며 방문일정은 추후 발표될 것이라고 30일 中共특사가 밝혔다。【카이로=UPI】

趙紫陽 日本을방문 日·中共관계轉換點

中共수상 趙紫陽은 지난31일 도오꾜에도착、中共의對日정치·경제 유대를 강화하는데 보탬이 될것으로 기대되는 5일간의 일본방문에 들어갔다。

趙의 이번 일본방문은 中共·일본간의 관계정상화10주년을 맞아 이미 계획되었던것으로써 오는9월로 예정된 스즈끼·젠꼬(鈴木善幸)일본수상의 北京공식방문과 함께 日·中共관계의 전환점이 될것으로 보인다。【東京=AP】

美베이커議員 訪中 레이건親書를 携帶

하워드·베이커美上院원내총무는지난30일中共지도자들에게 레이건 대통령의친서를 전달하기위해 9일간의 일정으로 北京에 도착했다。【北京=AP】

축

일간지발행 1주년기념

토론토 한국일보의
무한한 발전과 성장을 축원하며,
더욱 교민사회를 위해 일해주는 신문이
되어주기를 기원합니다.

캐나다한일은행
HANIL BANK CANADA

캐나다한일은행
(604)681—2266 (604)681—2271
P.O.BOX 49283
SUITE 2674 FOUR BENTALL CENTRE
1055 DUNSMUIR ST.
VANCOUVER, B.C. V7X 1L3

토론토사무소
(416)865—0456
ROYAL BANK PLAZA, SOUTH TOWER
SUITE 3040, P.O.BOX 94
TORONTO, ONTARIO
M5J 2J2

서울·地方 「연계病院」 운영

大學·종합병원 市·道立병원과 「母子」맺어

레지던트등 고급人力 파견

技術지원·研修교육도 맡아

醫療전달체계 定立 새 試圖

전국의 대학병원과 일반종합병원이 현지의 시·도립병원과 모자(母子)관계를 맺어 연계 운영된다. 보사부는 1일 의료인력과 시설이 모자라 환자들이 기피하는등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시·도립병원을 활성화하고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등 대도시에만 집중돼있는 고급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기위해 이같은 연계병원을 운영하기로 확정했다.

이에따라 보사부와 대한병원협회는 1차로 ▲高大병원과 原州도립병원 ▲仁濟서울병원(서울白병원)과 利川도립병원 ▲인제釜山병원(부산白병원)과 馬山도립병원 ▲전북의대부속병원과 南原도립병원 ▲전남의대부속병원과 康津도립병원 ▲경북의대부속병원과 大邱시립및 金泉도립병원 ▲동해의료원(大邱)과 安東도립병원 ▲순천향병원과 洪城도립병원등 8개대학병원급 의료기관및 9개시도립병원을 연계운영토록 지정했다.

보사부의 이같은 방침은 전국시도립병원의 의료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것외에도 이들 연계병원을 의료전달체제정립을 위한 진료권형성의 바탕으로 삼기위한것이다.

이에따라 母병원은 인턴·레지던트등 의료인력이 태부족한 子병원에 파견、일정기간동안 근무시키는 한편 子병원에 대한 의료인 연수교육、의료시설및 기술지원을 맡게된다. 보사부와 병원협회측에 따르면 대학및 종합병원외에도 전국 일반병원중 母병원20개소、子병원40개소를 연계운영토록할 방침인데 이제도가 정착되면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을 이같은형태로 운영、의료전달체계와 지역진료권(圈)이 자연형성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병원협회측은 1일부터 33명의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병원신임위원회를 열어 시도립병원에 파견 근무할 의료인력들의 근무기간을 계속해서 6개월을 초과하지않는 범위내에서 교대제로 순환근무시켜 모든 인턴·레지던트들이 참여할수있도록 하는한편 의사들의 파견근무에 따른 수당등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만들고 있다.

한편 보사부당국자는 이같은 병원연계운영으로 대학병원에로의 환자집중현상을 막는한편、연계운영에 따라 지역별로 형성되는 병원群을 국민의료권에 부합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용소 군도에서 죽어가는 북한동포를 살려내기 위한 1천만명 서명운동이 이북5도민 연합회 주최로 6월한달 동안 전개된다. 1일상오전국 市·郡 주요거리에 설치된 3백33개소 가두서명대에서 시민들이 줄을 이어 서명하고 있다.

全大統領 危害음모 加大法院 예비심리

【터론토 UPI=聯】 全斗煥대통령위해음모사건과 관련돼 입건된 2명의 캐나다人에대한 예비심리가 지난31일 온테리오대법원에서 시작됐으나 심리를 맡고있는 B·M·켈리판사는 이 예비심리에 제출된 증거의 보도를 금지시켰다.

이번 예비심리는 금주에 이틀간 계속된뒤 쉬었다가 오는 8월4일 재개된다. 캐나다에서는 살해음모죄에 대해 최고14년의 징역형을 선고할수있다.

逆境이긴 自立意志 격려

本社제정 9회 한국援護大賞 5명 어제施賞

격려금·副賞도

한국일보社가 선정한 올해(제9회)의 「한국원호대상」 시상식이 1일상오11시 본사 12층 강당에서 李種浩원호처장과 金相吉광복회장, 수상자가족, 국가유공자등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洪惟善한국일보발행인은 이날 崔外溪(42·상이용사·서울江東區千戶洞43의7) 李鼎九(54·상이용사·경남蔚州郡溫陽面鉢里466) 李洋南(76·여·유족·강원原城郡文幕面文幕里73) 韓順子(52·미망인·전남咸平郡咸平邑箕山里891) 李玉得씨(46·중상이자부인·충남禮山郡新陽面蓮里285)등 5명의 수상자에게 공적내용이 적힌 상패를 수여했고 李원호처장은 격려금과 탁상시계등 부상을 전달했다.

심사위원장 金用雨씨는 이날 심사경위보고를 통해 『23명의 후보자 추천서를 놓고 모두가 과거의 역경과 시련을 자력으로 극복하고 활기찬 삶을 개척해가는 의지에 숙연한 마음이앞서 우열을가리기 어려웠다』고 말하고『이 대상의 제정취지에 따라 내 한몸의 고통극복은 물론 불우이웃을 돕고 지역사회발전의 선구자가 되신 분들에 우선하여 수상자를 뽑았다』고 밝혔다.

시상식이 진행되는동안 5명의 수상자들은 원호단체들과 가족친지들이 보내온 화환속에 묻혀 한맺힌 과거를 회상하는듯 때때로 눈물을 감았으며 특히 두아들을 전쟁터에서 잃고 평생동안 행상으로 모은 억대의 땅을 학교용지로 헌납한 강원原城郡文幕面의 李洋南할머니는 깊은 주름살이 패어진 단아한 얼굴을 숙여 흐느끼곤 했다.

수상자들은 이날 시상식에 이어 원호단체 대표들과 함께 한국일보社13층 松峴클럽에서 洪한국일보발행인이베푼 오찬을 들며 환담했다.

한편 수상자들은 2일 정부가 뽑은 29명의 유공원호대상자와함께 尹誠敏국방장관과 李원호처장이 주재하는 오찬과 만찬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地下鐵공사장 또事故

鐵材빔휘며 地盤붕괴

서울乙支路 車輛통제

1일하오5시40분께 서울中區乙支路3街 대림상가앞 지하철2호선 2-1609공구 공사장에서 지반이 토사의 압력에 못이겨 내려앉는 바람에 乙支路3、4街사이의 차량통행이 통제됐다.

사고는 지하철 박스공사완공후 주변에 흙을채우던중 박스와 토사를 격리시킨 철제빔이 토사의 압력에 못이겨 휘어지면서 차량이 다니는지반이 5㎝가량 내려앉아 일어났다.

시공회사인 라이프주택은 휜철제빔에 버팀쇠를설치、더이상의 지반침하를 막았으나 안전점검을 위해 3시간동안 차량통행이 통제될것으로 보인다.

비타민·한약
미도파백화점
454 BLOOR ST.W B536-1692 H245-3539

◇제9회 한국원호대상을 받은 얼굴들. ⓒ로부터 崔外溪씨, 李鼎九씨, 李洋南씨, 韓順子씨, 李玉得씨.

下旬 장마上陸

이달 例年보다 무더워

6월에는 예년보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하순에는 장마전선이 상륙, 전국적으로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든다.

중앙기상대는 1일 6월중순에는 대륙으로 동진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곳에따라 비가 자주 오겠으며 기온은 예년보다 높겠다고 예보했다. 또 중순에는 고기압권에 들게돼 맑은날이 많고 높은 기온이 계속되며 하순에는 장마전선이 남중국、우리나라、일본을 오르내리며 예년 강수량 99~1백12㎜의 많은 비를 뿌리겠다고 내다봤다.

소화위장약
노루모
일양약품

北韓 收容所群島해방 1천만 署名운동

「북한수용소군도에 감금돼있는 동포들을 해방시키기위한 범민족서명운동」이 1일상오8시부터 서울을 비롯한 전국3백33개 시·군·구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이북 5도민의 중앙연합회(회장 金連珪)주관으로 펼쳐지는 이서명운동은 1천만명서명을 목표로 오는30일까지 한달간 계속된다.

서울의경우 이날 西小門지하도앞과 明洞 구예술극장앞、세종로등 51개소에 이른 아침부터 시민들이 몰려들어 이날하오 6시까지 모두13만여명의 시민들이 서명을 했다.

李·張부부등 26명 오늘起訴

大錢主 30명수배… 系譜 今明발표

李哲熙·張玲子부부거액어음사기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중앙수사부는 오늘(2일) 관련피의자 26명을 일괄기소한다.

관련피의자 26명가운데 李哲熙·張玲子씨부부는 사기및 외환관리법위반, 배임증재죄등이 적용되며 李圭光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가, 林在秀전조흥은행장과 孔德鍾전상업은행장은 업무상배임및 배임수재죄가、지점장 4명에게는 업무상배임죄가 각각 적용된다.

또 共榮토건의 邊康雨사장과 金東義·邊泰洙상무는 업무상배임및 횡령죄가, 日新제강의 朱昌均회장은 배임증재및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가, 裵吉勳대표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가, 田永宋三扶토건자금부장등 사채업자 6명은 단기금융업법위반죄가 적용된다.

이밖에 邊衛佐共榮토건총무담당이사는 증권거래법위반및 사기죄, 金濟振大和산업사장등 간부3명은 업무상배임죄가, 張여인의 개인비서 金勇男씨에겐 외국환관리법위반죄가 각각 적용된다.

검찰관계자는 이날 관련피의자 26명의 일괄기소로 이사건수사는 일단락되지만 사채업자및 전주에대한 수사는 이에관계없이 계속될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따라 李·張부부와 직접 사채거래를하다구속된 사채업자 張東浩씨등의 뒤에있는 중간사채브로커및 현재까지 드러난 전주등30여명을 수배키로하고 그계보와 명단을 2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당국자는 사채업자수사는 1차거래자뒤에 2~6명정도의 중간브로커들이 계선조직으로 개재돼있고 그뒤에 진짜전주가 있기때문에 수사에 어려움이 많으나 이번 사건과 관련된전주는 낱낱이 밝혀 의혹이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검찰은 1일 李·張부부의 어음을 담보로 허가없이 할인해주고 부당이득을 취한 사채중개인 李銀圭씨(52·서울鍾路區杏村洞210)와 趙祥弼씨(45·서울恩平區津寬外洞404)등 2명을 단기금융업법위반혐의로 추가 구속했다.

검찰에 의하면 李씨는 지난1월23일 서울中區乙支路2街 한양빌딩608호 사채업자 張東浩씨(구속중)사무실에서 張여인으로부터 共榮토건발행의 약속어음 2억8천만원상당을 불법할인해주는등 지난4월까지 共榮토건과 라이프주택등에서 발행한 약속어음95억원상당을 할인 의뢰받고 이자 6억3천8백64만원을 공제한뒤 88억6천1백36만원을 張여인에게 건네주었고 趙씨는 지난1월23일부터 4월까지 張여인으로부터 15억원상당의 약속어음을 할인 의뢰 받고 이자1억4천8백50만원을 공제한 13억5천1백50만원을 건네준 혐의를 받고있다.

公訴사실거의是認

釜山大學데모사건 李鎬喆피고첫公判

【釜山】부산대학 데모주동혐의로 구속기소된 李鎬喆(23·무직·동래구온천2동9 91) 鄭貴順(21·여·부산공대3년·동래구장전1동27 5의24) 薛敬惠(23·여·감전국교교사·남구대연1동10 08)등 3명에대한 첫공판이 1일상오 부산지법 3호법정에서 형사3단독 徐錫九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부의 인정심문과 검찰의사실심리에서 李피고인은 78년부터 의식화 그룹에 가입한후 이그룹을 주동하고 현체제를 타파·사회주의로의변혁을위해81년4월17일 부산대교내 데모를 주동한점등의 공소사실을 대체로 시인했다.

이날 공판정에는 20여명의 방청객이 나왔으며 부산지검 공안부검사 3명과 장두경변호사가 관여했다.

林인순 할머니등에 全南 忠孝思想표창

【光州】全南道는 1일 光州市北區龍頭洞527 林인순할머니(78)와 長城郡珍原面龍山里 金인동할머니(91)등 2명을 이달의 충효사상표창자로 선정, 시상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警察간부 대폭異動

警務官13명·總警1백23명

정부는 白亨祚서울시경경무과장등 5명의 총경을 경무관으로 승진발령하는등 13명의 경무관과 총경급 1백23명을 오는3일자로 전보발령했다. ★명단2면

한편 宜寧사건으로 직위해제됐던 전경남도경국장 柳九桓경무관은 의원 면직됐다.

◇경무관승진

▲본부기획과장 白亨祚(서울경무과장)▲본부장보좌관 朴處源(본부 대공분실장)▲경찰대교수부장 田錫麟(서울면허과장)▲종합학교교수부장 申周鉉(본부정보2과1담당)▲서울101경비단장 潘鎔浩(직대)

◇경무관이동

▲본부경무과장 劉載惠(본부정보2과장)▲〃수사2과장 朴莊遠(본부경무과장)▲〃정보2과장 朱炳德(본부정보3과장)▲〃정보3과장 劉吉鍾(본부기획과장)▲해경관리부장 池義宅(경대교수부장)▲본부경무과 白錫春(국방대입교)▲〃李鍾國(〃)

아들 못낳은 20代주부

어린 세딸과 同伴自殺

【金州】1일상오10시20분께 전북 金堤郡金山面龍山里 지용부락 삼양농장 분뇨탱크에 이농장인부 具양호씨(33)의처 金경숙씨(24)가 3자매와함께 빠져 숨져있는것을 농장인부 강인식씨(31)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가족들에 의하면 金씨는지난77년 具씨와 중매결혼, 딸만 셋을 낳았는데 시부모로부터 아들을 못낳는다고 심한 구박을 받아온것을 비관해 왔다는것.

경찰은 이날 김여인이 늦잠을 자고있는 남편몰래 집에서나와 함께 빠져 숨진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聯】

미용사 아가씨들 "光州를 꽃의都市로"

도로변화단에 꽃심고 물줘

【光州】『광주를 아름다운 꽃의 도시로 가꾸자』며 도로변 화단에 꽃을 심고 물을주는 아가씨들의 얼굴이 곱게핀 꽃들과 조화를 이루어 거리를 한결 밝게해주고 있다.

T화학 光州지점 미용사 아가씨들이 光州市錦南路·中央路·光南路등 시내 간선도로변의 화단에 꽃을 심고 가꾸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이회사 아가씨들은 호주머니를 털어 구입한 갖가지 화초를 정성스럽게 심고 회사의 지원으로 동원된 5대의 급수차에서 물을 받아 오랜 가뭄으로 메말라붙은 화단에 물을 뿌려주고 있다.【聯】

農民에 위장병많아

노동過重 신경痛도

【永同】농촌지역주민들의 대부분이 맵고짠 음식과 불규칙한 식생활및 과중한 노동으로인해 위장병이나 신경통을 앓고있으며 부녀자의경우 상당수가 부인병에대해 잘못인식하고있는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報恩·沃川·永同등 忠北남부지방보건소가 올들어 본소와 지소를 찾은 환자 1만4천4백41명(報恩 4천2백6명, 永同6천9백47명, 沃川 3천2백88명)을 대상으로 환자실태를 조사한결과 밝혀졌다.

이조사결과에 따르면 진료를 받은 1만4천4백41명중 ▲내과부문이 6천9백12명으로 전체의 47.9%를 차지 가장많았고 ▲신경질환은 19%▲소아과 13.3%▲산부인과 5.8%▲외과 6%▲기타가 7.8%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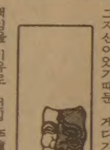
내과분야에는 50%이상인 3천5백여명이 소화불량, 만성위염등 위장장애로 고생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고혈압·기관지염·천식등 순환기및 호흡기질환으로 시달림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천7백88명에 비해 무려54%나 늘어난 신경질환의경우 환자 대부분이 신경통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부인과를 찾는 부녀자들은 대부분이 대하증이나 하복통은 질병이 아닌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는 것.【聯】

「진땀長官」

「張여인 國會」 시달리는 鄭致根법무

느닷없는 「主役論」 등장… 화살받아



鄭致根법무장관(사진)에게 「張여인국회」가열렸던 닷새동안은 생애중 가장길고 곤혹스런시간이었는지 모른다. 그는 이기간내내 與野의원들이벌인 공세의 최대표적이었는데다, 취임1주일만에 자신의 해임결의안에대한 표결과정을 현장에서 지켜보아야만 했다.

그가 국회에 선것은 물론 국무위원인 장관의 의무때문이었으나 국회가 흥분한 이유는 따로있었다. 국회소집자체가 검찰수사에 대한 불신이 큰작용을했고 그검찰수사의 총책이 다름아닌 검찰총장이었던 그자신이었기 때문. 게다가 수사의 책임을 이유로 전임 李鍾元법무장관이 퇴진한반면 그는 영전을 하고있었던 것이다.

모든상황과 조건이 그로하여금 진땀을 빼기에 충분했다. 그래서 의원들은 그에게 「현직」과 「전직」의 책임을 동시에 요구했고 그역시 「二重의방어를 동시수행」하느라 남다른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그러나 그는 이 최대의 관심에서 국회를 오히려 누른감이 없지않다. 처음서본 국회에서 만만찮은 수완을 과시했다.

鄭법무는 개회벽두 느닷없는 「主役論」을 등장시켜 국회攻防의내용을 엉뚱하게 이끌고 그막판에서「李圭光의 파시행위」보고로 뒷마무리를 했다. 사건의 흐름을 張여인사건에서 李哲熙사건으로 뒤바꾼다음 최후순간에 李圭光의 비행을 던져준 그의 일솜씨는 그것만으로도 매우 잘계산되고 조화된 「작품」.

그는 답변에서도 매우경제적이었다. 2시간질문에 단5~10분을넘기지 않았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사람, 과묵하고 남의말을 주로 듣는타입, 속을 알수없는 포커·페이스라는 평소평판이 거짓이 아니었다. 그를두고 「입조심」 「몸조심」으로 쟁쟁한 고시8회동기중 가장 먼저 검찰총장과 장관을 땄다는 얘기가 있다던가…

그는 가장 곤혹스런 순간에 놀랍도록 침착했고 간단했다.

『검찰은 진상규명을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국민들도 검찰수사결과를 믿을것으로 확신한다』고 거듭강조하곤했다.

「張여인사건」은 어느의미에서나 「말의盛饌」이었다. 그래서 鄭장관의 『확신』이라는 단어도 사람따라 맛이 다를듯 하다.【崔奎植기자】

(한인)특별하기 체력연마 및 호신술과정

SON MYUNG SOO TAEKWON-DO

아래와 같이 저희 도장에서 특별하기 훈련을 실시하오니 교포 여러분 및 자녀분들의 건강 및 호신술 연마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인이면 꼭 알아야만 될 무술기본 연마!

1) 어린이 반(9세~13세)

시 작 : 1982. 6. 12(토)12시
기 간 : 15주(매주(토)혹은(일)) —오전·오후
수련료 : $150
인 원 : 20명(선착순—남·녀)
사범 : 손 명철(3단)
조교 : 정 명주(13세·태권도 신동)

2) 학생반(14~17세)

시 작 : 1982. 6. 13(일)오후2 : 00시
기 간 : 15주(매주(토)혹은(일))오후
수련료 : $180
인 원 : 15명
사범 : 손 명철(23세)
조교 : 글렌·사무엘(대회우승 다수)

3) 대학생 및 청년반(18~22세)

시 작 : 1982. 6. 13(일)오전11시
기 간 : 15주(매주(토)혹은(일)) 오전·오후
수련료 : $ 200
인 원 : 12명(선착순—남·녀)
사범 : 손 명수
조사범 : 손 명철(시범권위자)

4) 일반부(23세~53세)

시 작 : 1982. 6. 10(목)오후8시
기 간 : 15주(매주(목)—오후8시)
수련료 : $300
인 원 : 8명(선착순—남·녀)
관장 : 손 명수(41세) 태권도·합기도사범(6단) 정평있는 지도력

◎장 소 : ●손명수태권도장(2188 BlOOR ST. W at RUNNYMEDE SUBWAY—JANE 과 HIGHPARK사이)
●공원 혹은 CAMP SITE—새벽일 경우

〈혜 택〉
1.단기간에 많은 기술 습득
2.단기간에 많은 체력 향상
3.책임 및 권위있는 지도
4.도복·띠($40.)및 음료수 포함
5.승급(단) 심사시 참작
6.과정수료후 성과 좋으면 재수련 및 도장 입관시 우대

〈참 고〉
1)시간은 일주일-1회(1시간 30분 가량)
2)가족 2인 이상은 20% 공제혜택
3)수련장소, 일자및 시간등은 도장행사, 공휴일등 관계로 편의상 변경 또는 연기될 수도 있음.
4)유단자 및 유경험자 대환영
5)무 경험자일수록 과정에 임하여 진보빠름.

★일년내내 즐길수 있는 자기 운동으로 공부·독서를 계속하듯이 신체단련, 무술 연마도 계속하면 건강에 매우 좋으며 특히 바쁜 생활과 피로를 쉽게 느끼는 분들, 허리에 통증을 느끼는 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한국인이면 필수적인 무술기본 연마
★지금 묻는것은 순간적인 챙피, 일체 묻지않으면 영원한 수치
★친절하고 정성껏 지도할것 입니다.

현재접수중(전화로도 접수받음)

연락처 : 손명수태권도장(SON BROS. TAEKWON—DO CENTRE)
전화시 : B)763－1155(주중—2시~8시) (토)—2시~4시 R)245－7527

프로레슬링에 「가짜 챔피언」소동

재미 崔煬善씨 NWA태그·챔피언 허위선전

外國선수 관광비자 入國…국내서 不法 경기

프로복싱이 최근 泰國의가짜선수입국사건으로 큰 물의를 빚은데이어 프로레슬링서도 「가짜 챔피언」소동으로 시끄럽다。

대한프로레슬링협회는 재미동포 프로레슬러 崔煬善씨(38)가 NWA태그 챔피언이 아닌데도 챔피언인것처럼 허위선전, 국내서 경기를 벌였다고 밝히고 이같은 불법경기의 재발을 막기위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했다。

문제의 경기는 지난25일부터 30일까지 광주 부산 대구 대전 청주 서울에서 벌어졌던 韓美수교 1백주년기념국제프로레슬링대회로 이대회에는 崔선수를 비롯하여 내외국인선수 13명이 출전했었다。

협회에 의하면 美國의 NWA (NATIONAL WRESTLING ALLIANCE)에 조회한결과 NWA에는 태그 챔피언이 존재하지 않을뿐만아니라 崔선수가 과거에 어떠한 NWA타이틀도 차지한사실이 없었다고 협회에 통보해왔다는것。

또한 국제대회를열려면 주무부서인 협회와 체육부의사전승인을 받아야하는데 체육부등의 승인도받지않은채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불법적으로 대회를 진행했다는것。

말썽이난 이번대회는 崔煬善선수 재미교포 후원회(회장 정의식)를 후원자로하여 조양 프러모션이 주최했다。

대통령盃 축구참가

許丁茂선수 소속 「아인트호벤」來韓

5일 개막되는 제12회 대통령배 국제축구대회를 앞두고 강력한 우승후보로 지목되고있는 PSV 아인트호벤팀(네덜란드)이 2일 하오 3시반 KAL便으로 내한했다.

HB 許丁茂와 함께 서울에 온 아인트호벤은 최근 끝난 네덜란드 1부리그서 명문 아약스에 이어 2위를 차지한 강호이며 내한멤버 17명가운데 GK 피스무르크를 비롯한 7명이 국가대표이다.

세계적 전자회사인 필립스를 구단으로 하고 있는 아인트호벤은 1902년에 창단된 명문인데 HB 빌리·케르코프와 FW 레네·케르코프는 쌍둥이형제로 네덜란드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선수이다.

許丁茂는 80년9월 유럽프로축구에 데뷔한후 만2년만에 부인과 2살된 딸과함께 금의환향, 국내팬들에게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게된다.

許는 2일저녁 축구협회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예선A조의 아인트호벤은 5일하오3시반 한국대표팀과 서울운동장서 대회개막경기를 벌인다.

한편 2일 아인트호벤팀에 이어 印度대표팀이 도착하며 3일에는 바레인대표팀, 4일에는 말레이지아 태국 인도네시아 서독(레버쿠젠) 브라질(오페라리오)이 한국에 온다。

◇강력한 우승후보로 지목되고 있는 PSV아인트호벤。가운데줄 오른쪽끝으로부터 세번째가 HB 許丁茂선수。

필라·파닌國際籠球 印尼에서 4일개막

【자카르타31일안타라=聯】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되는 제6회 필라·파닌국제농구대회에 한국을 비롯한 7개국이 참가한가운데 4일부터 7일까지 메단에서 열린다。이번대회에 참가국은 한국을 비롯, 싱가포르 말레이지아 泰國 필리핀 美國과 주최국인 인도네시아이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333-2361

가수 美愛 「미애와 檀君후예」결성

리더·싱어로 피아노도 맡아

「나성에서 온 편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가수 美愛양(26·본명朴美淑)이 그룹 「미애와 단군후예」를 결성, 리더·싱어로 활동한다. 69년도미, 새크라멘토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한 美愛양은 그룹에서도 피아노연주를 맡는다. 그룹결성기념으로 「이마음 어떻하라」「돌아가리라」「D·J 슈퍼저오」가 담긴 독집디스크를 출반했다.

◇미 애

가수 金榮俊 컴백

자작곡「미련」갖고

70년대초 「돌아오지 않는 江」「원점」등을 불러 팬들의 시선을 모았던 가수 金榮俊(31)이 휴업7년만에 활동을 재개했다。재기의 노래는 자작곡 「미련」과 朴椿石 작사·작곡의 「눈물꽃」。

69년 「원점」으로 데뷔한 金榮俊은 가수활동외 74년 漢陽大기계공학과를 졸업한 하사가수, 중장비정비가 전공인 그는 75년 「돌아오지 않는江」을 남기고 홀연히 가요계에서 모습을 감추었다。

대림트럭 트레일러 (25톤)를 몰고 仁川~浦項간의 고속도로를 달렸다는 그는 『고속도로에서 여러차례 위기를 맞았지만 못다이룬 정상의 꿈을 실현하기위해 이를악물고 참았다』고말했다。그가 이번에 내놓은 자작곡 「미련」은 가수에의 꿈을 사랑에 비유해 노래한 것。

◇김영준

海外 연예話題

恐怖영화 「헬·나이트」旋風

新入生 담력 테스트도중 연쇄殺人

「엑소시스트」少女 브레이어도 出演

최근 할리우드를 중심으로 미국의 극장가에서는 공포영화「헬·나이트」(Hell Night)가 흥행의 성공속에 「새장르의 호러영화」로 화제가 되고 있다。종래의 공포영화는 단순히 보는영화에 그쳤으나 이 영화는 극중의 연속되는 쇼크와 공포가 관객을 실제 주인공이 됐다는 착각에 빠지게 해 하나의 체험을 맛보게 한다는것。

「헬·나이트」는 대학신입생 환영행사의 하나。갓 입학한 학생들에게 담력을 길러주기 위해 악령이 있다는 폐가에서 하룻밤을 보내게하는 행사인데, 여기서 일어나는 의문의 연쇄살인사건을 그렸다。「헬로윈」「13일의 금요일」(1·2편)등을 제작, 「호러영화의 새제왕」으로 불린는 어윈·야브랜스가 체험영화라는 부제를 달아 내놓았다。81년 스페인시체스국제공포영화제에서 최우수작품상을 받았다。

「엑소시스트」에서 13세의 나이로 리건역을 맡았던 린다·브레이어가 공포영화출연 거부의 고집을 꺾고 9년만에 호러영화에 출연했으며, 81년 세이코·월드·슈퍼테니스우승자인 빈센트·반·패튼이 공연했다。감독 톰·드·시모네는 이영화로 全美호러영화협회선정 감독상을 수상했다。

「헬·나이트」는 내용이 너무 끔찍해서 여성의 단독입장을 금하는가하면 연소자에게는 보호자동반을 의무화하고 있다。그런데도 젊은이들이 극장으로 몰려들어 개봉 2주만에 미주전역에서 5백30만달러의 흥행수익을 올렸다。할리우드의 영화관계자들은 이영화의 성공을 『지금까지 공포영화에 지쳐있던 젊은이들이 새로운 공포에 빠져들기 때문』이라고 풀이。순간적인 공포가 아니라 미스터리적인 요소가 관객에게 기묘한 전율을 주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外誌】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125>

朴婉緖 作 金光培 畵

응달 ⑤

오목이는 어둠속에서 민첩하게 떠날준비를 끝냈다。그녀의 전재산을 작은 손가방속에 챙기고나니 자신의 처지가 너무 보잘것없이 느껴졌다。

문밖만 나서면 기다리고있을 고생과 최씨네식구들과는 또다른 음모를 숨기고 그녀를 농락할 세상이 두렵지 않은것도 아니었다。그럴수록 그녀를 기다리고있을 시련에 대해 기대하는바 또한 컸다。견디고 극복해야할 고생이 많을수록 인재와의 짧은사람이 끝난 허전함과 아픔을생각할 겨를도 없으리라。무엇이든지 몰두해야한다。어떤 괴로움도 실연의 고통을 견디는 것보다는 수월할것 같았다。처방은 그것밖엔 없었다。

오목이 잠을 깨서 맑은 정신이 되자마자 당장 집 나갈 결심을 할수있었던 것은 박군과 결혼하면 아무리 잘 살아도 미순이네와 주종관계를 면할수 없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뭔가 엄청난 고생에 자신을 몰두시켜보고 싶어서이기도 했다。

미순이의 숨소리는 고르고 편안했다。통금이 해제됐는지 멀리 가까이에서 도시가 눈 비비며 부시럭대는 소리가 들렸다。아직은 이른 봄이었다。동 트기까지는 아직 한참일테지。

오목이는 서두르지도 않고 꾸물대지도 않고 만반의 준비를 끝내고 미닫이를 열고 마루로 나왔다。온집안의 숨소리가 모여 한옥의 나직하고 그윽한 숨결이 되고 있었다。

처음날 팔 벌리고 그녀를 보듬어 안는듯 반겨주던 ㄷ자의 한옥이 흉흉한 별빛속에 엎드린자처럼 비현실적으로 보였다。

홀려서는 안돼。더이상 홀려서는 안돼。오목이는 처음날 그렇다 한옥에 홀려 아무런 생각없이 그 집 식구가 됐던 생각을 하며 이렇게 마음을 도사렸다。

불한 바깥공기는 바람없이도 맵싸했다。겨울이 갔다지만 봄은 아직도 멀어서 망설이고있는 애매한 계절이었다。

여장이 매우 가벼웠다。욕심을 너무 안부렸나, 짐되는게 싫어서 겨울옷을 하나도 안가져온게 잠깐 후회스러웠지만 머리맡의 사주함속의 누런 금붙이를 하나도 손 안댄 건 참 잘 한일이다 싶었다。오목이가 없어진걸 발견하자마자 그 집식구들이 기겁을 해서 제일먼저 끌러볼 게 그 상자일 건 뻔했다。

오목이는 그 상자속에 있는 물건이 어쩌면 그녀가 지니고있는 전재산보다 더 큰 돈이 될수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그걸 탐내지 않은 자신이 기특해서 그녀는 별빛속에서 혼자 으스대며 마당을 지나 중문을 열고 대문의 빗장을 땄다。

대문을 열 차례였다。오래된 한옥의 삐걱대는 문소리를 그녀는 얼마나 좋아했던가。생판 낯모르는 식구와 그렇게 오래 한식구처럼 순하게 지낼수 있었던 것도 그 삐걱하는 문소리때문이 아니었을까?

미순이네를 처음 온 날, 그런 문소리를 듣기는 생전 처음이었건만 오목이는 마치 오래간만에 귀향한 것같은 푸근함과 편안감을 맛보면서 그 소리를 음미했었다。

오목이는 그 소리로 집안 식구가 깨어나는 일이 생길까봐, 소리안나게 조금씩 열면서 그리운 그 소리를 마음으로 듣고있었다。아주 옛날, 어릴적보다 더 옛날부터 그 소리를 들어온 것같은 그립고 안온한 느낌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

겨우 몸이 빠져나갈수있을 만큼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선 그녀는 다시는 삐걱거리는 소리를 못듣겠거니싶자 비로소 영영 고향을 등지는 것같은 비애에 잠겼다。

流星의 賦 <397>

李炳注 作 李友範 畵

勇名 天下에 떨치다 ⑮

이른바 신종황제의 칙서라는 것을 받고 얼굴이 붉어지는 것은 지금의 사신이고 당시로 봐선 당연한 처사로 여겨졌다。명나라의 도움 없인 나라를 보전할 수 없는 사정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칙서엔 조건이 있었다。

우리 나라가 명나라에 대해, 신절(臣節)을 지키면 그런 조처를 하겠다는 얘기였다。임금은 안절부절 번에게 매달렸다。

설번은 의주에서 하루를 묵고 떠났다。그가 신종황제에게 제출한 복명서(復命書)는 다음과 같이 되어있다。

『신이 깊이 근심하는 바는 조선이아니고 우리 나라의 처지입니다。:먼저 요동은 경사(京師)의 팔이고, 조선은 요진(遼鎭)의 담장입니다。2백년래 복건성과 절강성이 항상 왜환(倭患)을 받아왔지만 요양과 천진은 무사했읍니다。압록강엔 비록 삼로(三路)가 있다고 하나 근서이로(近西二路)는 물이 얕고 강이 좁아 말을 타고 건널 수가 있고, 나머지 일로도 불과 이전지로(二箭之路)이니 어찌 방수(防守)할 수가 있겠읍니까。만일 왜적이 조선을 점거한다면 요양은 하루도 안침(安枕)할 수 없을 것이고, 순풍을 얻기만 하면 영평(永平)과 천진이 당장 화를 입을 것입니다。신이 사람을 보내어 평양을 초탐한 즉 왜적은 조선 부녀자들을 배필로 삼아 살림을 차리기도 하고 집과 방을 수리하기도 하고 양식을 쌓아 놓기도 하며 구주지계(久駐之計)를 하고 있고, 군기와 군시(軍市)를 찾아내어 정전지용(征戰之用)으로 한다는 바, 이것은 그들의 의도가 결코 작은데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다행

히 심유경(沈惟敬)이 와서 그들을 약 50일동안 늦추기는 했읍니다만 그런 술책 갖고는 어림도 없읍니다。왜적은 원래 교활하기 짝이 없읍니다。그들이 평양을 함락하던 날은 길을 빌어 조공(朝貢)을 갖겠다고 하더니 지금에 와선 길을 빌어 원수를 갚겠다고 하면서 돌연 만매지사(慢罵之辭)를 쓰기도 하고, 돌연 공순지어(恭順之語)를 쓰기도 하는데 신이 생각하옵건대 거짓으로 일시적인 편안을 얻어 그 병사(兵事)를 늦추려는 계책일 뿐입니다。:요컨대 설번은 명나라가 구원병을 보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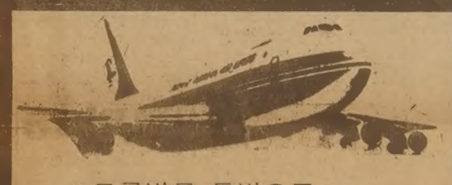
『그러므로 신은 조병정토(調兵征討)를 늦출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북인(北人)은 어로(禦虜)에 능하고 남인(南人)은 어왜(禦倭)에 능하니 왜적과 더불어 싸우는 지금 남병(南兵) 2만을 얻지 못한다면 어찌 그들의 예봉을 무찌를 수 있겠읍니까。남병을 빨리 조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복명이 있었는데도 명나라의 조정은 대규모의 구원대를 보내는 것을 주저하고 있었다。사용할 수 있는 군대는 요동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인데 요동군의 지휘자들이 쉽사리 싸울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예조판서 윤근수와 공조판서 한응인은 협강까지 가서 명나라의 장군 낙상지(駱尙志)를 만나 동정군(東征軍)이 언제쯤 발진할 것인가를 물었다。낙상지는 동정군의 규모가 13만쯤 될것이라고 하고 시기는 『내월 초쯤 될 것이오』라고 했을 뿐 구체적인 대답은 없었다。

교민의 벗
한국일보·토론토
구독은…
533 2361

제일여행사



- 모국방문 특별요금
  KAL(뉴욕 또는 LA 경유)
  CP, JAL(VANCOUVER 경유)
- 국내, 국제 항공권 일체
- 각종단체 관광요금
- 여권, VISA 수속 서비스
- 방문초청, 이민초청
  (제반수속 안내및 작성)

(B)535-2377
(R)366-0864
649A BLOOR ST. W.
유지원
신용목

공 고

금번 한인회에서는 교민 체력향상을 위해 한인친선야구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일 시 : 7월31일(토) 오전8시30분
장 소 : 코로네이션 파크 야구장
참가비 : 팀당 $60(주장회의때까지 납부)
종 목 : O.B.팀 (전원이 30세 이상으로 구성)
대표팀 (중복출전 불가)
주장회의 : 7월23일(금) 오후7시30분 한인회관
시 상 : O.대표팀 1, 2, 3등
최우수선수상, 피처상, 타격상, 미기상, 감투상
O.O.B.팀 1, 2등, 최우수선수상, 미기상, 감투상

연락처 : 하주용 ☎ : 769-5956 박재선 ☎ : 755-6434 브랜든운동구 ☎ : 598-3732
대회장 : 박인순, 고문 : 김문량, 진행위원장 : 박재선
심판위원(무순) : 정세용, 조동식, 박세영, 윤호영, 장인택, 최광준, 박재선, 조용덕
찬조금 명단 : 배이삼 $100 서춘원 $100 이희용 $100 서동원 $50 이인모 $50
이인모 $50 호세환 $50 표봉길 $50 조규혁 $50 윤홍탁 $50

주 최 : 토론토한인회체육부
후 원 : 대한체육회 캐나다지부

히팅

"oil Furnace를 Gas Furnace로 교환해 드립니다"

지난 겨울동안 oil을 사용하시는 가구주는 히팅값이 천연가스에 비해 약 30% 정도 더 소비가 됐읍니다.
다음 겨울에는 약 40% 정도로 연료비가 더 소비하게 될것입니다.
현재 캐나다 정부에서는 oil난방비를 가스로 바꾸는 경우, 그 경비의 약 절반을 보조해 주고 있읍니다.
연료비 절약을 위해 금년에는 꼭 가스로 난방을 바꾸십시요.

HOUSING CONSULTANTS LTD
1177 FINCH AVE. W. SUITE 21
☎ : 663-5155(B)
535-2804(R) 김 상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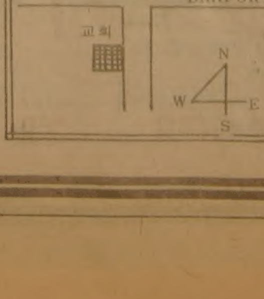
교회 예배처 이전안내

교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 금번 저희 시민교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교회 예배처를 이전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리오니 교민여러분의배전의 지도와 관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 새예배처 : Riverdale Presbyterian Church
주소 : 662 Pape Ave. Toronto (Pape 써브웨이 댄포스남쪽 건너편에 위치함)
● 이전일 : 1982년6월6일(주일)
● 예배시간 : 매주일 오후2시정각

1982년 5월 일

시민교회당회



Digital Excellence DX

지난 반세기 이상을
연구발전한 결과 가와이는
우수한성능을 자랑하는 건반 악기
회사로 비약 발전함으로
타사의 추종을 불허
하게 되었읍니다.

國調委案등 싸고與野 대립

3黨대표會談 與〃黨서再論〃 野〃眞相규명필요〃

總務회담도 違憲논난… 運營委 오늘로 미뤄

국회는 제113회 임시국회 閉會를 하루앞둔 31일 李·張부부의 거액 어음사기사건에 대한 국회 國政調査特別委 구성문제와 국무총리解任권고 결의안의 처리를위해 3黨 총무회담과 긴급 대표회담까지 열었으나 與野간의 異見을 조정하지못해 이날상오 10시로 예정했던 운영위원회가 空轉되는등 막바지진통을 겪었다。

民正黨의 李載灐대표위원과 民韓黨의 柳致松총재 국민당의 李萬燮부총재등 3黨대표는이날하오3시국회의장실에서 긴급회담을 갖고 與野가맞서있는國政調査委구성과국무총리解任권고결의안의 처리등 막바지 임시국회운영문제를 협의했으나 타결을보지못했고 두차례에걸친 총무회담도 여전한 意見差를보여 운영위는 이날 열리지못해 1일상오로 연기했다。

이에따라 이번국회 마지막날인 1일의 운영위와 본회의에서 與野간에 國調委案과 총리해임권고결의안을 싸고 커다란 논란이 벌어질것으로 보인다。

柳총재의 제의로열린 이날 3黨대표회담에서 柳총재와 李부총재는『現時局수습책은 特調委를구성、張여인사건의 眞相을 파헤치는 수밖에 없다』며『검찰조사가 미흡한 단계에서 국민은 국회의 진상규명을 바라고있으며 民心收拾을 위해 特調委구성이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李대표는『特調委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구성치않기로 黨論을 결정했기때문에 黨간부들과 다시 얘기해봐야겠다』고 難色을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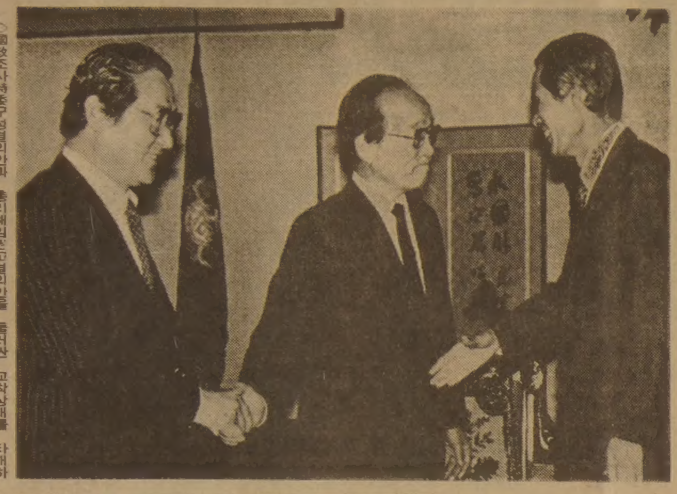
野黨측은 이날 회담에서『民正黨이、총리해임권고결의안은 헌법99條違法이라고해서 운영위에 上程조차시키지 않기로했다는데 이결의안은 운영위에서 일반의안으로 처리하는것이 당연하지 않느냐』고 촉구했고 與黨측은『黨論으로 決議案의 不上程을 결정한바는 없다』고 밝혔다.

회담이끝난후 柳총재는『모든문제를 內閣이 책임져야하지않겠느냐하는 주장을 李대표에게 전했다』고 밝히고『民正黨측사정에 진전이 있으면 쉽게 時局이 수습될것』이라고 말했다。

3黨대표회담에 이어 열린 총무회담에서도 여야는 의견의 차이를 좁히지못해 운영위소집을 1일로 연기하고 그때까지 절충을 계속키로했다。

資金行方 계속 추궁

9개 常委、李·張부부사건 質疑



◇國政조사特委구성결의안과 총리해임권고결의안을 둘러싼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3黨대표들이 31일하오 긴급대표회담을가졌으나 與野간에 異見이 팽팽히맞서 끝내 합의점을 찾지못했다。회담에앞서 악수를 나누고있는 3黨대표들。㊧로부터 柳致松民韓黨총재、李載灐民正黨대표위원、李萬燮국민당총재권한대행。

〃私債시장 왜 작은손도 못잡나〃 질의

〃明星그룹에 資金流入 안됐다〃 답변

국회는 31일하오 法司、財務、經科、文公、農水産、商工、保社、交通、建設등9개 常委를 일제히열고 李·張부부의 거액어음사기사건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정책질의를 벌였다。

이번 임시국회는 1일의本會議를 마지막으로 5일간의 會期를 끝내고 閉幕하는데 이날밤까지 계속된 각 常委에서는 民韓등 野黨의원들이 관계장관의 자진 引責사퇴를 계속 요구하면서 그동안의수사결과와 배후관계여부및 자금行方등을 계속 추궁했다。

法司委 이날 睦堯相의원(民韓)은▲검찰이 이번 사건의 主犯을 李哲熙로 바꾼이유▲라이프주택과 해태제과등 어음을 교부한 일부업체대표는 처벌않는 이유▲지금까지 私債시장의「큰손」은 커녕 작은손하나 못잡는이유▲李·張부부의 사취자금중 상당부분이 明星그룹으로 흘러들어간 사실여부등을 밝히라고 촉구했고、金仕龍의원(民正)은 이번사건으로 국민이입은 정신적상처의 치유책은 무엇인가고 물었다。

특히 與野의원들은 사파리클럽에서 열렸던 李·張부부결혼식에참석했던 인사들의 명단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대해 鄭致根법무장관은『현재까지의 수사결과 李圭光씨가 이사건사기에 이용당했으며 자신이 이용당한것을 묵인한것은 인정되지만 李·張부부의사기를 알고도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한증거는없다』고 말하고『현재까지 은행장들에게 몇10억원을 대출해주도록 배후세력으로 청탁한사람은 밝혀지지 않고있다』고 밝혔다。

그는또 私債시장에서 상당량의 돈이 明星그룹으로 흘러들어갔다는 說에관해『이번사건의 자금이 明星그룹으로 흘러간 흔적은없다』고 밝히고 前職장성이건 前職고급공무원이건 違法이 드러나면 엄벌할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또 검찰은 이번사건으로 不法하게 취득된 자금의 行方을 추적한결과 현재까지 드러난것외에 흘러들어간 흔적은 발견하지못했다고 덧붙였다。

財務委 高在清·金承穆의원(이상民韓)등은 검찰발표는 이사건을 은폐하려는 수사인상만주었다고 주장、자금의 向方과 배후여부、책임등을 추궁했다。

이들은 특히 은행의50억원 이상대출은 은행감독원의 승인을받아야되는데 재무부가 몰랐다는것은 납득이 가지않는다고 주장했다。

民韓黨의 李英駿、金文元의원은 李承潤前재무장관과 前韓銀총재 金埈成부총리의 참고인출석을 요구했다。

金의원은 李前재무장관이 李圭光씨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았고 그요청에 협조를다짐했다는 보도가 있기때문이라고 출석요구이유를 밝혔고 李의원은 金前韓銀총재재직때 금융관계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참고인으로의 출석을요구한다고 밝혔다。

經科委 金埈成부총리는『금년도 세수결함은 현재로서 예측하기힘들고 9·10월께 그전모가드러날것』이라고 말하고『그러나 세수결함이 있더라도 농촌과 서민을위한 정부지출은 절대로 줄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金부총리는 또『현재 稅制관계를 종합적으로 입안중이며 이계획을 다음국회에 상정할것』이라고 말하고『이번의 공공요금인상으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도매 0.11、소매 0.21%밖에 안된다고 강조했다。

金부총리는『정부산하기업도 공개하는 방향으로 경영을 개선하고있다』고 말하고 중소기업계열화 추진법제정용의가 없느냐는 질의에『이문제는공정거래법적용으로 해결이될것이며 현재공정거래실에서 작업을추진중』이라고 밝혔다。

金裕祥(民正) 李爽鎔(民韓) 趙鼎九(국민) 趙舜衡의원(議同)등은 경기부양책과 物價문제등에관해물었다。

保社委 鄭漢株노동부장관은『日新제강사원들의 체불임금중 임원을 제외한 사무직 사원들에 대해서도 생산직사원과같이 체불임금을 청산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文公委 李振羲문공장관은 地方駐在기자부활문제에 대해『이문제는 좀더 시행해보고 문제가 명료하게 부각될때 재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李장관은 또『언론기본법은 현단계에서 그대로시행하면서 미비된점은 운영의묘를 살려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李장관은 이어『언론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발전시키는데 가장긴요한 요소이나 국가사회에 미치는 막중한 영향으로 그만한 책임도 갖고 있다』면서『언론자유가 보다높은단계로 발전할수 있도록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9회 한국援護大賞 5명決定

本社제정 刻苦의 보람…오늘 施賞式

상이군경 李鼎九·崔外瀅、유족 李洋南씨 미망인 韓順子·중상이 배우자 李玉得씨

한국일보社가 국가와 민족을위해 몸바친 원호대상자들에게 자립의 의지와 희망을 심어주기위해 제정한「한국원호대상」제9회 수상자 5명이 28일 결정됐다。

어제의 절망을 극복하고 굳건한 새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등불이된 영광의 수상자명단은 다음과같다。

▲상이군경李鼎九씨(54·경남蔚州郡温陽面鉢里466) ▲상이군경崔外瀅씨(42·서울江東區千戶洞43의7) ▲유족李洋南씨(여·76·강원原城郡文幕面文幕里73) ▲미망인韓順子씨(52·전남咸平郡咸平邑기각리891) ▲중상이자배우자 李玉得씨(46·충남禮山郡新陽面蓮里285)

이들 수상자들은 6월1일 한국일보社 12층강당에서 베풀어지는 시상식에 참석、상금60만원과 부상을받게되며 원호의달을맞아 정부가 벌이는 각종행사에 참석하게 된다。

◇심사위원 ▲위원장 金用雨씨(전국방부장관·전대한적십자사총재) ▲위원 金亨植씨(원호처원호국장) ▲〃尹宗鉉씨(한국일보社논설주간)

全대통령、家族과모내기도와

〃農事어려움알아야〃

全斗煥 대통령은 일요일인 30일 가족과함께 京畿道와 忠北일원의 모내기현황을 살펴보고 忠北 陰城郡笙極面 東坪里담사부락에 들러 마을 공동모내기를 도왔다。

이날상오9시30분 청와대를 떠난 全대통령과 영부인 李順子 여사、큰영식、큰영애、그리고 큰영식 친구들은 담사부락에서 30여명의 주민들과함께 李창구씨의 논1천9백여평에 약1시간동안 모내기를 했다。

全대통령은 모내기를 하면서 영식과영애、그리고 영식친구들에게 모심는법을 가르쳐 주기도하며『농사의 고생스러움을 경험해야 도시인들이 식량도 절약할수 있을뿐더러 농민들의 어려움을 알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全대통령과 가족일행은 모내기를 끝낸뒤 부락주민들과 들판에서 미리준비해간 도시락을 함께들며 환담을 나눴다。

與에 黨意전달

民韓黨 黨務회의

民韓黨은 31일 상오 당무회의를열고 國政調査特委구성결의안과 국무총리 解任권고결의안의 관철등 임시국회운영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3黨대표회담을제의키로 결정하고 29일의 深夜의원총회와 이날 당무회의에서 제기된 黨의 의지를 총무회담을 통해 與黨측에 전달키로했다。

이날 당무회의에서는 또국정조사권발동등黨이제기한문제를 관철시키기위한 방안으로 당무위원등 당직자들의黨職사퇴와 常任委不參문제가 장시간 거론됐으나 우선常委에서 문제를 추궁한다는목표아래 이날常委에 참석키로 결정했다。

〃英주력航母 인빈서블 沈沒중〃

아르헨 〃엑조세誘導彈 명중〃

英、스탠리挾攻작전

【런던·부에노스아이레스30日AP·AFP=聯合】포클랜드탈환 작전을 벌이고있는 영국군은 28일(이하현지시간) 치열한 전투끝에 동포클랜드의 두요충포트다윈과 구즈 그린을 점령한데이어 동포클랜드수도 포트 스탠리북쪽 35㎞지점의 두마을을 탈환했다고 영국국방성이30일발표했다。

한편 아르헨티나군사소식통들은 영국기동함대의 주력항공모함인 인빈서블호(1만9천5백톤)가 30일 포클랜드근해에서 아르헨티나공군기로부터 엑조세미사일공격을 받고 대파、침몰중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들은 인빈서블號가 아르헨티나공군의 프랑스제 쉬페르·에탕다르기가 발사한 엑조세미사일에 명중됐으며 다른 아르헨티나공군기들로부터도 공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인빈서블號 被擊說 英國防省 부인

【런던31日AP·聯合=聯合】영국은 31일 영국기동함대의 기함인 항공모함 인빈서블호가 포클랜드근해에서 아르헨티나공군기의 공격을받고 피해를 입었다는 아르헨티나측주장을 부인했다。

〃甲板서 불길 치솟았다〃 아르헨 操縱士들

【부에노스아이레스31日AP·聯合=聯合】아르헨티나의 엑소세미사일적재 쉬페르·에탕다르해군기와『고성능폭탄』으로 무장된 A4C 스카이호크공군기들은 30일 포클랜드근해에서 영국의 항공모함 1척을 공격、그 기능을 마비시켰다고 아르헨티나軍 코뮈니케가 30일밤 발표했다。

아르헨티나軍 최고사령부는 이 코뮈니케에서 이번 공격이『전례없는 작전』이었다면서 귀환한 전투기조종사들이 이배의 갑판에서「불이나고 연기기둥」들이 치솟는것을 목격했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社会漫評

體面砲

地平線

A·토플러는 未來의 衝擊』에서 現代人은모차르트의 뛴박질하는것을 즐기고있다고 말하였다。모차르트의 作曲을 너무 빠른 템포로 듣고있는것을 풍자한 말이다。▼토플러에 의하면 미국 어른들이 하루에 신문읽는 시간은 평균 52분、1만~2만단어에 이르는데 실제로 눈에들어오는 글자는 그의 몇배라고한다。귀로 듣는 라디오방송은 하루1시간15분、FM의경우엔 또 몇배로 늘어난다。그러나 TV앞에서 몇시간씩 보내는 사람은 하루에 10만단어가 넘는 정보、광고홍수에 접하고 있는 것이다。이가운데 광고물이 약5백60개나 된다는것이고 눈에띄거나 귀에남는광고는 76개정도라고한다。우리의 경우는 어떤지、숫자적 통계는 안나와있지만 TV에 광고가 너무많아 눈살을찌푸리게하는것은 누구나 말하는사실이다。▼이번에 한국방송광고공사서 발간된 廣告정보에 실린「TV와 어린이광고」를 보면 전체광고의 20%가 어린이 광고로 각종규제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를 잘못 유도할 소지가 많음이 지적되고 있다。뭣 보다도 취학전 6세미만의 어린이들은 광고와 프로그램내용을 구분하지 못하는데 광고를 그냥 믿고 있으니 문제가 안될수없다。국민학교 1、2학년쯤 돼야 어린이의 80%가 광고와 프로그램을 구분하게되고、3、4학년이되면 광고에대한 불신이 싹터 6학년때쯤에 불신도가 가장 높다고 한다。▼어린이에 미치는 TV의 나쁜영향에 대해서도 세계적으로 논란이 많다。미국인 가족의 60%가 TV때문에 睡眠패턴을 바꿨고 55%는 TV를 자장가로 삼고있는 실정이다。TV때문에 등이 구부러진 아이들이 속출하고 TV眼病환자、自閉症어린이가 늘고 있다는 쇼킹한 조사 보고마저 있다。미국에선 어린이광고 전문심의기구까지 설치되어있다。「머리가 좋아진다는등 주관적 주장은 안된다」「프리미엄이나 콘테스트는 포함 못시킨다」「식품광고에는 내용과 함량、안전성에 대한 주의가있어야 한다」는등 규제가 엄격하다。▼우리나라에서도 어린이를 직접 광고대상으로 하거나、광고물의 주역으로 등장시키는일、공상만화를 소재로한 표현、사행심이나 구매를 자극하는일은 규제된다。하나 철저한것 같지가 않다。광고에 대한 불신이 어린이가 자랄때 사회에대한 불신이될까 걱정이라고들 한다。어린이 광고에 대한 자제와 규제가 절실하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음하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SunLife OF CANADA
김신명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건물
• R·R·S·P
922－3111 (B)
793－5531 (R)
791－8196 (R)

YOUNG SOOK'S 보석상
o각종보석
o다이야몬드 품질보장
o최저가격
o뉴 디자인
o보석개조 교환매매
o보증서
215 Yonge St. 민영숙
(B)368-7961 (R)690-5217

축 일간지발행 1주년기념
북미의 25시를 지키는 파수대 토론토 한국일보
민중의 목탁으로써 교민을위해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금성사 토론토지사
45 RICHMOND ST. W. SUITE 1002 ☎ : 863－0049

結婚式 참석名單 곧 알려주겠다

李·張 부부事件 法司·財務·經科委 질의·답변 <要旨>

國會錄音

財務委

▲高在淸의원(民韓) 의사진행발언 =먼저 李·張부부사건은 國基를 흔들어 놓을 만큼 중요한사건이다. 이의 규명을 위해 국회를 열었는데 검찰은 어떠한 시나리오를 정해놓고 국민을 우롱하는데 始終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여러번 반복하면서 정치권력의 개입여부나 정치자금의 流用說부분등에 대해 은폐하려고 했고 그것도 모자라 사건을 뒤바꾸어 놓기도 했다.

더이상 검찰의발표는 믿을 수가 없게 됐다. 재무장관도 그동안 재무위, 본회의등에서 여러번 답변을 했는데 어떤증언을했는지 잠시 되돌아보자. 재무장관은 사건경위에대해 시종모른다고 일관해 답변하면서 모든책임을 은행장에게 돌렸다. 그렇다면 감독주무장관으로서 막대한 은행대출을 몰랐다는 얘기가 아닌가. 동시에 私債시장에도 엄청난자금이 나돌고 있는데도 감독기능을 발휘하지못하고 放置하지 않았는가.

분명히 재무장관은 직무를 유기했거나 아니면 조작한답변을 한것이다. 民韓黨는 野圈에서는 재무장관의 불신임을 제안했으나 불행히도 부결됐다.

그 재무장관이 이자리에서 예를들어 수백수천억원의 무담보대출경위나 정치자금의 流用說과 권력개입의 여부등 새로운 사실을 진실되게 증언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는 더 이상의 증언을 들을필요가 없다.

장관은 29일 본회의에서 불신임이 부결됐다고해 신임을 얻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數의 힘으로 부결됐을 뿐이다. 主務장관으로서 어찌 이자리에 나와 있을수 있는가. 改閣만 하더라도 설득력을 주지못하고 있다. 民正黨은 권력구조자체를 바꾸면서도 행정부가 바꾸지 못하는 것은 사건을 애당초 은폐하려는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책임없는 장관이 물러났는데도 책임있는 장관은 남아있는 이유가 어디있는가. 더구나 사건을 날조 보고한 검찰총장은 승진까지 했는데, 도대체 이러한 改閣이 우리 憲政史에 언제 있었는가. 새로운 사실과 진실을 밝히지 않는한 더이상 이회의에 임할 필요가 없다.

▲金承穆의원(民韓) 의사진행발언 =이번 사건에서 정부는 국회보고나 답변을통해 사건을 은폐하려는 인상만남겼지 국민의 의혹을 풀지 못했다. 그동안 여러 얘기가 있었으나 자금의 向方, 배후여부, 정부의 책임등 본질적인 문제에대해 답이 나오지않았다. 어느 한대목 국민의눈에는 석연하게 보이지않는다. 법무장관은 李哲熙씨가 이사건을주도한 계획적인 사기극으로 몰았다.

民韓黨이 特調委를 구성하자는것은 국회기능을 발휘하자는 것이다. 지금 재무위에서 장관의 보고가 있다하더라도 검찰발표의 범주를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다. 만일 李哲熙가 치밀하게 범죄를했다면 李의 記帳은 어디에 있는가. 50억원이상의 대출업자는 감독원에 반드시 보고토록 돼있는데, 그래도 재무부는 이사건을 몰랐다고해 기할수 있는가.

그동안 재무위에서 이사건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단1건만이 제출됐을 뿐이다. 그것도 朝銀、商銀의 日新、共榮의 與信잔액에 불과한것 뿐이다. 이러고서도 국민의 알권리를 대변할 수 있다고 보는가. 자료제출문제부터 따져보자.

▲朴泰俊위원장 =우선 교체의원 명분이있으니 인사나 받고 의사진행을 하자. (3시45분 정회)

(하오4시13분 속개)

▲朴泰俊위원장 =재무장관은 진실된 내용을 성의있게 보고해주기바란다.

▲羅雄培재무장관보고 =지금까지 말씀드린것은 모두진실된것이며 지금도 진실된자세로 일하고있다. 취임이래 實物경제의 不實한부분을 補完하면서 제도금융을 정착시킨다는 굳은의지를 가지고일해왔다.

이과정에서 경악을 금할수 없는 거액어음사건이 발생했고 국민경제에 미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전력을다했다.

연쇄不渡가 몰고올 일대국민경제혼란을 막아야했고 日新·共榮의 근로자생계대책에 신경을 써야했고 선의의 眞性어음소지 피해자들의 구제책을 강구해야 했다.

동시에 해외현장에 나가있는 共榮토건의 5천여명의 근로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독려해야했고 상대국에 신뢰를 주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이시점은 마무리가 아니라 새로이 시작한다는 자세로 遠因과 近因을 철저히 분석하고 재발의 풍토를 근절시키며 병리의 근절에 사명감을 갖고 기하고있다. 엄청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임기응변이나 미봉적자세가 아니라 정면으로 事案에 대결하며 일관성있고 꾸준한 자세로 노력하고있다.

이자리에서 거액대출의 경위를 밝힌다면 현행 각종 금융관계법이나 內規등은 「은행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지 상부기관의 사전승인이나 사후보고등은 일체 없었다. 주거래 은행과의 내신관리에 있어서도 정부가 사전통제는 할수없는것이다.

▲金台植의원(民韓) 의사진행 발언 =생산적인 국회를 운영해야한다는 생각에서 어려운 정치적 상황을 외면하면서까지 이자리에 임하고있다. 그러나, 장관의 보고는 그 생산국회를 기대할수없는 그러한 보고를 보이고 있다.

최소한 張여인사건의 結著解之의 입장에있는 장관이라면 겸허하고 솔직한 자세로 임해야 옳았다.

장관의보고는 엄청난 문제의 핵심을 호도하고 있다. 관행적으로만도 10억원선의 대출을 넘어설 경우 정부당국에 보고를 하게돼 있는데 張여인은 수백, 수천억, 그것도 無擔保대출이 넘는가. 韓銀은 자금의 흐름을 체크하고 재무부理財局은 그흐름을 관장하고 있지 않는가. 사건을 수습하자는 장관의 자세가 이정도인가.

실정법상보다 무거운것이 정치적·도의적 책임이라는것을 장관은 알아야 한다.

▲金文元의원(民韓) 의사진행발언 =張여인사건이 前代未聞이었듯이 검찰의 수사발표도 전대미문이었다. 제도적으론 羅재무가 장관일지 모르나 국민이 따르는 정신적장관은 못된다는 것을 깊이 알아야 한다.

民韓黨의원들의 충정을 이해하고 성실한 자세로 국민을 의식한 답변을 하기바란다. 李圭光씨가 前 재무장관을 찾아가서 협조를 요청했고 그요청에 협조를 다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우리는 그전직장관을 시기적으로 미뤄 李承潤전재무장관으로 판단한다. 동시에 지난2월 大和개발국장이었던 權모씨가 재무부에 들어와서 어느간부를 만났고 羅장관도 만났다는 수사보고가 있다. 그 僞證없이 성실히 밝히라. 그리고 李前재무장관을 참고인으로 소환할것을 정식으로 동의한다.

▲朴泰俊위원장 =보도사실의 진위를 모르며 수사가 진행중인지의 與否를 아직 모른다. 더구나 그러한 문제라면 우리의 소관사항이 아닌 만큼 참고인으로의 출석여부는 양해있기 바란다.

▲李敏錫의원(民正) =金의원은 그런내용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李前재무장관의 참고인출석요구를 動議했다. 사실의 眞相여부는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것이고 우선은 그문제를 재무와法司委에서 다룰성격인가를 먼저 생각해봐야한다.

이문제를 가지고 옥신각신해 단하루뿐인 귀중한 常委활동을 헛되게 보낼수는 없다. 정회를해서 수습책을 마련하자.

▲李英駿의원(民韓) =李前재무장관뿐 아니라 당시에 한은총재였던 金埈成부총리의 참고인 출석요구도 정식으로 동의한다.

▲朴泰俊위원장 =원만한회의운영을 위해 정회를 하자 (4시55분停會).

◇31일 法司委에서 의원들의 질의는 李·張사건의 권력과의 결탁여부, 主犯을 바꾼 이유등에 초점이 모아졌다. 停會중 鄭致根법무장관 (중앙) 이 간부들과 답변준비를 하고있다.

◇「張여인국회」 폐회하루를 앞두고 열린 각常任委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거나 질의를 경청하고 있는 각료들. 위로부터 金埈成부총리, 羅雄培재무, 金東輝상공, 金正禮보사, 鄭漢植노동, 李振羲 문공부장관.

法司委

通貨증발·外資도입 문제없는가 (질의)

私債시장 진짜 누가 움직였는지 (질의)

「太陽」등은 순수被害者 背任없다 (답변)

재발안되게 遠因·近因 제거할터 (답변)

▲陸鍾相의원(民韓) 질의 =李·張부부 사기사건에대한 검찰발표는 시간이 지남에따라 내용이 바뀌고 배후세력의작용과 자금사용처등의 조사에 의문이많다. 이는 自意에 의한것이냐 他意에 의한 것이냐. 검찰수사내용이나 발표가 의심을 풀어주지못하고 의문만 더크게 하고 있음으로 검찰총장직에 있던 장관이 책임져야할 일이다. 본회의에서 해임안이 부결되었지만 자진해서 勇退할 용의는 없는지. 검찰은 고위층의 지시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는데 검찰이 어찌 고위층의 지시로만 수사를 하는가.

수사출발부터 의혹과 문제점을 던져주었다. 거액어음사기를 엉뚱하게 외국환관리법위반혐의로만 立件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라이프주택, 해태제과등도 많은 어음을 李·張부부에게 교부하고 돈을 대여받았는데 共榮土建과 日新제강만 처벌하고 나머지 기업책임자들은 刑事처벌을 안한 이유는.

관련기업은 어음을 발행해서 선의의 제3자들만 피해를 보았으므로 기업체대표들은 업무상 背任罪뿐아니라 李·張부부처럼 사기죄를 적용했어야 하지않았는가.

李圭光씨는 이사건과 관련, 배후세력 노릇을 한적이 없다고하나 장관보고에서도 나타난것처럼 평소에 자기신분을 과시한적이 많은데 은행장과 4번씩이나 만나면서 압력 청탁을안했다는것인가.

은행장들이 어음지급을 무제한 발행한것은 共榮土建등이 不渡를 내지않을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때문이었다는데 은행장이 천치바보가 아닌이상 기대감만으로 그런일을 할수있는가.

이런사실만으로도 누군가가 배후세력으로 작용한게 틀림없다.

李·張부부소비자금중 상당한 부분이 明星그룹에 흘러들어 갔다고 들리고 明星에 들어간것은 정치헌금이 작용했다는데 이에대해 소상히 밝히라.

李·張부부가 주최한 파티 횟수, 참석한 사람과 사파리클럽 결혼식에 참석한 인사와 누구의 초청이었는지 소상히 밝히라. 느닷없이 국회 본회의보고에서 이사건 主役을 李哲熙라고 밝힌 저의는 무엇인지.

배후관계나 정치자금유입 진상을 숨기기 위한 것은 아닌지.

李·張부부와 거래한 私債시장의 큰손이 前職고위공무원, 전직장성, 회사를 부도내고 자신만 살아남은 惡德기업체대표들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의도적으로 舊政治人들이라고 흘리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지금까지 큰손은커녕 작은손하나 못잡고있는 이유는.

이사건과관련, 기업가운데 共榮토건과 日新제강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을 문책하지 않는 것은 고사하고 금융특혜까지 해주고있는데 이점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검찰은 수사를 해야할게 아닌가.

李·張부부가 근 1년이되도록 증권투자에의해 12억원의 이익을 본데 반해 3백87억원이나 손해를 본것으로돼 있는데 음흉하고 치부를 위해서는 수단과방법을 안가린 이들이 엄청난손해를 본것은 상식적·경험상·사회통념상 믿을수 있겠는가.

▲金任龍의원(民正) =李·張부부사건은 국가경제질서를 무시한 사기행각으로근면하고 정직한 사람이 대우를 받아야 하는 일반인들의 상식에 찬물을 끼얹었고 전국민들이 허탈감을 느끼게했다.

법무장관은 이번 사건에서 국민들이 받은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 그 방안을 밝히라. 검찰은 이번 사건을 4월29일 처음 알았다고 했는데 81년 2월부터 國政을 뒤흔들고 있었던 이 사건을 왜 일찍 알지 못했는가.

정보조직이 미비하다고 해서 국민이 납득할수 없을 것이다. 검찰은 모든 사건의 발생시 신속히 정보를 포착한다면 사태가 크게 악화되기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법무장관은 사건이 터진후의 수습보다는 사건의 확대를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는가. 국세청은 81년부터 私債업자들의포탈세금을 징수했다고 발표했는데 李·張부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李·張부부가 사채놀이를 하면서 세금을 포탈했는지 여부에 대해 검찰이 알아보았는가.

또 국세청이 李씨부부의 사채놀이를 알면서도 세금을 징수치않은 직무유기의 사실에 대해서도 검찰은 조사한바가 있는가. 李씨부부의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은 3백87억원, 예금유치용으로 사채업자들에게 지불한 金利가 81억원이라고 한다. 이금액에 대한 이익을 취득한자들에게 세금을 물게한사실이있는가.

▲鄭致根법무장관답변 =이번사건의 수사책임자로서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본인이 책임질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임명권자에게 책임질 각오는 돼있다. 검찰이 이사건을 수사하면서 처음부터 사기죄에대해 수사하지 않겠다고 한적은없다. 사건이 방대해 우선 외국환관리법위반을 적용했을 뿐이다.

太陽、라이프주택、해태등의 업체에 대해서는 순수한 사기의 피해자로인정되며 이들 회사에 대해 背任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견질어음유통을 예견한 기업주들을 李·張부부와 함께 사기죄의 共犯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이들 기업주들이 共犯으로사기죄를 범하거나 他人으로하여금 사기토록 사주、또는방조를 해야하는데 이사건에서 기업체임직원들은 李·張부부의 교묘한 사기행각의 피해일뿐 共犯으로 볼수는 없기 때문이다.

李·張부부의 결혼식장에 참석한 사람들의 명단은 추후에 陸鍾相의원에게 주겠으니 양해해달라. (이에 의원들이 명단을 밝히라고요구, 옥신각신하다 하오 4시30분 停會)

그동안 검찰발표에서는 主犯과 從犯을 밝힌적이없다. 두사람의 共謀에의한 범행이라고만 밝혔었다. 수사가 계속됨에따라 법률적인 면에서는 공범관계지만 범죄주동적 평가에서 李哲熙가 주범이라는 사실을 밝혀낸것이다.

배후를 호도하거나 그 이외의 다른 저의가 있는것이 아니다. 사채업자에 대한 수사는 계속하고 있으나 假名을 썼기때문에 추적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달라.

전직장성이건 고급공무원이건 드러나는때는 법에따라 엄중처벌하겠다.

李圭光이와 林在璓전조흥은행장과의 관계는 엄중수사했으나 나타난것이 없다. 李圭光이를 구속한 마당에 李가 林에게 압력이나 청탁한 사실이 있다면 숨길이유가 없다.

李가 3억2천만원짜리 가옥의 등기권리증을 받은것은 자신이 사장으로있는 광업진흥공사의 직무와는 관계가없어개인수회죄가되지않는다.

1억원을 받은것도 부조금 명목일뿐 알선에 관계돼 받은것은 아닌것으로 밝혀졌다. 알선수재죄로 李를 구속하면서 이부분만을 뺀이유는 없다.

관련기업에 대한 금융특혜여부는 재무부에 관련된 사항이지만 실정법에 어긋난다면 처벌하겠다. 검찰이 특혜를 줄 이유는 없다.

증권투자 손실액이 3백87억원이라는데 대해서는 수사초기에 검찰에서도 납득이 안가 정밀수사를 한 결과 밝혀진 사실이다.

이사건을 탐지하지 못한것은 사건관련자인 李哲熙부부와 관련기업체들이 은밀히행동했기때문이다. 앞으로 경보수사활동을 강화하여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다.

국세청이나 은행감독원에서 脫稅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직무유기한 사실은 발견치 못했다.

이번 사건수사에 국세청직원도 합동으로 참가했으며 검찰은 수사결과를 그때그때 국세청에 통고했다.

현재 국세청에서 脫稅부분에 대해 추징조치를 추진중이다.

이번사건의 수사단서는 정보에 의한것이며 太陽금속에서 진정이 있었지만 그것은 수사가 착수된 이후였다.

李哲熙·張玲子부부를 외환관리법위반으로 구속한것은 이들을 연행하여 장기간 조사하기위해 우선 인정되는 죄를 적용한 것이며 처음부터 사기죄가 인정되는데도 사기죄로 입건치 않으려고했던것은 아니다.

그당시에도 사기에대한 수사는 계속하고 있었다.

이번 사건은 사안자체가중요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검찰에서 자진수사한것이다.

明星그룹에 이사건으로 취득된자금이 유입된것은없다.

검찰은 이번사건으로 취득된 자금의행방을 추적해온결과 현재까지밝혀진 소비처외에 다른곳에 흘러간 흔적을 찾지못했다.

李·張부부 帳簿 어디에 있나 (질의)

"詐欺罪 수사않는다" 한적없어 (답변)

▲李致浩의원(民正) 질의 =이번사건의 수사단서가 정보였다고 했는데 그 정보의 내용과 입수방법, 그리고 太陽금속의 진정내용을 밝혀라. 국내에서의 정보교환체제가 되어 있는가.

최근 검찰에서 중간발표, 종합발표등 발표가많은데 혐의사실은 공판에 회부되기전에는 발표할수 없다고되어있다.

검찰이 피의사실을 起訴전에 마구 발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중간발표가 국민의 들끓는여론 때문이었는지 자발적으로 한것인지에대해서도 말해달라.

經科委

▲金裕祥의원(民正) 질의 =이번5·18경기활성화 대책이 물가에 얼마만큼 작용할것인가. 張여인 사건으로 인해 풀려나갈 자금과 이번 경기활성화 대책으로 풀려나갈 자금이 물가에 미칠 영향은. 이번 公共요금인상도 물가인상 자극요인이라고 보는데 어떠한가.

또 市中의 浮動자금과 유휴자금이 주택경기에 투여될때 자칫 부동산투기를 조장, 무주택자들이 더 어렵게 되지않겠는가.

張여인사건이 일반국민에게 큰 좌절감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기업인의 의욕이 경제난국타개의 요체인데 張여인사건으로 기업인이 허탈감에 빠져있고 시민들은 성실한 노력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등 악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李奭鎔의원(民韓) =정부의 指數산출방법대로하면 도매물가는 2.8%、소비자물가는 2.9%로 그증가율이 둔화돼 있으니까 물가안정이란 면에 수긍은가나 경기의전반적인회복이문제이다.

경제가 안정되려면 어떻게해야되는지 참다운 안정에대한 副總理의 소신은.

宜寧사건에 뒤이은 이번張여인사건으로 인해 국제적인 신뢰도가 실추됐다. 외국에 투영된 한국의 경제적 신뢰도는 어떠한가.

막대한 外債가 있어야 국내적사업은 물론이고 元利金 상환에 충당할수 있다고 보는데 추가로 연말까지 도입될 借款은 얼마이며 도입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가.

메아리

6月의 소리

그렇게 향기롭게 그리고 화사하게피어났던 아카시아꽃이 함박눈처럼 지고있다. 탐스럽게 피었던 모란꽃은 제풀에 뚝뚝 지고 이제 한창인 작약도 미구에 스러지고나면 절계는 어김없는 여름으로 접어든다.

오늘 6월의 소리를 듣게된다. 그와더불어 꽃철과 신록의계절이 가시고 바야흐로 녹음을 연상하며 벌써 한해의 절반이 흘러간 세월의 덧없음을 실감하게 마련이다.

이달에는 망종과 하지가 들어 농촌에서는 유수와 같은 세월의 흐름에 아랑곳할 겨를이 도시 없는 때이기도하다.

무논의 가를 다루어 모내기 하는데 일손이 모자라고 때를 같이하여 보리도 걷어 들여서 타작을 해야하니 꼭두새벽부터 밤늦도록 눈코 뜰 사이가 없다.

요즘은 영농이 기계화되어 소를 부리는 대신 경운기를 굴리고 모심기나 타작도 기계로 해가는 추세에 있어 지난날처럼 타작마당에서 부르던 노동요나 모심기때의 모심기 노래와 같은 민요는 듣기 어렵게 되었다.

모두가 탈탈거리는 엔진의 소음만 들으면서 묵묵히 일손을 놀리고 있어서 무미건조 하기 이를데 없다.

거기다가 힘깨나 쓸 젊은층들은 거의 도시로 빠져나가 농사일은 노년층이나 부녀자들의 손으로 가꾸어 지고 있으니 지금 한창 농번기이면서도 농촌풍경은 어딘가 쇠잔한 그림자가 짙[?]다.

그러나 자연은 신록의 신선함이 물씬한 녹음의 짙푸르름으로 탈바꿈하여 힘찬 생성과 무성[?]을위한 성장의 입김으로 가득하다.

올따라 더위와 장마가 일찍 올것이란는것이 장기 예보이고 보면 여러가지 수인성 질환과 뇌염등 계절적 유행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책에 마음을 써야 하는 것도 이달의 일일 것이다.

기온의 상승으로 인한 마음가짐의 해이와 옥외생활의 빈번함에서 오는 절제심을 잊는일 없도록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몸례에도 이르는 마음가짐이 있었으면 한다.

그 아니라도 더위의 기승으로 높아진 불쾌지수 속에서 심기만이나마 슬기롭고 명랑하게 지니며 살수있는 생활의 지혜와 절도가 아쉬운 철이 된것이다.

축

일간지 발행 1주년기념

○교민사회의 목탁인 토론토 한국일보

○정의를 위해 불굴의 투지로 더욱 힘차게

뻗어나가길 하나님께 기원합니다.

삼성전자 토론토지사

40 WYNFORD DR. # 211 ☎ 447—2419

海外여성

수줍은 성품에도 政治엔 積極的

佛퍼스트·레이디 다니엘·미테랑女史

"모든일을 展示보다 誠心껏 處理 노력"

6월4일 7國頂上會談 준비로 분주

지극히 平凡한女性

○…프랑스의 퍼스트·레이디 다니엘·미테랑女史는 조용하고 겸손하며 수줍음을 많이 타는 보통때와는 달리 정치문제에 관해서만은 적극적이고 활동적이다.

다니엘女史는 옷차림이나 머리모양, 그리고 소비습관에 이르기까지 특별한 화제를 일으키지 않는 지극히 평범한 여성이다.

오는 6월4일 베르사유궁에서 열리는 7개국 경제정상회담 준비로 눈코뜰새없이 바쁜 다니엘女史는 최근 한 프랑스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illegible] 매사를 성실히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라고 밝혔다.

[illegible] 정계에 투신한지 몇십년이 [illegible] 남편과의 생활가운데 [illegible] 매스컴과의 인 [illegible] 그녀는 관저인엘리제궁보다는로데르담근처에 있는 사저아파트에 머물기를 좋아하고, 한가한 날엔 대통령과함께 라틴광장이곳저곳을 거닐거나 값싼 목로주점에서 한잔 술로 휴식을 취하기도한다.

호리호리한 몸매에 피부가 가무잡잡한 편인 그녀는 화장을 전혀 하지않고 사치와도 거리가멀지만 57세라는연령에 잘 어울리도록 옷을 잘 입는다.

프랑스 大統領가족들은 많은 다른 나라들의 대통령가족과는 달리 매스컴에 자주 오르내리지 않는다. 두아들인 쟝·크리스토퍼와 길버트를 기억하는 프랑스국민들이 별로 많지 않은것은 물론이고 영부인도 다니엘이란이름보다는 마담·미테랑이라는 공식명칭으로 불려지고 있다.

다니엘女史는 남편의 선거운동에도 참여하지 않으며 대통령과 관련된 일에 절대 언급하지 않는데 미테랑대통령역시 아내가 하는 일에 간섭하지 않는다.

다니엘女史는 지금까지 한번도 직장을 갖지 않았지만 여성들의 사회진출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있다. 『프랑스 여성들은 높은 교육수준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가의최고위직에 여성이 등용되는것을 방해하는 차별대우가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니엘女史는 남편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며 프랑스 좌익단체인 『엘살바도르및 라틴 아메리카 단결기구』의 회원으로 정치활동을 하고있다. 자유와 人權보호를 위해서라면 어느지역을 막론하고, 또 어떤 비난도 감수할만큼 적극적인 정치적 활동을 펴는 그지만 부끄럼이 많은 천성때문에 대중앞에 나서기를 꺼리고 있다.

◇바구니를 들고 장보러가는 프랑스의 퍼스트·레이디。사치를 싫어하지만 옷을 센스있게 입을줄 안다。

私生活공개…딸과찍은 寫眞 가장사랑

앵커·우먼 월터즈女史

삶을그린 室內장식

【紐】 ○…미국의 대표적인 앵커·우먼인 바버러·월터즈(50)가 최근 처음으로 그의 사생활을 레이디즈·홈·저널誌에 화보로 공개했다.

딸 재클린(13)、愛犬 검은색 푸들과함께 카네기홀 부근 4개의 방이 달린 고급아파트에 사는 그는 미국사회의 화제를 이끄는 화려한 이미지와는 달리 검소하게 산다。

실내장식은 그녀의 삶의 기록들인 사다트, 베긴, 카터, 모세, 다얀, 카스트로, 아라파트등 세계 거물들과 인터뷰하면서 적었던 취재메모들을 액자에 끼워서 진열했고, 나이트클럽경영자인 아버지가 좋아했던 쇼무대 사진들과 딸 재클린이 학교에서 그린 그림, 글짓기들을 역시 액자에 끼워놓아 놓았다.

그가 가장사랑하는 장식물은 딸과 함께 찍은 사진액자。그는 이사진이 자매처럼 다정하게 살고 있는 모녀사이를 가장 잘 표현해준 사진이라고 강조한다。

TV시청자들에게는 값비싼 드레스와 전속미용사들이 매만진 세련된 헤어스타일로 요염하고 이지적이며 차가운 모습을보여주는 그녀지만 집에 돌아오면 청바지에 스웨터 차림으로 요리도 하고 딸과 함께 테이블보를 짜어서 의자덮개를 만드는등 평범한 엄마로서 지낸다.

이런 여유있는 사생활은 NBC TV의 「투데이쇼」나 ABC TV의 뉴스쇼에서 앵커맨으로 일할때는 불가능했던 일이다. 그는 최근 ABC뉴스쇼진행에서 물러나고 유명인사들의 인터뷰만 맡고있다.

『나는 요즘처럼 가장완벽하게 「나만의 방」을 갖고있다는 기쁨과 확신에 차 있었던적이 없어요. 남자 앵커맨들과 치열하게 경쟁했던 지난날들은 뒤돌아보기에도 무섭고비극적인기억들이지요. 나는 TV앞에 서는것보다 나의 방 푹신한 침대에 파묻혀 음악을 듣고잡지를보면서 딸과지내는것이더좋아요』

그는두번 이혼한 경력을 갖고있으며 뉴스쇼에서 물러난후에도 변함없는 인기를 누리고있다.

◇딸 재클린과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바버러 월터즈。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사진이다。

日赤軍派 여두목 支持못얻자 「脫테러行爲」선언

◇日本赤軍派의 여두목 시게노부·후사꼬。

○…악명높은 日本赤軍派의 여두목 시게노부·후사꼬(重信房子)가 최근『赤軍派와 나는 이제 더이상 테러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다。올해 36세인 시게노부·후사꼬는 日本共同通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테러작전을 포기하는 것은 적군파의 理念이 일반의 지지를 얻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솔직하게 시인하고『현재 이스라엘 감옥에 사형선고를 받고 갇혀 있는「同志」오까모또·고조를 석방하기 위해 무력을 행사할 계획도 이젠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게노부·후사꼬가 이끄는 日本적군파는 팔레스타인 게릴라들과의 협조아래 72년 이스라엘 공항에서 26명을 사살하고 72명을 부상시킨 대학살극을 벌였고, 싱가포르 연안 대정유소 폭파, 헤이그주재 프랑스대사관 점령등 극렬한 파괴행위를 일삼았었다。

시게노부·후사꼬는 현재 국제경찰(인터폴)의 체포대상으로 수배받고 있다。이 소식이 전해지자 日本경찰은『적군파는 국민의 혐오감을 일으키고 증오의 대상이 되고있으며 이제는 그 숫자도 크게 줄어 불과 20명도 남지 않았다』고 밝혀 적군파의 몰락을 시사했다。

英 아트킨스博士

박테리아利用…값싼纖維 곧 생산단계

각종織物 쉽게生産

○…박테리아를 이용하여 각종織物을 염가로 量産하게 될날이 멀지않은것으로 보인다。英國에딘버러대학의 에드워드·아트킨스박사는《박테리아들은 바이러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위해 纖維狀의 蔗糖分子로 자신을 둘러싸고 있으며 특히 크레브시에라는 박테리아는 아름답고 촉감이 조금씩 다른 87종의 纖維를 만들어낸다』고 밝히고 박테리아를 대규모로 증식시켜 각종織物을 생산하는데는 특별한 기술의 개발이나 遺傳子工學의 기술을 원용할 필요조차 없다고 말했다。

박테리아를 이용한 織物생산의 비용은 폴리에스터등 合成纖維나 綿織物의 경우보다 오히려 저렴하기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박테리아纖維産業이 纖維業界의 主役이될 것이라고 그는전망하고있다。

海外토픽

英軍 슈퍼맨아니다

★아르헨新聞 兵士격려

포클랜드주둔 아르헨티나군을 위해 발행되는 한 아르헨티나신문은 병사들에게 영국군이 결코 「슈퍼맨」이 아니라면서 영국군들을 『쏘아 죽이라』고 촉구.

라·가세타·아르헨티나라는 이름의 이신문은 『용감한 군인은 결코 상대방을 과소평가하지 않으나 그렇다고해서 과대평가하는법도 없다』면서 『영국특공대가 우수한 군대임에는 틀림없으나 그들은 결코 슈퍼맨이아니다』라고 아르헨티나병사들을격려。이신문은 이어 『여러분이 왜 포클랜드에 와 있는지는 여러분 자신이 더 잘알것』이라고 말한뒤 『적군을 쏘아 죽이라』고 촉구。【부에노스아이레스=AP】

男女둘씩 4쌍둥이

★日主婦、배란촉진제를 복용해온 일본의 36세된 한주부가 최근 4쌍둥이를분만했다고일본서부오까야마의한병원이발표。병원측은 임산부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채 이여인이 4년전에도 비슷한 임신촉진제를 복용한뒤 여자아이1명을 분만한 적이있다고 밝히면서 이번에 낳은 남녀 각각 2명씩의 네쌍둥이와 산모는 모두 건강하다고 덧붙였다。【오까야마=AP】

선수精液도 받아

★科學者精액예치 精子銀

현재 지능지수가 높은 과학자들과 노벨상 수상자들의 정액만을 받고있는 캘리포니아의 정자은행은 앞으로 운동선수의 정액을 받을 계획이라고。

이은행의 설립자인 로버트·그레엄씨는 현재 노벨상 수상자들을 포함한 20여과학자의 정액을 예치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보다 많은 유익한 시민들을 생산하기 위해』운동선수들의 정액을 받기로 했다는것。【에스콘디도(美캘리포니아州)=AP】

나의 이력서

金蘇東 (金蘇東) 58

김스 프러덕션

첫 作品으로 「돈」을選定 脚色·演出에 製作까지

1957년 李哲爀과 콤비로 「왕자호동과 낙랑공주」를 연출했다。東光기업의 趙寧九사장이 설립한 동광영화사 작품이다。극단「新協」의 연기자를 고구려편、「民劇」의 연기자를 낙랑편으로 나누어 배경한 점이 구성상의 특징이라 할수있다。연출자로서 잊을 수 없는 것은 사극속에 현대의식을 심으려 했던 점과 당시 한국영화로선 엄두도 못냈던 대규모 세팅과 전쟁 모브신의 시도다。

이 영화는 당시 서울장안을 휩쓴 정비석의 인기소설을 영화화한「自由夫人」(한형모감독)과 같은 시기에 서울에서 개봉되었다。당시 黃山德교수와 鄭飛石 사이에는 소설「자유부인」을 놓고 매일같이 일간신문에 그 시비가 논쟁되던 때다。때문에 영화「자유부인」의 선전과 인기는 대단했다。이러한 와중에 「왕자호동과 낙랑공주」가 개봉된 셈이다。그러나 그 인기나 성과는 양편이 다 백중했다。

그후「청춘쌍곡선」(한형모)、「왕자호동」(한형모)、「나는 너를 싫어한다」(권영순)、「내가 낳은 검둥이」(김한일)、「제2의 생명」(이원경)、「모란등」(백호빈) 등 많은 시나리오와 희곡을 썼다。

1958년·咸大勳과 金光燮의 도움으로「김스프러덕션」을 설립했다。제1회작품이 영화「돈」이다。

손기현(故)의 희곡을 각색、제작、연출했다。金勝鎬(故)가 중후한 영화연기자로 우리영화계에 군림하게된 제1탄이기도 하다。당시 이영화는 수작으로 평가되어 평론가협회상도 받았고 흥행실적도 매우 좋았다。문제작으로 해외영화제출품을 둘러싸고 도하 일간신문에서 시비가 분분했다。

리얼리즘을 추구한 이 작품이 한국의 농촌을 너무 어둡게 표현했다는 것이다。편협된 사고라고 생각된다。호평하는 신문과 부정하는 신문이 서로 반대이론을 폈다。이 영화보다 훨씬 어둡게 그린 이태리의 네오리얼리즘영화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한국의 여론만이 이리 분분한지 그저 서글프기만했다。

UN대사 林炳稷씨가 일시 귀국해서 「돈」을 국제극장에서 보고는 만화가 金龍煥을 나에게 보냈다。그는 「돈」에 큰 감명을 받았다며 나와 꼭 만나자고했다。반도호텔에서 그와 만났다。『미국에서 본 이태리영화에 비해 조금도 손색이 없는 이 훌륭한 영화를 왜 해외영화제에 내보내지 않느냐』는 것이다。그후 임병직대사가 문교부당국에 한의까지했으나 당국의 근시안적 견해는 이 영화를 그대로 내동댕이 쳐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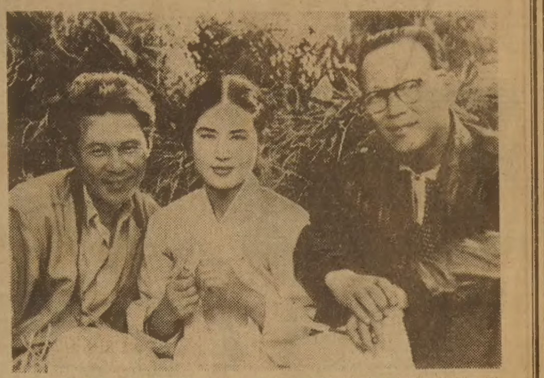
59년10월 필리핀에서 열린 아시아영화제에 참석했다。아시아재단의 趙東宰씨、이병일、오영진과함께한국영화인들을 인솔하고 마닐라로 떠났다。

여배우 김유희、이빈화、안나영등이 참석했다。피날레를 장식하는 각국여배우들의 춤은 기량을 겨루는 밤에 안나영의 노래「이스탐불」과 이빈화의고전무용은 영화제를 아름답게수놓았고한국의 이미지를 높이 부각시켰다。

동남아 10개국 어느나라의 연예인보다도 藝技가뛰어났다는 흐뭇한 생각에 마닐라의 무더운밤이 시원하게 지나갔다。당시의 駐比대사 김훈씨도 흐뭇한 코리아무드일색에 박수를보냈다。이와는 반대로 대회개회식장에서 아시아영화연맹이사장(일본 大映사장)이 망언을 했다。

한국영화를 「미나미조센노에이가」(南朝鮮의 映畵)로 표현해서 영화인의 기분을 불쾌하게했다。우리는 김훈대사를 위시해서 한국인은 이 말을 몇번이고 반복했다。사실은 무슨 뜻이 있어서 한말은 아닌 것 같다。그러나 그냥 있을수는 없었다。

개회식이 끝난뒤 나는 趙동재씨와 그를 만나 엄중히 항의했다。이는 분명히 정치적인 저의가 숨어있지않느냐고 물었다。그는 90도로 허리를 굽혀 정중히 사과했다。日人들은 늘 조선이라는 말을 써왔기 때문에 남한을 표현한다는 것이 무식중에 남조선이란 말이 나왔다는 것이다。그는 진심으로 사과하며 라디오、신문 혹은 서면으로라도 한국대사에게 사과하겠다고 했다。우리는 그의 뜻을 김대사에게 전달하고 사과를 받아들인 그러한 일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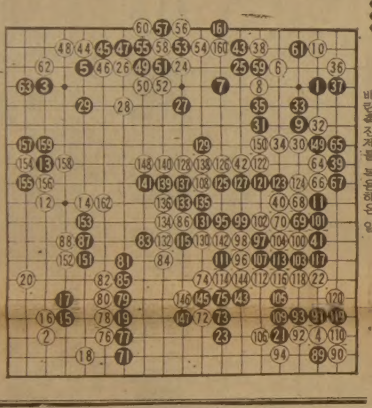
◇영화「돈」을 제작할 당시의 스태프。㊧로부터 金振奎, 崔銀姬, 필자。

評論家協會賞 받고 興行도 큰성공 "내용어둡다"映畵祭출품은 좌절돼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21局總譜 162手完 白不計勝

白(7段) 徐奉洙〈5勝1敗〉
黑(4段) 姜勳〈4勝2敗〉
(각5시간, 덤5집반)



徐7段 挑戰者로

徐奉洙7단은 이번 期에도 도전권을 따내고 숙적 曺薰鉉名人과 또다시 불꽃튀는 공방전을 벌이게 되었다。그 첫판은 계속해서 본란에 소개하거니와 지금 새삼스레 아쉬움을 금치못하는 일은, 그간에 도전자후보로 가장 유력시되었던 姜勳4단이 4승후 패로서 맞이하게된 張秀英6단과의 바둑을 부전패한 일이다. 물론 똑같은 승률로 대결한 이바둑의 중요성은 오히려 한층 커진것이 사실이지만 姜4단이 심적동요를씻지 못하고 무너진 일이 아쉽단얘기다。

앞서 河燦錫7단도 제5국을 부전패한때문에 총21국중 2국이나 빠진것도 팬들에 대해 미안한 일이었다。

그것은 그렇다하고 이바둑은 徐7단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느낌이 짙다。姜4단으로서는 초반에 黑43으로 白을 차단한것이 아니라 차라리 白44자리에 선착해야 되었다。

白44이하의 싸움에서도 黑49는 자리에 맹활시기。부득이 黑51이하 57의패로 저항할 밖에 없었는데 결국은 白60으로 패를 해소하고 黑61로 우상귀를 잡았으나 좌상귀를 짓밟힌 때문에 黑이 10여집 손해를 보았다。

그후 사뭇 고전에 빠졌다가 중앙黑96의 승부수도 실패。黑135로 138에 패의 싸움 찬스마저 놓치고 白162로서 중앙과 좌하변黑이 양곤마로 되어만사휴의였다。黑으로서는 이렇다 할 수단을 못부린결과였다。【一凡】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124>

朴婉緒 作
金光培 畵

응달④

오목이는 졸렸다。그들의 닦달로부터 놓여나 네 활개펴고 눕는게 그녀에겐 무엇보다도 다급했다。

『잘못했어요。다신 안 그럴게요』

오목이는 잠속에 반쯤 잠긴 것처럼 몽롱하게 말했다。그게 되려 식구들의 동정을 산것 같았다。

『안속는다。안속아』

짐짓 노여움을 안풀고 돌아앉는 아버지를 어머니가 쿡 찌르며

『어른이 져야지 어쩌우』했다。할머니도 거들었다。

『그건 에미 말이 맞다』

그들의 얼굴에 한결같이 안도의 빛이 떠올랐다。그들은 처음부터 오목이가 무엇을 원하는지는 알려고안했다。그들은 오로지 그들이 필요로 하는걸 추구 했을뿐.오목이의 반발은 그들이 필요로하는걸 추구하는과정에서 부닥친 작은 난관에 불과했고 이제 그 난관은 극복됐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가 자겠어요。졸려요』

오목이가 하품을 씹으며 말했다。

『배짱 한번 두둑해 좋다』

『온종일 남의 애간장을 말려놓고 잘못했단소리 한마디면 다냐?』

낮동안에치른 법석과 망신이 새삼스럽게 억울한지 다시 한번 소동을 피우고싶어하는 부부를 할머니가 좋은 말로 달랬다。

『글쎄、그만해두라니까。오늘만 날인감。아범어멈도 어여 다리 쭉뻗고 자』

이렇게 해서 놓여난 오목이는 곧 깊은 잠에 빠졌다。어제 일이 날이 떠올랐다。재수 나쁜 날이었다。그러나 곧 새날이 밝아오리라。오목이는 어둠속에서 익숙하게 옷을 챙겨 입고 필요한걸 찾아서 가방에 쑤셔넣었다。늘 떠나기를 준비해온 것처럼 필요한 것은 다 한서랍속에 정리돼 있었다。

그녀는 가정교사와 식모의 일을 겸해서 한시 반시 쉬지않고 부지런히 일했음에도불구하고 다달이 받는 용돈은 식모 월급의 절반도 안됐다。양딸이기때문이었다。그녀가 양딸이길 원한적은 없었으니 그들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정하고 그렇게 대접하고 있을뿐이었다。나중엔 입적까지 시켜주면서 그것을 증명했으나 그들에겐 아무런 하자도 없는 셈이었다。

오목이는 스스로 그집의 양딸이고자 한적이 없었기때문에 양딸을 면하는게 섭섭하지도 시원하지도 않았다。그러나 손톱이 다 닳도록 오랜 동안 일한 대가가 단 일년을 놓고 먹기에도 크게 부족하다는건 새로운 충격이었다。

오목이는 최사장 내외가 그녀를 양딸처럼 잘 해줄때도, 친척이나 아는 사람들앞에서 우리 양딸 우리 양딸하면서 그들이 꽤 적선지가(積善之家)임을 풍기고 싶어할때도, 양딸이란 허울좋은 말에 속지않으려는 앙큼한 마음이 있었다。그러나 어둠속에서 그동안 모아놓은 돈의 부피를 가늠하면서 아무리양보해 생각하면서도 너무도 억울한 심각하게 결국은 양딸에 속아왔음을 인정안할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그걸 따질 마음은 없었다。그걸 따지려다가 되려 그들의 계략ㅡ안에서 부리던 여자와 밖에서 부리던 남자를 짝지워서 그들보다 한등급 낮은 하인(下人) 가족을 만들어 그들 가족에 게 존속시키려는ㅡ에 말려들기나 십상이라고 생각했다。

流星의 賊 <396>

李炳注 作
李友範 畵

勇名 天下에 떨치다 ⑭

이들 의병은 해경창、우척현、금산、영천、청주、경주、노곡、순안、성주、소천、인동등 각 전투에서 혹은 독력으로 혹은 관군과 합동으로 놀라운 전과를 올렸다。

왜적이 초전에 있어서의 그 당당한 기세를 꺾이게 된데는 의병들의 용맹에 힘 입은바 컸다。왜적은 7월10일에 전주에서 철퇴하기 시작、7월27일엔 영천에서、28일엔 현풍、창영、영산에、이어 8월1일엔 청주에서 철퇴하고、다시 9월8일엔 경주에서 서생포로、11일엔 무계에서 성주로、17일엔 무주와 금산에서 성주로 철퇴했다。가등청정은 경성에서 안변으로 철수、길주에 일부병력만을 남겨놓았다。

7월에서 9월 사이 전사한 사람가운데 금제군수 정담、초토사 고경명부자、부령부사 원희、도대장 김호、의병장 조헌부자、의병장 유종개、원주목사 김제갑부자、의병장 장사진、별장 손승의등이 있고 행상선 녹도만호 정운이 있다。이처럼 의거하여 순절한 사람이있는가하면 두 왕자를 묶어 적장에게 넘겨준 국경인 같은 반역도들도 적지 않았다。명(明)나라가 파견한 조승훈(祖承訓)은 평양성을 공략하려다가 실패하고 유격장 사유(史儒)와 대조변(戴朝弁)등의 전사자를 내곤 다시 요동으로 돌아가버렸다。

조정에선 다시 청원사로서 윤조수、이덕향、이유중、정곤수등을 보내어 군대의 파견을 요청하게 되었는데 명나라의 유격장 심유경(沈惟敬)이 8월하순에 평양으로와서 소서행장과회담하여 50일간의 휴전협정을 맺었다。

9월3일 명나라의 사신 설번(薛藩)이 신종황제(神宗皇帝)의 칙서를 가지고왔다。임금은 의순관에 나가 사례배(四禮拜)를 하고 칙서를 받았다。칙서의 내용은、

『너의 나라는 세세 동번(東藩)을 지켜 평소에 공순하며 의관과 문물로 보아 낙토라고 칭하였다。그런데 최근에 들으니 왜노(倭奴)가 창궐하여 침릉(侵凌)을 함부루 하고 왕성을 공함하여 평양을 약점(掠占)하니 생민이 도탄에 빠져 원근이 소연한지라 국왕이 서쪽 해변으로 피해서 경황이 없다고 하니 그 윤탐을 생각하고 측은한 마음이 들도다。급한 변을 알려왔기로 이미 변신(邊臣)에 칙(勅)하여 발병구원(發兵救援)토록 하였거니와 또 문무대신 둘을 보내、요양 각진의 정병 십만을 통솔케하여 적을 치겠으니 너의들 나라의 병마와 더불어 협공하여 힘써 적을 소멸토록 하라。짐(朕)은 천명을 받은 화이(華夷)의 군주로서 이제 동남 여러 진(鎭)과 섬과 유구등 나라에까지 일러 수십만을 모병하여 일본을 칠려고 하노라。…금번 특히 설번으로 하여금 칙유를 가지고 가게 하니、국왕은 조종의 세전기업(世傳基業)을 언제나 명념하고 마땅히 성욕하여 애써 구하도록 하라。또 너의 나라의 문·무신민들을 깨닫게 하여 군께 보주(報主)하는 마음을 가지고 분발하라。선세의 토우(土宇)를 먼저 회복하는 것이 대효(大孝)이며 군부(君父)의 환난을 구하는 것이 지충(至忠)이라 하느니라。너의 나라의 군신은 예의를 알터이니 짐의 마음을 받들지니라。고물(故物)을 광복(光復)하고 국왕을 환도케 하여 종묘사직을 보전하면 짐의 마음도한결 기쁠 것이니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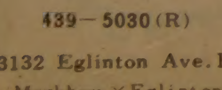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MARVIN STAR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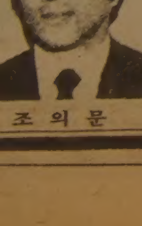
〈취급종류〉
소형차 : ACADIAN, PHOENIX SKY LARK, J2000
중형차 : LEMANS, GRAND-PRIX CENTURY, A6000, FIRE-BIRD, RIVIERA
대형차 : 스테이션웨곤, PARISIENNE, LESABRE, ELESTRA, PARK·AVENUE, 벤트럭, USED-CAR

◎차종류에 따라 Cash Rebate(Bonus)있음
◎카나다에서 Buick Line 으로는 Top Sale dealer임

* Best After Service * Best Price



264-2311(B)
439-5030(R)
3132 Eglinton Ave. E
Markham × Eglinton



조 의 문

MR. CHOIS RESTAURANT

주중 : 월~수 낮12시~밤12시
목, 금 : 12시~밤1시
토 : 4시반~11시

2432 Eglinton Ave. E. Scarborough
☎ : 759-8512
최 영 호

구 인

우리는 캐나다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을 보충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 한국에서 거주하는 사람(Commissioned representative)을 구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 : 531-4643

풍문여고 동문께

풍문여고 동창회 준비를 위한 모임을 갖고저 하오니 공사다망하실 줄로 믿사오나, 한분도 빠짐없이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 299-3182(R)
757-8323(B)

고 명 희(Mrs. 양)

내고향통닭집

냉 면
칼국수 전문

658½ BLOOR ST. W.
☎ : 537-0432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거구장

신혼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영업시간 : 월~수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오전11시~새벽2시
일 : 오후2시~새벽1시
오리엔탈 익스프레스 매일공연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100명이상 雇傭業體 91.3%가
賃金 평균9·49% 인상

지난 10년이래 가장 低水準
滯拂 91억…福祉확충 바람직

전국의 1백명이상 고용사업장가운데 91.3%가 올해 임금을 인상, 사상최고로 많은기업체가 종업원들의 임금을 조기인상해 주었다. 그러나 평균인상률은 9.49%로 지난10년이래 가장낮은 수준이었다.

31일 노동부집계에 따르면 전국 1백명이상 고용사업장 4천4백74개소중 91.3%인 4천85개업소가 5월말현재로 이미 노사간에 임금인상교섭을 끝냈으며 나머지업체들도 7월이전에는 매듭지을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이들업체의 평균임금인상률은 9.49%로 지난해 17.3%보다 7.81%포인트가, 71년이후 80년까지의 연평균 임금인상률 26%에 비해서는 무려16.51%포인트나 낮은선이다.

업종별 평균인상률은 제조업이 9.67%로 가장높고 광업9.32%, 건설업8.80%, 운수업7.96%, 기타9.51%다.

노동부는 이처럼 많은 업체들이 임금인상교섭을 빨리 끝낸것은 임금인상을 둘러싸고 해마다 계속되는 노사간의 마찰을 없애기위해 지난 81년부터 임금인상 조기타결 방침을 세우고 강력히 유도한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노동부는 또이처럼 올해임금인상률이 낮은것은 근로자와 기업이 물가안정, 임금안정을위한 노사간의 공동노력으로 노사협조기반을 구축, 물가상승률·노동생산성·기업의 지불능력등을 감안, 높은인상을 자제한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노동부는 이처럼낮은 수준에서 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생계안정을 간접적으로돕기위해 복지시설확충에 최대의노력을기울이는한편 연내는 노동생산향상성과가 적당히 배분되고 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하는 생산성 임금제모델을 새로이 개발, 이를단계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에의하면 5월27일현재 체불임금은 2백98개사업체 근로자 4만9천4백51명에게 91억원에 달하고 있다.

"日新제강 조속 再稼動조치 취해야" 노동부集計

노동부는 자금난과 수출부진에 의해 체불이 생기고 있는것으로보고 특히 1백33개소에서 35억원을 체불하고있는 석탄광업체에는 생산독려금 6백억원과 생산장려금 수송비보조금 19억원을방출, 체불청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 李哲熙·張玲子부부 어음사기사건의 관련업체인 日新제강 근로자 2천9명은▲불안정한 회사장래와관련, 신상에관한 불안감이 높고 관련법 절차에따른 회사정리시 법정관리, 고용승계, 금품청산 요구등 집단행동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지적, 조속한 시일내에 재가동 조치가 취해져야 할것이라고 내다봤다.

◇非情의 「3父女」 金汶洙씨 ㅣ토막살해범으로 검거된아버지 金鎭庸씨(56)큰누나 銀玉(33)세째누나銀泳씨(28) (左로부터).

湖南線 보통열차를 특급수준으로 改修

철도청은 오는20일부터 龍山—木浦간을 운행하는 호남선보통열차 객차 1백50량을 특급객차수준으로 개수 운행키로 했다.

철도청은또 금년말까지 14개 장거리보통 열차의 객차를 특급수준으로 높이기로했다.

또 東大구역에서만 정차하던 경부선12개 특급열차를 15일부터 대구역에서도 30초간 정차하기로했다.

反政府 유인물뿌린 東國大生 3명구속

서울 中部경찰서는 29일 東國大학생 朴鍾勉군(22·경제과4) 千仁淑양(21·화학과4) 李炫운군(22·법학과3)등 3명을 집회및 시위에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의하면 이들은 27일낮 12시께 東國大 도서관앞과 석조관앞등에서 반정부유인물 5백여장을 뿌리고 학생들을 선동한 혐의다.

서울大生 3명拘束 校內示威 주동혐의

서울冠岳경찰서는 31일 교내시위를 주동한 서울大鄭光哲(22·工大전산공학과4년) 金昌洪(22·工大기계설비과4년) 金甲植군(22·자연大수학과4년)등 3명을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27일상오11시40분께 인문사회관1층3층 난간에서 「시국선언문」등 유인물 2백여장을 뿌리며 시위를주동한 혐의다. 【聯】

公務員 상습도박 우체국장등 25명 무더기立件

【淸州】淸州경찰서는 31일 삼성우체국장 김영외씨(47) 등 체신공무원 25명을 도박혐의로 무더기 입건, 수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16일 北淸州郡南一面金鶴里 한창홍씨(43)집에서 1회에 1천원짜리 속칭 섯다도박판을 벌인것을비롯, 지난 1월27일까지 6차례에 걸쳐 망년회등 모임이있을때마다 도박판을벌여왔다는것.

이같은 사실은 지난19일낮 12시께 이들과함께 도박판을 벌인 우체국접수계직원 이성봉씨(30)가 2백여만원의 노름빚독촉에 못이겨 극약을 먹고 숨짐으로써 밝혀진것이다.【聯】

「토막屍」는 家族들 짓
누나가 殺害…아버지가 遺棄도와

【淸州】大淸湖토막 시체유기사건은 누나가 동생을 살해하고 아버지가 아들의 시체를 6토막내 호수가에 버린 혈육살인 사건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충북도경은 31일 토막시체로발견된 金汶洙씨(21·전과1범·무직)의 세째누나 金銀泳씨(28·大田市東區紫陽洞214의5)를 살인혐의로, 시체운반을 도운 큰누나 金銀玉씨(33·淸州市瑞雲洞21의11)와 아들의 시체를토막내 大淸湖에 버린 아버지 金鎭庸씨(56·淸州市藥忠洞93의15·사법서사사무원)등2명을 사체손괴및 사체유기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경찰은 또 세째누나가 범행에 사용한 소형 돌절구통과 아버지가 시체를 토막내는데 사용했던 톱2개등을증거물로 압수하고 머리부분수색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경찰수사결과 이번 사건은 문제아로 자라난 金汶洙씨가 일정한 직업도 없이 가족들을 괴롭혀온것이 누적돼 폭발된 사건이며 아버지가 전직경찰관이라는 점에서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있다.

세째누나 金씨는 지난20일밤9시40분께 동생 汶洙씨가 大田까지 찾아와 『용돈도 주지않는다』고 행패를 부리는데 격분, 응접실책장에 있던 높이 14cm·둘레 44cm·무게 3.9kg짜리 소형절구통으로 동생의 뒤통수를 때려 그자리에서 숨지게했다.

金씨는 이날 큰언니 銀玉씨와 함께 고추장을 담고있었는데 汶洙씨가 찾아와 『괄시가 심하다』면서 칼을들고 거울·응접세트등 기물을 부수며 행패를 부리는데 격분, 이같이 범행했다는것.

汶洙씨가 숨지자 큰누나 銀玉씨가 淸州의 친정으로 급히 연락, 아버지 金鎭庸씨를 불렀다.

아버지 金씨는 1백25cc짜리 오토바이를 타고 밤12시께 大田에도착, 숨진 아들의 시체를 大淸湖에 수장할 것을 두딸과 합의했다.

이들 3부녀는 숨진 汶洙씨의 두다리와 팔을 나일론끈으로 묶어 세탁기포장용박스에 넣어 오토바이에 실었다.

아버지 金씨는 시체를 싣고 21일새벽4시께 忠北淸原郡文義面德留里 大淸湖관광도로변에 도착, 길이 27m 지름 1m의 하수구 암거쪽경을 통해 하수구 안에 시체를 숨긴 뒤 집으로 돌아가 이날아침 태연히 사법서사사무실에 출근했다.

金씨는 이날밤 11시께 낡은 칼과 옷·구두·피묻은 포장박스는 1백50m가량 떨어진 大淸湖변으로 옮긴뒤 옷·구두·박스는 불태우고 양쪽팔은 호수에 버렸다.

金씨는 다시 두다리와 머리를 오토바이에 싣고 文義面쪽으로 1.8km쯤 올라가 文義橋밑 호수에 버린후 집으로 돌아갔다.

경찰은 피살자의 신원이 밝혀지자 동거했던 池모양(21·淸州市모다방종업원)을 연행, 金씨가 지난20일 『大田누나집에 간다』고 말한점과 아버지 金씨도 大田에 다녀온것을 밝혀냈다.

경찰은 이날하오 아버지金씨와 두딸을 연행, 분리신문을 한끝에 두딸로부터는 『아버지가 汶洙를 오토바이에 태워갔다』는 진술을, 아버지金씨로부터는 『딸네집에 가니 汶洙가 없어 그냥 자고 왔다』는 엇갈린 진술을 각각 받아내 이들이 범행에관련된 심증을 굳혀 수사를 30일 큰딸로부터 범행일부를 자백받고 이어 3부녀로부터 범행일체를 자백받아 이들을 구속했다.

2살때 어머니를 잃은뒤 홀아버지밑에서 자라며 淸州J중학교를 중퇴한뒤 건달생활을 해왔다.

池양과 동거하기전에는 다른여인과의사이에 2살난 아들까지 두었으나 다른사람에게 주어 기르게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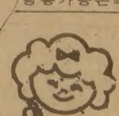
金씨는 지난80년 특수강도혐의로복역중 지난해5월 가석방으로 풀려난뒤에도 누나등 가족들의 집을찾아다니며 용돈을달라고 행패를 부려왔다. 【聯】

通常換위조범 붙잡아
인쇄소主人…카메라사다들켜

서울中部경찰서는 31일 서울中區水下洞13의1 태성인쇄소주인 具原林씨(20)와 尹景善씨(20·양복업·서울鍾路區敎義洞21의3)등 2명을 유가증권위조및 이의 행사,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3월15일께 具씨의 태성인쇄소에서 20만원권 정액통상환 도안을 만들어 모조지에 1백장을 인쇄, 대구우체국소인과 우체국장인을위조, 날인해 가짜 통상환을 만들어 지난달1일 하오4시께 서울中區舟橋洞264의4 인창인쇄소 주인 羅淵春씨(38)에게 인쇄물계약금조로 20만원짜리 위조통상환1장을 주고 거스름돈으로 10만원을받는등 지난달15일까지 모두 14차례에 걸쳐 현금 1백97만원을 챙긴 혐의이다.

경찰은 지난달4일 서울종로우체국으로부터 위조정액통상환증서가 발견되었다는 통보를받고 수사중 31일 종로4가 유신카메라점에서 카메라를 흥정하던 이들을 붙잡아 범행일체를 밝혀냈다.



533—2361

또 히말라야 登頂
惡天候속 8,481m마칼루峰에 한국학술원정대

82한국마칼루 학술원정대(대장 咸卓永)가 세계5위의 고봉인 히말라야 마칼루峰(해발 8,481m)등정에 성공했다.

이 등반대는 지난20일 하오2시(현지시간) 등정에 성공한뒤 무사히 하산중이라고 원정을 공동주관한 한국방송공사와 한국산악회에 29일 알려왔다.

등반대는 지난20일 새벽부터 정상공격에나서 첫번째정상공격에서 성공했는데 정상에오른대원은許永浩대원(28·성신양회사원·충북提川市花山2洞)과 네팔인 세르파·하산·우수그(21)·앙·쿠루바(25)등 3명.

정복당시 정상근처는 경사60~70도의 험준한 빙벽이었고 무릎까지 빠지는 눈밭이어서 등반대는 예정보다 2시간늦게 정상에 도착한것으로 알려졌다.

대원들은 정상에 눈바위가 칼날처럼 서있어 몸을 지탱할수 없었지만 자일에 몸을 묶은뒤 40분동안 끈질긴 도전끝에 태극기와 네팔기를 들고 사진촬영을 끝냈으며 준비해간 네잎클로버를 묻고 하산을시작, 4시간30분만에 캠프로 귀환했다는 것이다.

티베트말로 검은 귀신의산이라 불리는 마칼루峰은 검은 빛깔의 화강암으로 뒤덮인 험난한 거봉으로 54년이후 세계각국의 26개 원정대가 도전, 한국등반대는 9번째로 등반에 성공했다.

마칼루봉 등정에 성공한許대원은 提川에 있는 어머니 姜영수씨(54·여)의 7남매중 막내아들이다.

鄭법무, 국회法司委서 報告
「靑瓦臺비서관」 허위紹介등
"李圭光씨, 자기誇示 심했다"

鄭致根법무부장관은 31일하오 국회법사위에서 『李圭光은 평소개인신분에대한 과시행위가 많았음이 검찰수사결과 드러났다고 보고했다.

鄭장관이 보고한 일부내용에의하면 李圭光은 ▲80년6월께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실에서 당시 감정원부원장金廣正, 감사朴鍾鎰과 함께 『모장관등을 잘알고 있으며 함께 골프도 종종친다』고 과시했고 ▲81년6월께 같은 장소에서 金廣正, 朴鍾鎰과 접촉시 『이번에 외국을 다녀왔는데 한국의장관도 만날수없는 모국가의 대통령다음가는 실력자를 만나고 왔다』고 과시했는가하면 ▲81년7월께같은 장소에서 아세아종석사장 金濟英에게 『나는 광업진흥공사사장임기가 끝나면 정부고위직으로갈것이다』고 과시했다. 또▲81년11월께같은장소에서 金濟英에게『모장관은 내말이면 다잘듣고 모장관도 나를 잘 섬긴다. 다른 장관들도 골프치러가자고 하지만 바빠서 못간다』고 과시한바 있고 ▲82년 초 같은장소에서 三宇광업사장 黃漢洙에게 『모사장은 내가 잘 봐주고있다』고 말했으며 ▲82년5월 明星컨트리클럽에 젊은사람 2명을 데리고와서 明星전자사장 朴창록에게 「청와대비서관」이라고 허위소개했으며 ▲81년 모장관에게 감정원부원장을 원장으로 승진시켜달라고 청탁한일이 있었으나 장관이 교체되어 성취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鄭장관은 『李圭光이 이번사건과 관련, 관계회사나 은행에 구체적으로청탁 또는 압력을 가한사실은 일체없음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전국에 비…모내기 큰 도움

5월 마지막일요일인 30일하오부터 전국적으로 비가내려 모내기에 큰 도움을 주었다.

지역적으로는 호남과 남해안지역에 많이내려 호남 중부남해안지역등은모내기에충분했지만 가뭄이 심했던 경북지방에는 이번에도 갈증만 내고말아 큰도움이 되지않았다.

31일 하오3시현재 井州지방이 73.5mm로 가장많은 강우량을 보였는데 각지방별로 보면 서울이10mm 大田33.2mm 全州31.2mm 光州25.6mm 釜山36.8mm 大邱5.8mm 春川9.6mm등이다.

李·張부부事件
大和사장 金濟振등 4명 追加구속

李哲熙·張玲子씨부부 어음사기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중앙수사부는 31일 大和산업사장金濟振씨(52), 관리이사尹錫錄씨(35), 경리부차장金正一씨(38)등 3명을 업무상배임혐의로, 張여인의 개인비서 金勇男씨(37)를 외국환관리법 위반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金濟振씨등 3명은 大和산업이 81년도 결산때 7억원의 손실을 내는등 적자상태인데도 회사운영과는 상관없이 李·張씨부부가 개인용도에 사용할 자금을 마련키위해 지난2월부터 4월까지 1천13억원상당의 어음54장을 발행, 그에상당한 손해를 회사에끼친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에 의하면 李·張씨부부는 大和산업에서 발행한 1천13억원의 어음중에서 共榮토건에 8백18억원, 조흥은행에 1백45억, 해태제과에 30억원을 담보용으로 건네주고 나머지20억원을 재미동포 文旺山씨의 어머니 徐香蓮씨에게 주식인수대금으로 건네주었다는 것이다.

또 張여인의 개인비서 金勇男씨는 張여인의 부탁을받고 지난해 5월부터 지난 3월사이에 10차례에 걸쳐 암달러 시장에서 미화 42만달러를바꿔 張여인에게 넘겨준 혐의다.

신규營業 운전기사 정밀적성검사 받게

교통부는 버스 택시등 대중교통수단에 새로취업하려는 운전기사는 의무적으로 정밀적성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만 취업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운수규칙을 제정, 연내에 실시할 방침이다.

교통부가 31일 법제처심의에 넘긴 이운수규칙에 의하면 버스 택시 화물차등 사업용차량운전사는 앞으로 만21세이상으로 운전경력 2년이상인 자에게만 취업을 허가할 방침이다.

교통부가 운전사취업에 이처럼 까다로운 제한을 두는것은 해마다 늘어나는 자동차사고를 줄이기위한 방안의 하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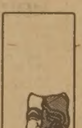
찻집서 다이너마이트 自爆

31일 새벽2시10분께 서울中區仁峴洞1街5 민들레찻집에서 金廣喜씨(29·서울城東區馬場洞470의1)가 다이너마이트로 보이는 폭발물로 자폭, 숨졌다.

金씨는 30일 하오10시50분께 민들레찻집에서 술을마시고 애인인 찻집주인 金모양(25)과 밖으로나와 얘기하다 金양이 달아나자 31일 상오2시10분께 찻집찬문을깨고 들어가 자폭한것이다.

金씨는 지난4월까지 친구와함께 페인트대리점을 구입, 대여업을 하다 팔아버리고 애인인 金양에게 돈을주어 1일전부터 찻집을 경영케했는데 金양이 변심한데 불만을 품어왔다는 것이다.

手製車
「無免許운전」으로 立件된 高勇晟씨
포니改造-하반신不具 극복했으나…



소아마비로 하반신을 못 쓰는 高勇晟씨(26·사진·仁川市朱安5洞 밀알회회원)는 자가용 포니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무면허운전」으로 경찰에 입건되었다. 두 발을 못쓰는 高씨로서는 애초부터 운전면허에 응시할 자격조차 없으니 도리없이 「무면허」이지만 그의 포니승용차는 차라기보다는 그의 분신이며 恨의 상징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가 없다.

高씨는 출·퇴근길에 성한 사람들과 버스타기 경쟁에서 번번이 뒷전으로 밀려나 길바닥에 쓰러지기가 일쑤였다. 성한 사람들 틈에서 벌어 먹고 살 수밖에 없는 高씨는 궁리끝에 폐차장에서 중고품포니를 구입했다. 액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를 두 손만으로 조작할수 있도록 차의 내부구조를 바꾸었다. 또 페달에 쇠로 만든 레버를 붙여, 두 손으로 핸들, 기어등 5개의 운전장치를 만들어 말하자면 「手製車」를 창조해낸 것이다. 高씨는 이 手製車의 운전을 익히기위해 변두리 공터에서 손바닥이 벗겨지도록 연습을 거듭했다.

高씨는 이 「手製車」를 끌고 전국각지를 다니며 수금출장까지 다녔다.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적발되면 「무면허」까지 들통이 날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高씨는 남보다 몇배 더 조심해서 차를 몰았다. 지금까지 「무면허」로 4, 5차례 적발되기는 했지만 사고는 한번도 내지않았다.

이번 입건에는 「무면허」외에 「자가용영업행위」까지 겹쳐 일은 더욱 난처하게 되었다. 밤11시께 光化門에 차를 세워놓고 있던 중 대취객과 호스티스가 차문을열고올라와 막무가내로 떼를써 끌어내릴 힘도없는 高씨는 하는수없이 三淸洞의 여관까지 태워다 준것이 화근이 되었다.

『장애자라고해서 특별한 대우를 해달란는것은 아닙니다. 제발 차별이나 하지말아주십시오. 성한 사람들이 정말 너무합니다』고 高씨는 경찰에서 가슴을쥐어뜯으며 울분을터뜨렸다.

물론규칙은 예외없이 존중되어야한다. 그러나 불구자로서 「手製車」까지 만들어가면서까지 자활의 꿈을 가꾸어온 高씨의 생명력이 「규칙」의 이름으로 뭉개지는것을 보는것은 정말 가슴아픈일이다. 선진외국에서는 지금 장애자용 특수차량까지 만든다지 않는가—。 【姜秉泰기자】

김명종 한약방
보약(탕약과 엑기스 약제). 심신 모두 피로, 기혈부족, 신경과민, 노이로제, 허리병, 근육통, 부인병, 불임증등에 대한 한약과 녹용, 웅담.
한약과 경전인 본 초방약에 의거한 진맥과 처방으로 조제함.
2433 FINCH AVE. W. #411
☎ : 745—2058

운전교습
SOUTHERN ONTARIO DRIVING SCHOOL SPECIAL
10시간의 개인운전교습 집으로나 사무실로 모시러갑니다.
ONLY $129.00
무료신청서, 무료핸드북, 무료필기시험에 필요한것. 한번 와 보십시요. ※조금의 영어가 필요함.
월—금 오전10시—오후5시
2489 BLOOR ST. W. SUT210
(BLOOR & JANE 써브웨이)
766—4441, 766—46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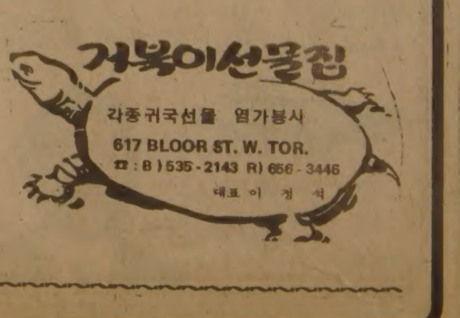
新新酒樓
SUN SUN RESTAURANT
정통적 중국음식. 뱅킷·카트에 담아서 원하는 대로 픽업하는 식사의 정찬.
영업시간 : 월~일(9시~오후11)
490 DUNDAS ST. W. TOR.
☎ : 977—3142 (스파다이나 코너)
닭, 오리, 돼지, 바베큐신설

개업 특별봉사
숙녀복(Ladys Wear) 전문
공장생산가격으로 직매합니다.
→상세한 바느질과 고급제품
월~금 : 10시~6시, 토~일 : 10시~4시30분
BOSCHE CO.
292 Parliament St.(at Dundas)
☎ : 362—2300 MR. 리

JAGUAR 종합보험
*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함.
* 자동차보험.
* 비지네스 보험.
* 집보험.
* 생명, 상해보험, 등
⊙영어를 할수있는 한국학생 (파타임) 구합니다.
1033 PAPE AVE.
전화 : 425—5656

CHINA HOUSE
차이나 하우스
두개의 벵쿠잇 방,
오후 4 : 30이후 배달도 합니다.
CANTONESE & MANDARIN CUISINE
925 EGLINTON AVE.W
781-9122
Wilson / Eglinton / CHINA HOUSE / Bloor / Keele / Bathurst / Bayview

각종 가죽옷 도산매
PERFECT LEATHER GOODS
온타리오주 내에서 가장큰 가죽제품 스토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마음대로 선택할수 있음
192 SPADINA AVE.
☎ : 368—4215, 368—0114



0.2秒단축 25년걸렸다

種別육상 閉幕 吳承殷 4百m허들 한국新

女4百m허들 田京美도 5秒7줄여

제11회 전국종별 육상선수권대회가 30일 서울운동장서 폐막, 최종일 레이스서 2개의 한국신기록이나와 이번대회서 한국신기록 7개, 한국타이 1개, 대회신 17개의풍작을 거두었다.

신예吳承殷(24·육군3사)은 4백m허들서 53초6을마크, 嚴八龍의 한국최고기록을 25년만에 0·2초 단축,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4백m허들서는 과거 朴錫官(75년) 吳泰雨(81년)등이 한국기록경신에 도전했으나 타이기록에 그쳤었다.

한편 여자일반부 4백m허들서 田京美(19·이화여대)는 1분0초8로 한국신기록을 수립, 77년 成笑珍이 세운 한국 기록 1분06초5를 5년만에 5초7이나 단축했으며 자신의 전자계시 한국기록 1분02초16도 앞질렀다.

남고 세단뛰기에서 朴永峻(경북체고)은 15m22를 뛰어 남고 최고기록(15m19)을 3cm 늘려놓았다.

이번 대회와 함께 열린 제4회韓·中친선중고대회서 한국은 28개 종목가운데 8개 종목에서 우승, 自由中國에 크게 뒤졌다.

◇400m허들 한국新의 두主役 25년만에 남자 4백m 허들 한국기록을 깬 吳承殷㊧과 여자4백m허들서 한국신기록을 세운 田京美가 금메달을 목에걸고 포즈를 취하고있다.

體育會 훈련국新設 五輪대비 機構개편

대한체육회는 31일 宣仁源사무차장을 86년 서울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SAGOC)사무차장으로 겸직 발령하고 기획실장에 金光鎬국내국장을 승진발령하는등 국장3명을 포함, 13명을 승진시키고 과장3명을 이동발령했다.

체육회는 86년 서울아시안게임과 88년올림픽에 대비, 선수촌의 훈련과를 훈련국으로 승격시키는등 기구일부를 증설·개편했다.

▲사무차장겸 아시안게임조직위사무차장=宣仁源▲기획실장=金光鎬▲아시안게임조직위기획조정실장=金聖奎▲국제국장=文源弼▲운영국장=裵淳學▲훈련국장=愼仁縡▲운영과장=吳昌碩▲연수과장=車吉洙▲국제과장=方光一▲교류과장=李基哲▲훈련1과장=吳鎭學▲아시안게임조직위제1과장=朴將彦▲동제2과장=尹樂重▲공보담당=諸柄根▲훈련2과장=尹永仁▲훈련단관리과장=李鉉成▲스포츠과학연구소행정과장=安龍根

대통령盃 國際축구 代表팀 4일結團式

대한축구협회는 제12회 대통령배 국제축구대회(5일~18일)에 출전할 한국대표팀 결단식을 6월4일 상오11시 축구협회에서 갖는다.

◇한국대표팀 ▲단장=金政云▲코치=金正男▲트레이너=金鎬坤▲선수=鄭聖教 朴英洙(이상GK) 權五孫 張外龍 朴景勳 鄭鍾洙 朴成華 崔景植 崔基奉(이상FB) 趙廣來 李康助 李泰昊(이상HB) 丁海遠 邊炳柱 黃石根 崔淳鎬 姜信寓(이상FW)

아르헨蹴球팀 "英과 기꺼이 싸우겠다"

엄중한 警護속 월드컵選手團 스페인到着

海外스포츠話題

아르헨人들 환영

◆…78년 월드컵 우승팀이며 스페인월드컵대회 우승후보로 지목되고있는 아르헨티나代表 축구팀이 엄중한 경호망이 펼쳐진가운데 아르헨티나 전세기편으로 30일 이곳 알리칸테 공항에 도착, 25㎞떨어진 지중해연안의 몬티볼리 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메노티감독을 비롯한 선수22명과 20여명의 수행원들은 아르헨티나 고유의상을입고 빗속에서 국기를흔드는 2백여 아르헨티나인들의 환영을 받았다.

아르헨티나 당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 70여명의 정사복경찰관을 호텔에 배치했다.

한편 아르헨티나의 스타인 디에고·마라도나(21)는 아직까지 스페인의 바르셀로나팀과 이적계약을 맺지않은것으로 밝혀졌다. 소식통에 의하면 바르셀로나팀은 이적료로 이미7백70만달러를 제시했으나 마라도나가 속해있는 아르헨티노스·후니올스팀은 8백50만달러의 이적료와 함께 월봉7만5천달러를 요구하고있다는것. 후니올스팀은 월드컵대회때까지 마라도나를 보카·후니올스팀에 빌려 주었기 때문에 마라도나의 이적을 둘러싸고 복잡한 문제가 일어나고있다.

마라도나 移籍料싸고 "간다 안간다"

한편 메노티감독은 월드컵대회 보이코트설에 대해 『우리는 축구를하고 세계선수권을 방어하기위해 스페인에 왔다』고 밝히면서 英國과의 축구대결을 받아들이겠다는태도를보였다. 【알리칸테(스페인)=AP】

쿠웨이트 蹴球팀 워밍업戰서 기염

英애스턴과 비겨

◆…아시아지역 대표로 스페인월드컵 축구대회에 출전하는 쿠웨이트는 31일 새벽(한국시간) 열린 전력강화 경기에서 금년도 유럽컵챔피언애스턴·빌라(英國)와 1-1로비겼다. 【테투안(모로코)=AP】

美존코크가 優勝

◆…美國서 가장 유명한 자동차경주대회인 제66회 「인디아내 폴리스 5백마일」레이스가 31일새벽(한국시간) 40여만 팬들이 지켜본 가운데 이곳서 열려 美國의 고든·존코크선수(44·車種 와일드캐트·코스워드)가 치열한 접전끝에 강호 리키·미어스를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73년 이대회 우승자인 존코크는 이날 5백마일(약 8백㎞)경주서 평균시속 162·026마일(약260·748㎞)을 기록했다. 【인디아내폴리스(美인디애나州)=聯合】

몬트리얼·마라톤 美더든優勝

2시간13분22초

◆…美國의 벤지·더든선수(30)가 30일 거행된 몬트리올국제마라톤대회에서 2시간13분22초의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여자부에서는 프랑스의 안니크·레브레통선수가 2시간36분05초의 기록으로 우승했다. 【몬트리올=UPI=聯合】

저팬컵蹴球 개막

◆…저팬컵국제축구대회가 30일 개막, 日本대표팀은 FW오자끼의 해트트릭(3골)에 힘입어 네덜란드의 페예놀드·로테르담을 5-2로 물리치고 1승을 올렸다. 이날 싱가포르 대표팀은 日本실업챔피언 日本鋼管(니뽄·고깐)과 1-1로 비겼다. 이번 대회에는 이들 4개팀외에 西獨의 베르더·브레멘이 참가했다. 【東京支社】

올림픽 政治的간섭 排除

IOC總會, NOC自主性 촉구

【로마UPI=聯合】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올림픽경기에 대한 모든 정치적 간섭을 배제하고 각국 올림픽위원회의 자주성을 촉구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이를 올가을 유엔총회에서 승인받기위해 유엔에 보냈다.

지난 76년 몬트리올 올림픽당시 아프리카국가들의 집단불참, 80년 모스크바올림픽의 西方진영 보이코트등 올림픽의 정치적 오염에 자극받아 마련된 이번 결의안은 이날 로마에서 폐막된 제85차 IOC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오는 9월 제33차 유엔총회에 상정돼 총회로부터 공식 승인될 계획이다.

프로야구

OB 느긋하게 獨走

2·3位 三星·MBC 힘겨운追擊

『OB를 잡아라』 승률 7할4푼1리. 선두 OB베어스의 독주로 2위 三星, 3위 MBC등 프로 5개팀 진영에 비상이 걸렸다.

시즌·오픈때까지도 3위 정도면 만족한다던 OB는 30일 현재 20승7패를 마크, 프로야구 첫시즌 우승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다.

30일 大田서 OB는 에이스 朴哲淳이 롯데자이언트타선을 산발 5안타, 1실점으로 막고 3회말 申慶植의 2점 홈런등 9안타를 터뜨려 4-1로 낙승했다. 朴哲淳은 이날 8번째의 완투승을 올려 통산 12승2패를 기록했다.

三星·라이온즈는 MBC·靑龍과 大邱에서 벌인 5·6차전서 연승, 18승11패의 2위를 고수했다. 목표를 OB제압에 두고 있는 MBC는 14승13패로 선두 OB와 무려 6게임차로 떨어져있다.

해태·타이거스는 金城漢·金奉淵·金準桓이 홈런포문을열어 三美·슈퍼스타즈를 8-3으로 연파하고 12승14패를 기록, 단독 4위를 지키고있다.

롯데는 朴庸成이 동계트레이닝중 부상으로 결장하고 金用熙·金貞洙등이 가벼운 부상을 무릅쓰고 분투하고있으나 10승16패로 부진을 보이고있다.

◇30일전적

◆대전

	1	2	3	4	5	6	7	8	9	계
롯데	0	0	0	0	0	1	0	0	0	1
OB	0	2	2	0	0	0	0	0	×	4

▲홈런=申慶植(3회 2점·OB)

◆대구

	1	2	3	4	5	6	7	8	9	계
MBC	0	0	0	0	0	0	1	3	0	4
삼성	1	1	0	2	0	0	2	0	×	6

◆광주

	1	2	3	4	5	6	7	8	9	계
삼미	0	0	0	0	0	0	0	0	3	3
해태	0	0	2	0	0	2	2	2	×	8

▲홈런=金城漢(3회·2점) 金奉淵(6회) 金準桓(6회) 趙忠烈(8회 2점·이상 해태) 宋慶燮(9회 3점·삼미)

◇전기중간순위 <31일현재>

팀	승	패	승률
①OB	20	7	·741
②삼성	18	11	·621
③MBC	14	13	·519
④해태	12	14	·462
⑤롯데	10	16	·385
⑥삼미	7	20	·259

조규혁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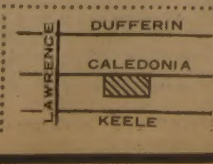
233-6236
745-8236

DOMINION SMALLWARES

May 31 - June 12		SPECIAL
Y & S Twizzlers	60x10¢	$ 2.85
Y & S Twizzlers	70x.5	1.75
Cadbury Thick Bars	36x55	13.75
Cadbury Family Bars	24x99	15.05
Garbage Candy	24x25	3.79
Gobstoppers	24x25	3.79
Hubbabubba Gum	24x30	4.15
Tic Tac Display	90x35	19.99
Lifesavers Candy	24x30	4.35
Wilson's Pop All Flavours	24x10 oz. cans	5.59
Carefree Gum	18x35	3.65
Breathsavers	18x35	3.65
Baseball Combo Pack Album & Stickers		15.75
Baseball Stickers	100x20	13.69

Cash & Carry에 한함

DOMINION SMALLWARES
920 CALEDONIA RD.
789-7214(MR. 김)



THE BIGGEST SAVINGS OF SINGER HISTORY

싱거 재봉틀 특별세일

기간 : 6월15일 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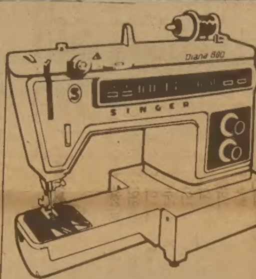
SAVE $50 ON SINGER* 247

SALE $119.95
REG. $169.95

The Fashion Mate* ZIG-ZAG machine

A great performer at a great Singer price! Features front drop-in bobbin, sews button-holes and stretch fabrics.
Model 247

SAVE $200 ON SINGER ELECTRONIC 860



TOUCH-TRONIC MODEL 860
This Canadian-made Touch-Tronic machine also provides push-button selection of 14 stitch patterns, built-in buttonholer, twin needle sewing, automatic pattern start and many other features for smooth, easy sewing.

SALE $499.95
REG. $699.95

SAVE $120 ON SINGER 5137

Stretch Stitch
Model 5137

A great performer at a great Singer price! With buttonholer and 7 stitches built in; lightweight and easy to operate.
carrying case or cabinet not included

SALE $169.95
REG. $289.95

SAVE $90 ON SINGER 496

- Portable design makes this machine easy to carry and store but still gives you "big" machine capability.
- Free Arm makes sewing hard-to-reach places extra easy.
- Sew faster and smoother with electronic needle control.

SALE $299.95
REG. $389.95

※어떤 종류의 재봉틀이든 고칠 수 있읍니다.

SINGER APPROVED DEALER

HURRY!
This is your last week to save!

EAST
SINGER CENTRE
GERRARD SQUARE
1000 GERRARD ST. E
(& PAPE)
☎ : 461-9764

VISA
MasterCard

WEST
SINGER SQUARE ONE
MISSISSAUGA
☎ : 277-0341

한국인의
화초 도(소)매상
가장 저렴한 가격
전화 : 691-6768
곽 덕열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한국인의 도매상
한 인
연합상사
25-27 Rangemore Rd.
☎ : 251-6578

시설및 수리

"집수리 · 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전화 : 669-5784 Mr. 심

"가게및 집수리 일체"
시설및 수리 (상하수도, 전기제품, 페인팅)
성심 성의껏 봉사해드리겠읍니다.
전화 : 425-8585 Mr. 김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T. V. 출장 수리
전화: 431-0102 미스타 박

목수일 합니다.
◉제네랄·콘트랙터 면허취득 ◉각종건축수리및 신축상담
전화 : 249-0003 Mr. 최

식 당

CHOI'S RESTAURANT
메뉴: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주중:낮12-밤12시까지, 목금: 낮12-밤1시까지
토: 낮4시30분-밤11시반
주소: 2432 Eglinton Av. E. Scarboro (at Kennedy)
전화: 759-8512 최 영 호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Rose Garden (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일류요리사, 홍콩식 중국요리 취급
전화 : 656-0456, 654-6609 유 창균

식 품 점

한 밭 식 품
◉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274-5401

동 양 식 품
일주일 내내 영업, 일요일도 정상영업 합니다.
(화요일만 오후1시~10시까지) 많은 식품을 준비하고
있아오니 계속 이용해 주십시요. *배달도 합니다.
1662 JANE ST, WESTON ONT. 전화: 248-5131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 마련.
전화: 532-1054 (아리랑식당 옆)

고 려 식 품 680 Bloor St. W. Tor.
주 7일영업(오전10시~오후11시까지)
배달가능, 각종서적및 월간잡지 전화:531-2242

삼 복 식 품 주 7일 영업,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서 울 식 품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생 선

K & R Sea Food ▲얼리지 않은 각종 생선.
전화 : 259-1585 ▲싱싱한 횟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 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 530-1870
오전 11시~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의류수선

의류수선, 가내봉제 상세한 문의 바람
전화: 530-1046 10a.m.~5p.m. 368-7258 6p.m이후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에어콘·히팅·냉장고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532-2880, 2889(B) 493-9945(R) 김 봉 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여 행 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
(김종조 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 366-0960(B) 임 태 호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전화 : 928-3335 김 현 두

운전학교

오행근운전학교
전화 : 423-3035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69-1960(B), 743-3377 Mr. Eastman

이삿짐및 운송

나 라 운 수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전화 : 630-6602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2)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 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 (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인 쇄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대표 : 이 인 용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 789-7351, 789-7352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전화 : 244-2301

크로바인쇄소
3351 Lakeshore Blvd. W.
전화 : 251-9587(B) 252-7491(R) 위 정 남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자동차수리

Midwest Auto Body Shop 전화 : 751-9280
▲완전 바디 숍, 신용본위
▲260 Midwest Rd. Unit 8 (미드랜드×로렌스) 임 종 민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 (New Toronto.)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 533-2157

AL'S ESSO Service
Mechanics Repair (All Maker & Model)
Tune-up, Break Repair, Electronic Repair.
Tire & Battery (한국분에게는 염가로 친절봉사해드림)
400 Front St. W.(C.N.Tower 옆)
전화 : 596-6902. Mechanic 최 양호

Lisbon Auto Collision Inc.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견적 ★수리중차 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교포특별대우
★Rust Proofing.
전화 : 533-8507, 533-8508 이연두·이건하

자동차 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HUMBERVIEW MOTORS
G.M. (시보레·올스모빌)
전화 : (B) 236-1011, (R) 763-1155 손 명 실

매매 부동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 용 현 부 동 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전화 : (B) 449-8644~5, (R) 286-1548

ROYAL TRUST (유 복 영)
전화 : 762-8255 West 지역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SINCERE REALTY INC. (채 준성: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장 의 사

장 의 사 (R. S. 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 E. (세퍼드 써브웨이) ☎ : 221-1159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카페트·소파·체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 박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임송학 태권도장
1963 WESTON RD. (1층)
전화 : 247-7577 (웨스톤 × 로렌스) 로브로앞

영정태권도장
1065 St. Clair Ave. W.
전화 : 652-0000 사범 : 정 영 수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 사범 직접책임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안내광고(CLASSIFIED)는 저렴한 비용으로
놀라운 광고효과를 드립니다.
전화 : (416)533-2361~4

T 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페인트 벽지(월페이퍼)

★봄맞이 집단장을 하시지 않으시렵니까?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기술로써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전화:745-6792(Mr.우)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안강용한약건재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보약제와 신경통약이 다량 수입되었읍니다.
교민들에게 특별 염가 제공코져 합니다.
전화문의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 (465 DUNDAS W.)
전화 : 596-8407, 596-7373 최 호 권

하르빈한약상사 각종 디스토마 특효약 입하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전화 : (B)536-6854, (R)531-7505 시 춘봉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 (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니다.
주소 : 92 Brantwood Drive (스카보로 제너랄병원근처)
전화 : 439-6717 김 남 집

서 울 한 의 원
한의사 김 장 석
전화 : 1-212-762-4694 (New York, U. S. A.)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전화 : 530-0522 531-4165(R)

회계사무소

YOUNG C. LEE M.B.A.R.I.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 CA Office근무중
BOOKKEEPING & ACCOUNTING
MANAGEMENT CONSULTING, INCOME TAX PREPARATION
전화 : 239-6802 이 영 철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 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484 BLOOR ST. W. TOR.
전화: 537-3171(B), 669-2710(R)

정장우 회계사 (PAUL C. CHENG)중국인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625 Dufferin St. Ste.407 (B)636-3616 (R)690-7153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45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매 · 도매함
16 Osler St.
☎ : 762-7255, 7256
762-2700

구 인

일본음식과 한국음식 만들수 있는분 구함.
538 St.Clair, W. 전화: 654−6609

남자분 가게 Full Time Helper 구함.
전화: 431−0979

직원모집 (운전면허증소유자)
M & J 인터내셔날•비데오 Co.
◉. Operating 직원
◉. 전기 기술자
◉. 비데오•아케이드 매니저
전화 : 630−0313

경험있는 여자자켓 만드실 Full Time 재봉사 구함
(주급 : $220부터~)
전화 : 368−2819 (Mr. Wong)

바이올린 교습생 모집
전화: 535−0708 박 명 진

지렁이 잡으실분 구함
매일 현찰 지불함.
전화 : 922−3061

그리운 혈우여 연락하라, 만나서 술한잔하세!
해병 187기 이성규가 해병 188기 정경태를 찾음.
우리는 1968~69년에 걸쳐 월남 호이안에서 같이 싸웠음.
연락처 : 57 Octavia Street,
San Francisco, Ca. 94102
전화 : 1−415−552−1438

Gas Attendant 구함.
전화 : 782−6311

충북 영동 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백경희, 탁명순을 찾음.
연락전화 : 533−0489

구 직

Baby Sitter 원하시는 분은
연락바랍니다. 전화: 245−8373 (Mrs. 박)

구 혼

결혼상담 , 직업소개(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 (18부터60세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 최•김

본인은 당년 38세의 신체건강하고 생활력있는 독신 남자입니다. 초 재혼 불문하고 여생을 함께 하실 뜻있는 여성을 찾읍니다. Mr. 박
★주소 : P.O. Box 1217 Station B
Weston, Ont. M9L 2W9

매매및 양도

BUSINESS 안내

1) 작고 알찬 Variety Store
Pape & O'Connor 네거리에 있음. 작년주매상평균: $4,600
그외 로타리오 머신에서 순수입 월 $800이상.
렌트: $500, 리스: 2년 +5년, 아스킹: $40,000

2) 처음 혼자 해보실 분에게.
3410 Kingston Rd. M & P Milk Store로
들려보십시요. 렌트: $300, 새리스: 5년 +5년이 가능
하고 경쟁자 없음. 봄 여름에 정원용 Business를 별도로
할수 있음. 주매상: $2,500 아스킹: $15,000

Royal Trust Corporation of Canada
1919 Lawrence Ave. E. Tel: 752−3111
곽 석 용

집 팝니다(Bellwood Queen Area)
6베드•룸. 좋은 조건임(Private Sale)
가격 : $66,000. 영어로 문의바람. 전화 : 445−9486

CAN−AM REAL ESTATE LTD.

Wanted 2 licensed Real Estate sales people to service Ontario's Korean community. A working knowledge of the Korean language is important. You will represent General Development Corporation, one of Florida's largest home builders and community developers.
Top commission, starting salary and manager status available to successful applicants.

For Further information:
call T. Hill at 661−1625

Can−Am Real Estate Ltd. Real Estate Broker. Authorized Ontario Representative for General Development Corporation.

OA1430−80
*Ask for and read carefully the Prospectus relating to this offering.

세탁소 매매(Depot)
가격: $39,000 (Washing & Dryer 포함)
Rent: $1,100(Four Bed Room 포함)
리스: 3년 + 3년, 주매상: $900~$1,200
전망이 좋음. 465 Vaughan Rd. Toronto.
꼭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가정 형편상 Fruit & Grocery Store
급매코져함. (Corner Store)
744 Dundas St. W. (Bathurst & Dundas)

75년도 클라이슬러 (Town & Country Wagon)
Certified $1,000 전화: 270−2709

Building for Sale (All Best Offer)
(각종 어떤 업소에도 적당한 건물임) 아스킹: $105,000
982 Pape Ave. 전화: 422−5029 (Mike)

성업중인 Hamburger Franchise Restaurant 급매
꼭 관심있으신 분만 연락, 내방 바람.
Peterborough, Ont. 전화: 1−705−748−9722 (Mr. Kim)

Yonge St. 에 있는 꽃가게 급매
위치: 리치몬드•힐 지역
넓이: 4000 Sq. F.
주인이 이주관계로 적당한 가격에 급매코져 함.
꼭 관심있으신분 영어로 문의바람.
전화: 773−5530 Mr. Grabner.

ALBANY REAL ESTATE LTD.
1) Hotel: Room−45, (8개월간 영업)
Niagara Falls Restaurant (Tavern), Gift Shop
모두 포함. 가격: $700,000
2) Restaurant Tavern: 건물포함, 2 apartments
가격: $295,000, 다운페이: $75,000
3) Burger − Chicken Take out Only;
스카브로 플라자에 있음. 주매상: $4,000
Call Wm Matevich 251−4656

공장지대 Office Building 안에 있는 경쟁없는
Donuts Shop, 도너스 만드는 시설이 완비되어 있음.
주매상: $3,500~$4,000
Open: 오전 6:00~오후 6:00
아스킹: $150,000
연락처: 665−0790 Mrs. Lee

Milk Store 매매.(여자혼자서 운영할수 있음)
주매상: $3,500 보증, 아스킹: $28,000+스탁
위치: 777 Danforth Rd.

"Fish & Chips" Fast take out Business for Sale
with option to purchase building.
(빌딩도 겸해서 팔수 있음) 전화 : 828−6103

피아노 급매.
Chickering Piano(Walnut Wood)
3년된것이나 거의 새것임. Eaton에서 새것 $4,500나감.
가격 : $2,500
전화 : 463−7423 Mrs. Kim 439−1433(R)

50mm 스피커 달린
Sound−Projector
전화 : 368−2819 Mr. 왕

House for Sale (Private)
3 Bedroom Mortgage($75,000) 13% until 84년
Mortgage 좋은 Side Split Bungalow
가정사정상 급히 팝니다.
Markham × Lawrence
전화 : 439−1433(R) 463−7423(B)

6년동안 한주인이 경영했던 성업중인 큰 규모의
Variety Store 매매
넓이: 1700 Sq.ft. 리스: 8년반, Rent: $1,168/mon.
주매상: $7,000이상+로타리오. 아스킹: $93,000+스탁
790 Military Trail(Morningside &Military Trail)
꼭 관심있으신 분의 내방바람.

성업중인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주매상: $3,000 렌트: $300(Mon.) 리스: 5년
2988 Lakeshore Blvd. W.

다른 사업관계로 매우 성업중이며 대단히 바쁜
지역의 꽃가게(Retail) 매매. 주변에
Free Parking도 가능함.
넓이 : 3,650 Sq.ft.
전화 : 1−634−9679 John
(오후 6시 이후 연락바람)

농장매매
토론토 서북쪽에 있는 좋은 환경 속에
여러가지 동물(소, 말, 양 등)을 기를수 있는
100에이커의 농장을 가정사정으로 급매
★자세한 문의는 전화 746−3458
(오전11시에서 오후9시사이에 연락바람)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주매상: $3,000~$3,500 Rent: $650
리스: 5년 + 5년. 전화: 781−1072

GOOD BUSINESS OPPORTUNITIES

1) 버라이어티 & 그로서리 스토아
매우 좋은 위치에 있음. 좋고 긴 리스(Lease)
주매상: $8,500 이상. 아스킹: $325,000

2) 서북쪽에 위치한 버라이어티 스토아
2년 되었으며 좋은 조건의 Lease임
주매상: $6,500 이상. 아스킹: $190,000

3) Drive in fast food.
3년간 성업중이며 좋은 조건의 Lease임.
주매상: $4,000 이상. 아스킹: $195,000

4) 도너츠 숍(Shop)
최고의 Lease조건과 좋은 위치에 있음.
주매상: $4,500 이상. 아스킹: $250,000

5) Drive in fast food.
매우 좋은 위치에 있고 최고의 Lease조건
주매상: $10,000이상. 아스킹: $525,000

For more details(상세한 문의는−)
전화: 967−1151 Ben
Benhur Real Estate Ltd.

1) 번화한 공장지대에 위치한 드라이브 인 햄버거 숍
주매상: $8,000 리스: 4년 + 옵션
렌트: $1,700 아스킹: $350,000
2) Variety & Gift Shop (건물포함)
토론토에서 30 mile 거리에 있음.
년매상: $600,000 아스킹: $420,000
3) 사무실 Building안에 있는 미장원
주5일 오픈, 주매상: $1,500 리스: 6년
아스킹: $45,000
4) 그외에 시간짧고 운영간소한
Fast Food & Take Out 비즈네스
A. E. LePage (Ontario) Ltd.
Tel: 741−9170 (Mrs. Woo)

Convenience Store 매매
◉오샤와 지역 ◉렌트: $185 ◉리스: 4년
◉Whitby 지역 전화: 282−7596

대지(Cottage용으로 적합) 매매. Best Offer
Midland Area (Barmbeach) 넓이: 50ft × 120ft.
(Toronto에서 80mile 거리) 전화 : 922−2966

Variety & Hardware Store.
넓이: 2,000 sq.ft.(큰 Plaza안에 있음)
리스: 4년 +5년, 렌트: $1,700(Monthly)
주매상: $9,000 이상 아스킹: $100,000+스탁
361 Carrville Rd. Unit 1−2. Thornhill, Ontario
(Hill Crest Shopping Mall 옆)

하우스 렌트

Detached Building
버라이어티 또는 도너츠가게를 하기에 최고의 조건을 구비한 건물이며 또한 최고의 리스조건을 갖추고 있음.
넓이: 2,400 Sq.ft. 20여대의 차를 Parking시킬수 있음.
(Airport & Derry Rd.)
전화 : 967−0019 Sam (오전9시부터 오후7시까지)

방세놓읍니다. (College & Brunswick)
부엌과 목욕탕, 출입구 따로 되어있고 혼자서 생활하기에 적합함. (지하실: Mon/$200) 전화: 923−6236

아파트 렌트 (One Bed Room)
High Park 지역 전화: 766−4703(Yar.)

가 구 점

ECOSYS FURNITURE
2300 YONGE ST.
전화 : 486−0397 김 만 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석민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 B) 769−0609 R) 242−5194(여정웅)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도 서 판 매

World Book(백과사전)
☎ : 533−2364(Mrs. 김)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스
Weston Mall (웨스톤 × 휜치)
전화 : 746−3458

미 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4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p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마야미용실
631 Bloor St. W.
한국관 앞, 서울여행사 이층
전화 : 588−1480(B), 243−8026(R)

레이몬드미용실 (수잔: 한국인)
◉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 .1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유) 전화: 255−4745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광고문의 533−2361

백 화 점

미 도 파
454 BLOOR ST. W. 전화 : 536−1692

번 역 및 통 역

번역, 통역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 (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M4A 2R1 전화 : 759−9505 (5시 이후)

보 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사무용구및 계산기

SKY WAY Business Machines
215 Carlingview Dr. Unit 109 Rexdale
전화 : 675−1295 김 인환

사 진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619 BLOOR ST. W. 전화 : 534−1085 김 춘 탁

새 한 칼 라 현 상 소 전화 : 535−7772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
COMMERCIAL • ART PHOTOS • WEDDINGS VIDEO 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3시30분~오후9시30분

Peter's Photography.
광고, 결혼식사진 전문. 전화: 270−2709

선물 센타

거 북 이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

빅 • 세 븐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MISTER O FOR MEN
전화 : 964−2606, 869−0589, 275−2187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스 포 츠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트로피및 상패 50% OFF
GOLF PRO SHOP
영업시간 : 월~금: 10a.m.~8p.m. 토: 10a.m.~6p.m.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시계•귀금속 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 (Kipling × Albion)
전화 : 742−1205(B), 745−1632(R) Mr. 마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SOO PIANO SERVICE (조율, 수리)
Sim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전화 : 222−4662 김 수 웅

* 한국일보 안내광고 *

캐나다한국외환은행

불루어지점 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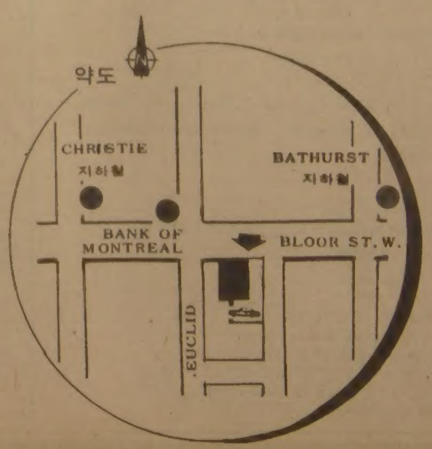
그동안 교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로 착실한 발전을 거듭하여온 저희 캐나다한국외환은행은 한국인 타운인 불루어STREET에 지점을 개설하였읍니다.

이제 저희 은행은 본점과 불루어지점 양 장소에서 여러분을 더욱 성심껏 모시게 되었사오니 배전의 애용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불루어지점에서는 토요일에도 문을열어 여러분을 모십니다.

캐나다한국외환은행장 최승낙

불루어지점장 김남수

영업개시일시 : 1982년 5월31일(09 : 00)
개 점 식 : 1982년6월8일(11 : 30)
개점RECEPTION : 1982년 6월8일(18 : 00~ 20 : 00)

불루어지점주소 : 627 BLOOR ST. WEST
TOR.ONT. M6G 1K8
☎ 533—8593